

II

문헌조사 자료

2.1 철원군

2.2 포천시

2.3 연천군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제2부. 문헌조사 자료

2.1 철원군

2.1.1 철원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철원은 삼국시대 각국의 쟁탈전이 벌어지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일찍부터 고구려의 남쪽 방어선 역할을 하였고, 신라가 점령한 후에는 반대로 고구려 공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했다. 신라 말 태봉을 세운 궁예는 이곳에 도읍을 정했고, 그 궁예를 몰아낸 왕건은 또한 이곳의 포정전에서 왕위에 올라 고려왕조를 연다.

이후 철원은 고려시대에는 동주(東州)로 불리면서 고려의 주요 거점지 중 하나가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철원군으로 불리면서 남북의 주요 교통로이자 곡창지대로써 존재했으며, 때때로 군사들의 훈련소나 왕의 강무장소로 활용되었다. 한편, 조선 중기에는 의적 임꺽정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철원은 6·25 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라 하여 전쟁의 격전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천년고찰 도피안사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산과 유적들이 파괴되었고, 철원의 자랑 곡창지대는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으며, 그나마 남쪽의 평야지대도 오랫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 많았다. 그러나 철원의 군민들은 합심하여 이 모든 아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섰으며,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국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역사적 장면들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¹⁾

(1) ~삼국시대까지의 철원

1) 철원

한탄강을 권역으로 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철원 역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의 유적들이 발굴되었다. 먼저 철원군의 구석기유적으로는 장흥리 구석기유적을 들 수 있다. 장흥리 구석기유적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군 포사격 훈련장 내에 있다. 장흥리 구석기유적은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마지막 단계의 석기구성상을 반영해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즉 한탄강 하류의 전곡리유적이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의 석기구성상을 반영해주는 표식적인 유적이라면, 한탄강 중상류 지역인 이곳 장흥리 유적은 구석기시대 아주 늦은 시기의 석기구성상을 확연히 대변해주는 표식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석기유적의 경우는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토성리 토성 주변에서 육국사 관학교 육군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빗살무늬토기편 1점이 수습된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탄리의 바위그늘유적에서는 강원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빗살무늬 토기가 확인되었다. 군탄리 바위그늘유적은 신철원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다리를 건너 갈말농공단지 입구 바위산에 위치한다. 바위그늘유적의 발견은 앞으로 이곳에서 이러한 유형의 유적이 더 많이 확인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이 유적으로부터 500~600m 상류 쪽에서 2곳의 바위

1) 이하의 내용은 『철원의 역사와 문화』(철원공감·철원역사문화연구소 편, 2012)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그들을 찾아내었는데 문화층이나 유물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사람이 주거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군탄리 바위그늘유적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중요 유적지로 정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의 성격이 보다 자세하게 밝혀져야 한다.

한편, 청동기시대 대표적 유적으로는 고인돌로 청원 관내에는 토성리, 문혜리, 군탄리, 신철원리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청동기시대의 중요한 유물산포지이기도 하다. 고인돌 외에 군탄리, 동막리, 대마리, 학사리, 와수리 등지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보이는 간돌 도끼, 간돌 창, 간돌 화살촉, 간돌 점, 흙자귀, 반월형석도 등의 유물이 매장문화재로 발견 신고 된 사례가 있다.

2) **철원**

철원은 본래 고구려의 철원군으로서 모을동비(毛乙冬非)라고도 하였다. ‘모을(毛乙)’은 ‘털’을 한자로 적은 것이며, 그것을 다시 ‘철’로 되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이곳이 고구려 땅이었다고 함은 고구려가 한창 번성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삼국시대 초기의 철원지역은 백제 영토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온조왕 18년(기원전 1)에 말갈이 쳐들어오자 칠중하(七重河, 지금의 파주군 적성)에서 섬멸시켰다고 하고, 22년에는 또 부현(지금의 평강)에서 말갈을 쳐부수었다고 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여 초기 백제의 북쪽 경계를 예성강 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과 인접한 철원을 백제의 영토로 볼 수 있다.

4세기 말부터 백제는 고구려의 남침을 받기 시작하였다. 백제 아신왕 5년(396)에는 수도 한성에 쳐들어와 왕족과 신하를 인질로 잡아간 사실이 광개토왕 비문에 새겨져 있으며 개로왕 18년(472)에는 한성이 함락되어 수도를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철원이 고구려에 영속된 시기는 4세기 이후일 것이다. 이후 한강 및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세력 각축장이 되었다. 신라 세력이 이 지역에 미치게 된 시기는 6세기 중반이다. 진흥왕 14년(553)에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다 신주를 설치하였고 2년 뒤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고구려도 끈질기게 반격하였으니 영양왕 14년(신라 진평왕 25년, 603)과 영류왕 21년(신라 선덕왕 7년, 638)에 각각 북한산성과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전략상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적성의 감악산에는 옛날 비식 있는데 글씨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 아쉽다. 진흥왕의 척경비가 있는 북한산과 함경남도 황초령 및 마운령을 잇는 지점에도 또 하나의 비가 있었다고 전한다. 바로 철원 고석정 큰 바위에 있던 것으로서 “신라 진평왕이 와서 놀았다.”는 기문이 전해질 뿐 지금은 비를 세워둔 자리만 있다. 감악산 비와 고석정 비는 진흥왕의 영토개척을 기념하는 비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 대두되어 왔다. 반면 신라는 진평왕 대에 가서야 임진강 남안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는 역사 지리적 고찰에 따라 두 비 모두 진평왕 비라는 주장이 있다. 어쨌든 7세기에 들어와서 철원은 신라에 귀속되었고 이후 200년간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게 된다.

(2) **~후삼국시대까지의 철원**

1) 통일신라시대의 철원

경덕왕 16년(757)에 전국의 지명을 한자화할 때, 한주(漢州)의 27개 군 가운데 철원군도 철성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시대의 사적으로는 다행히 도피안사(到彼岸寺) 비로자나불조상기(毘盧舍那佛造像記)가 남아있다. ‘감통육년’(경문왕 5년, 865)이라는 연대를 명시

한 이 금석문에 의하면 불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원군의 1500여 인이 향도를 결성하여 물자와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당시로서는 대규모 불사로서 철원의 인구와 물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힘든 역사였다. 이들 1500여명 향도세력은 궁예왕의 지지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궁예왕이 철원에 도읍한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국보 63호이고 3층 석탑은 보물 233호이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는 철로 만든 불상이 크게 유행했는데 이 불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불상을 받치고 있는 대좌까지도 철로 만든 보기 드문 작품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가름한 얼굴은 인자하고 온화한 인상이다. 평판적인 신체에는 굴곡의 표현이 없고 양 어깨를 감싼 옷에는 평행한 옷 주름이 형식적으로 표현되었다. 몸에 비해 가냘픈 손은 가슴 앞에서 왼쪽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모양이다. 불상이 앉아 있는 대좌는 이 시기에 가장 유행한 형태로 상대와 하대에는 연꽃무늬를 새겼으며 중대는 8각을 이루고 있다.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던 철조비로자나불상의 새로운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능숙한 조형수법과 알맞은 신체 비례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도피안사 3층 석탑은 법당 안에 안치된 철불상의 명문에 나오는 경문왕 5년(865)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연화좌대를 사용한 것과 전체 형태의 비례감과 조성수법으로 보아 신라하대 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높이 4.1m로 화강암을 재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특유의 석탑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탑은 이중기단의 3층 석탑으로 각 층마다 옥신이 매우 높고 옥개석의 받침이 다른 탑과는 달리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방형 지대석 위로 8각으로 된 하대에는 각 면에 안상이 조각되고 상면은 단조로운 복판연화가 조각되었다. 이 탑은 각 부위가 폭에 비해 높아 고준해 보여 안정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탑의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과도기적인 위치에서의 시대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이한 구조로 인하여 통일신라말기의 한 단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 오랜 풍상으로 탑신에 다소 균열이 보이고 있다. 철원이 6·25 격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과 석탑이 비교적 손상 없이 잘 보존되었다.

안양사(安養寺)는 철원 8경의 하나로 철원군 철원읍 울리리 215번지에 있었던 절이며 지금은 유지만 남아있다. 보개산 안팎으로 나누어 내보개를 대표하는 절이 심원사라면 안양사는 외보개를 대표하는 절이다. 신라 경문왕 3년(863)에 범일국사가 창건하여 그 해에 극락삼성은 나무로, 관음이위(二位)는 돌로 만들어 봉안하고 안양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고려 태조 19년(936)에 동진대사가 북해암을 창건하고 아미타 석상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조선 태조 7년(1398)에 무학왕사가 안양사를 다시 세웠고 광해군 13년(1621)에는 대승암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50년 6·25때 모두 불타버렸다. 1940년대에 찍은 사진과 축대가 남아있다. 수년전까지 절터 50m 아래에 현무암으로 만든 몸통이 있었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심원사의 소재지는 철원군 신서면 내산리 5번지이다. 신라 진덕왕 원년(647)에 영원조사가 영원사 법화사 흥림사 도리사 등을 영주산(보개산)에 차례로 창건하였다. 성덕왕 19년(720)에 사냥꾼 이순석이 출가하여 석대암을 창건하고 헌안왕 3년(859)에는 범일국사가 흥림사를 중건하고 일천불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이듬해에 범일국사가 성주암을 창건하고 지장암 및 남암을 지었다. 조선 태조 2년(1393)에 절이 불탔다. 태조 5년(1396)에는 무학대사가 절을 세 번째 중창하고 영주산을 보개산으로 흥림사를 심원사라 개칭하였다. 태조 7년(1398)에 무학대사가 성주암을 다시 짓고 정종 2년(1400)에는 석대암을 세 번째 중창하

였으며 선조 28년(1595)에 인승·정인 두 스님이 왜란의 잣더미를 치우고 네 번째 증건하였다.

융희 원년(1907) 10월 17일 일본수비대가 폭도 검거를 위해 심원사에 불 질러 250여 칸의 절 건물과 1602위의 불상이 잣더미로 변한 것을 유연수 화상이 점차 복구하였다. 1950년 6·25 동란으로 전소되었다. 현재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2번지에 있는 심원사는 옛 심원사가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 되자, 1955년에 옛 심원사 석대암 지장보살상을 이곳의 명주전에 모시었다. 명주전은 옛 심원사 천불전의 기둥과 도리를 옮겨 세운 건물이다.

2) 철원

철원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신라 하대이다. 복원(원주) 괴수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는 송악(개성)을 근거로 하여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효공왕 5년, 901). 904년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이듬해에는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으며 911년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바꾸었다. 비로소 태봉은 강원·경기·황해도의 대부분과 평안·충청도 일부를 점령하고 관부와 관계를 설정하여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즈음 우리나라의 정세는 전라·충청도를 장악한 견훤의 후백제와 기존의 신라 이렇게 삼국이 정립하게 되었다. 왕건 일당의 정변으로 궁예는 축출되고 고려 왕조가 성립된다(918). 고려 태조 2년에 수도를 송악으로 옮기었고, 철원은 동주로 지명이 바뀌었다. 철원은 14년간 태봉국의 수도였다.

태봉국을 이끈 궁예왕의 출생 과정과 성장기, 영토 확장 및 정복기, 국가 체제 확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성은 김이로 몰락한 진골귀족의 후예로 신라 제47대 헌안왕 또는 제48대 경문왕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아마도 정권다툼에 희생되어 지방으로 쫓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어려서 세달사(영월)의 승려가 되었고 승호는 선종이라 불렀다. 신라 사회가 부패하고 쇠약해지면서 국가기강이 무너져 전국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 정복자로서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진성왕 5년(891) 죽주(현 안성)의 산적 기훤에게 투탁하였다가²⁾, 892년에 복원(현 원주)의 적수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³⁾ 양길은 궁예를 잘 대우하였고 일을 맡기며 병사를 주어 동쪽 지역을 정벌케 하였다. 이에 치악산 석남사를 근거지로 주천(영월), 나성(영월), 울오(평창), 어진(울진)등지를 차례로 복속했다. 진성왕 8년(894)에 궁예가 복원으로부터 하슬라(강릉)에 군사 600여명을 이끌고 들어갔고 김순식의 도움으로 명주서 나올 때는 무리가 3500여명에 이르렀고 장군이라 칭했다고 기록은 적고 있다. 당시 궁예는 사졸들과 즐거움과 괴로움, 힘듦과 편안함을 함께하고 사사로움이 없이 상벌도 공정히 하여 무리들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장군에 추대되었다고 한다.

14대(隊)로 편제도 갖추고 기세가 오른 궁예 군대는 895~896년 서진하여 저족(인제), 성천(화천), 부악(김화), 금상, 철원 등의 성을 격파한다. 군세가 매우 성대해지자 평산호족인 박지윤이 귀부하고 해상무역에서 우위를 점하던 왕건가의 협조로 군사력과 경제력은 더욱 커졌다. 이를 기반으로 효공왕 2년(898) 양길을 타도하고 중부 남한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송악(개성)에 수도를 정하고 자립하여 고구려 부흥을 표방하게 되었고, 901년 고려(후고구려)를 건국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904년에 국호를 마진, 연호를 무태라

2) 궁예는 죽주(현재의 안성)를 장악했던 기훤에게 투신했으나 그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였고,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기훤을 떠나 보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양길에게 투신한다. 이광식, 『궁예평전』, 93-95쪽 참조.

3) 양길에게 투신한 이후 궁예가 자체적으로 세력을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은 이재범,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혜안, 2007, 56-58쪽 참조.

하였으며 신라 관계를 참작하여 관제도 정하고 국가체제를 갖추었다.⁴⁾ 이듬해인 905년 국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연호를 성책이라 바꾸고, 911년 국호를 태봉이라 고치면서 연호를 수덕만세라 개원하고, 914년 다시 정개라고 고쳤다. 궁예는 철원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경기·황해의 대부분과 평안·충청의 일부를 점령함으로써 신라나 견원의 후백제보다도 큰 세력을 형성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의 2/3를 장악했다.

궁예는 국사를 총괄하는 광평성을 비롯하여 병부 등 10부와 9관등의 관제를 정비하여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강원·경기·황해의 대부분과 평안·충청 일부를 점령하고, 왕건과 제휴하여 진도·나주를 점령하여 남서해의 해상권도 장악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신라를 멸도라 일컫게 하고, 투항한 신라인을 모조리 죽이는 등 전제군주로서 횡포가 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미륵신앙을 이용했는데, 자신은 미륵불, 두 아들은 보살이라고 칭하였다. 915년에는 부인 강씨와 두 아들을 살해한 후, 반 궁예 세력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 이루어졌으며 백성을 괴롭히는 등 전횡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신정적 전제주의로 폭정을 일삼던 궁예왕은 결국 부하인 신승겸·홍유·복지겸·배현경 등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고 왕건에게 왕위를 넘겨준다.⁵⁾ 궁예는 승려 출신으로 왕이 된 뒤에도 모든 기거 동작을 불교식으로 하여 그가 남긴 석등롱이나, 팔관회를 개최한 일 등은 뒤에 고려에도 영향을 끼쳤다.

(3) ~조선시대의 철원

1) 철원

서기 918년 궁예를 몰아낸 왕건은 철원의 포정전에서 왕위에 올라 고려를 세운다. 그러나 남아 있는 궁예의 세력을 부담스러워했을까. 그는 다음해인 919년에 도읍을 송악으로 옮기게 된다. 비록 천도하긴 했으나 철원은 여전히 군사적·정치적·지리적 요충지였다. 때문에 철원을 동주(東州)라 부르며 송악을 지키는 방어선이자 한남 이남의 통치를 위한 교두보로 삼는다.

이후 성종 14년(서기 995년) 전국의 지방행정을 정비할 때 삭방도(朔方道, 강원도 지방)에 편입 시켰으며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년)에 이를 폐지하고 현종 9년(1018년)에 전국의 재직제를 개편할 때 동주로서 지주사를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고종 40년(1253년) 몽고병이 침입하여 철원의 동주산성이 함락되었던 까닭에 고종 41년(1254년)에 직제를 낮추어 철원현령을 두었다가 다시 직제(職制)를 승격시켜 목사(牧使)로 하였다. 고려의 행정구역이 5도 양계로 구획될 때는 교주도에 속하여 충선왕 2년(1310년)에 목사(牧使)를 폐지시키고 철원(鐵原)으로 개칭하고 부(府)로 직제를 낮추었다.

공양왕 3년(1391년)에 지금까지의 소속에서 옮겨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4) 궁예는 국가를 건설함과 동시에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제도를 정비한다. 그 과정에서 왕권의 전제화, 즉 보다 강력한 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이룩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89-116쪽 참조.

5) 태봉 정권 말기 궁예의 실정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백제와 신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세력을 형성했던 궁예의 역량이 전적으로 요사하고 기괴한 행각들로 대변되는 폭정 때문에 무너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고려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의도적으로 궁예의 역량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오히려 단편적 언급들을 통해 보면 궁예는 민중들의 신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범, 『태봉의 궁예, 철원에 살아 있다』, 철원군·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2005, 155-166쪽 참조.

2) 철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후 철원은 강원도에 속한 지역이 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 조직은 태종 13년(1413)전국을 8도로 나눠 관찰사를 두고, 그 밑에 유수부 1, 부 6, 대도호부 5, 목 20, 도호부 74, 군 73, 현 154개를 뒀다. 이에 따라 철원은 태종 13년에 도호부가 되었고 관원으로는 부사(종3품)와 교수(종6품) 각 1명이 있었다. 세종 16년(1434)에 이르러 철원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다시 이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철원의 호수는 351호이고 인구는 770명이었다. 한전과 수전의 비율은 4:1 이며, 간전이 모두 4343결이었다. 영조 37년(1760) 간행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철원군은 9개면 81개리 3646호 인구 15610명이었다.

조선시대 국방 및 운송 관계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 주요 군사거점인 진을 중심으로 인접한 몇 개의 군현이 유방군을 내어 전란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강원도에는 강릉과 간성에 진을 두었으나 따로 유방군이 없이 유사시에 중앙에 번상하는 시위패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철원군에 시위군이 62명 있었다. 한편 지방군제는 세조 3년(1457) 진관체제로 개편되어 강원도에는 원주 회양 강릉에 진관을 두었고 철원은 회양 진관에 소속되었다. 숙종 10년(1684)의 기록에 의하면 철원 영장이 춘천부와 회양진영을 통솔하였다. 영조 22년(1747)에 춘천에 있던 방영을 폐지하고 이듬해 철원으로 옮겨 조선말까지 춘천부사가 철원영의 좌영장을 겸하여 3부(춘천·회양·인천) 6현(금성·김화·낭천·평강·양구·안협)을 관할하였다. 이후 고종 32년(1895) 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춘천부 철원군으로 되었다가, 이듬해 도제로 환원되면서 강원도 철원군이 되었다.

(4) 현대의 철원

1) 구한말~현대의 철원 개요

고종 32년(1895) 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춘천부 철원군으로 되었다가, 이듬해 도제로 환원되면서 강원도 철원군이 되었다. 1907년 10월 허위 부대가 철원지역에서 의병세력을 떨치게 되자 10월 15일 금성 수비대가 철원에 출동해 16일 아침 심원사에 유진(留陳)하고 있는 의병부대를 추격하였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심원사에서 대기 중이던 허위 부대는 금성수비대가 17일 이곳에 진출하자 또 한 차례 타격을 가하고 재빨리 심원사를 탈출하여 인천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심원사까지 의병을 추격하여 소득 없이 습격만 당한 금성수비대는 심원사가 철원지역 의병활동의 거점이 된다하여 심원사를 불 지르고 금성으로 귀대하였다.

1914년에는 경기도 삭녕군 내문면 인목면 마장면이 철원군에 편입되고 1931년에는 철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9면의 행정구역을 이루게 되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철원군 전 지역이 공산치하에 들어갔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과 북괴군의 전쟁터가 되었고 특히 1952년 10월 철원군 북방에 있는 백마고지에서는 국군과 중공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국군이 복진하여 철원이 수복되자 군정이 실시되다가 1954년「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해 이북지역의 6개 면을 제외한 4개 읍면을 관찰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옛 김화군이 철원군 김화읍으로 개편되고,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으로 편입되었다.

1972년 철원군 북면 유정리 홍원리와 내문면 독검리가 철원읍에 편입되고 전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철원군 갈말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는 서면 청양리와 도창리가 김화읍에 편

입되었다. 1975년 철원 북방 13km 지점에서 북한이 파놓은 땅굴이 발견되었다. 1979년 갈말면이 갈말읍으로, 1980년에는 동송면이 동송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4읍 7개면이다.

2) 3·1만세 운동

철원 평강 김화지역은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서 서울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시류와 정보들이 빨리 전파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지도층과 식자층이 빈번히 서울을 드나들면서 근대적인 사고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전통과 근대 사상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서당과 민족종교 천도교, 기독교 감리회 및 도피안사, 각종 공립과 사립학교에 몸담고 있던 선각자들의 계몽과 학습,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철원군이 강원도에서 3·1만세운동을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다가 만세운동을 수행할 지적인프라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1919년 3월 1일에 강원도 내에서 서울의 3·1운동과 연락이 닿은 곳은 평강뿐이었다. 그것은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분배할 때 강원도의 책임은 천도교 계통에서 맡았고, 천도교 본부 안상덕은 선언서 700매를 2월 28일 평강교구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도교 교구 망을 통해 철원군(200매), 김화군(150매), 화천군, 회양군, 통천군, 이천군, 춘천군 등지로 전달되었다. 철원군에는 천도교인을 통해 3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군내 곳곳에 독립선언서가 뿌려졌다. 철원읍에서는 감리교회 박연서 목사의 주도로 철원 농업학교와 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일반 군중이 합세하여 3월 10일 오후 3~4시경에 철원군청 앞에서 700여명이 모여 대규모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튿날인 3월 11일에는 아침부터 군중이 서문거리에 모여 철원역으로 몰려가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규모가 1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후 읍내로 향하는 시위대를 향해 헌병들은 총을 쏘며 해산을 종용했고 그 자리에서 12명이 체포되었다. 갈말면 만세운동은 3월 12일 문혜리의 서당 훈도 신성규와 보성전문학교 선생 김철용이 주동이 되어 토성리, 동막리, 내대리, 도창리 주민은 청양리 주재소가 있는 지경터로 모이게 하고, 문혜리, 군탄리 남부 주민은 문혜리 면사무소가 있는 어음제로 집결시켰다. 주먹밥을 싸들고 아침 일찍 지경터와 토성리에 펼쳐진 벌판에 800여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외쳤고, 오후 1시경 문혜리로 방향을 돌렸다. 문혜리 주민들과 합세해 갈말면 사무소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밤늦게까지 만세를 외쳐댔다. 당시 만세를 부르며 귀가한 동막리 주민들은 새벽에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3월 28일 김화군 도창리 500여명 만세시위, 3월 30일 평강군 읍내 시위, 4월 8일 내문면 800여명 만세시위 등 3월 한 달 내 내 철원관내 곳곳에서 만세시위는 계속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검거되고 고초를 겪었다. 철원군민들이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일제만행에 항거하여 3·1만세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철원군 현대사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대한독립애국단>도 철원에서 시작되었고 그 중심이었기에 후일 <철원애국단>으로 불리었으며, 박용만, 이봉하, 이강훈 선생 같은 훌륭한 독립 운동가들이 배출된 곳이 철원군이다.

3) 8·15해방과 철원

철원군은 일제하 도내 최대 군세로 춘천보다 읍 규모가 앞서 강원도청 유치운동을 펼 정도였다. 구 철원읍 지역은 철원평야의 중심지에 도시가 위치하여 경원선과 금강산 전철이 운행되고 각종 농축산물의 집산과 교류가 번창하여서 예로부터 강원도 내에선 춘천, 강릉,

원주와 더불어 대읍부향으로 손꼽혔다. 1937년 발행된 <철원읍지>에 의하면 인구수 4269 가구에 19693명에 취업방직여공이 500여명이며, 교육기관으로 보통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유치원 2개교 등 5개교로 1700여명이 있었고, 종교인으로는 감리교인 495명으로 가장 많다고 전한다. 금융기관 4개, 일반 행정기관은 철원군청을 포함 34개의 기관이 있었고, 기타 접객업소는 여관 34개, 요리옥 10개, 음식점 51개, 이발관 8개, 목욕탕 3개, 공장 2개 등 103개소에 이르고, 자동차 15대, 오토바이 4대, 자전거 793대, 의사 9명, 치과 2명, 약사 5명, 산파 3명, 의생 5명 등이었다고 전한다. 당시 철원공립보통학교 학생이던 김송일 어르신은 당시 규모와 주민 생활상이 수원이나 춘천과 비슷했다고 회고한다.

1945년 조국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미·소 열강에 의해 38도선을 경계로 두 동강난다. 8·15 해방이 자력 아닌 연합군에 의한 해방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비운과 수난의 역사는 그때부터 내재돼 있던 것이었고, 국토분단과 사상이념의 갈등이 반세기 이상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8월 15일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자 철원의 일본인 공직자와 추종하던 일부 친일파들이 자취를 감추어 무정부 상태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 철원 군민들은 치안과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자 철원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독립운동가 이봉하 선생을 추대하고 각 읍면 임원 구성을 하여 자치 행정과 치안사업에 진력했다.

1945년 8월 말경 소련군의 철원 진주는 철원군민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소련군 진주에 맞추어 지하 공산주의자였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은 각 지방마다 자위대, 보안대, 치안유지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등 자치 단체를 조직케 하여 공산주의자의 영향 아래 운영케 했고, 북한 지역의 행정권을 통합 행사하는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였던 것이 1947년 2월 중앙에서 말단 행정단위인 리·동에 이르기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각급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인민위원회>조직과 더불어 본격적인 공산화작업에 들어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남침을 위한 인민군 증강에 총력을 쏟는다. 그리고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토지개혁을 계기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38도선 이남이기에 철원군을 북 강원도 인민위원회 소재지로 정하고 도 인민위원회를 위시하여 공산당 도당부 등 도 단위 기관이 철원군에 설립되어 북 강원도청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1946년부터 노동당사 철원군지부 건설 부역에 주민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건립성금으로 쌀을 걷어 냈다.

4)

1950년 현대사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6·25 전쟁 당시 철원은 이른 바 철의 삼각지라 하여 가장 격렬한 전장이 되었다.⁶⁾ 그리하여 철원이 자랑하는 술한 문화제는 물론 대부분의 마을이 폐허로 변하는 아픔을 겪었다. 더군다나 휴전 후 철원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남쪽 지역도 상당 부분이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어 오랫동안 전쟁의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군관민을 중심으로 마을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황량하게 변한 농토를 새롭게 개간했으며, 점차 민간인 통제 구역도 완화되어 민복마을이 나타나게 되었다.

8·15해방 후 인공치하였던 철원은 6·25 전쟁 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다. 휴전으로 수복 된 철원은 1년간의 군정을 거쳐 1954년 10월 행정권이 민정으로 이양되면

6) 이에 대해서는 2.1.7장 6·25 전쟁과 철원 편에서 상술한다.

서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이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민통선(민간인 통제선)안이 원래 고향이 있거나 경작지가 있는 주민은 관할 군부대로부터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아 아침에 들어가 일몰 전에 민통선 밖으로 나와야 했다.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 철에는 출입허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빈번했고, 군부대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형국에서 작전상 불가하다고 맞섰다. 안보가 최우선인 60~70년대에는 모든 주민과 관공서가 관할 부대장의 눈치만 봐야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통선 북방 미개척 토지를 개간하여 식량증산을 꾀하고, 적과 대치한 최전방의 안보태세도 강화하며, 전시효과로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민통선 안에 건설된 것이 이른바 전략촌(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인 것이다. 철원군에서는 1959년 철원을 원하리 72세대를 필두로 1960년 관전리 32세대, 1968년 철원읍 대마 1리 150세대, 대마2리 97세대, 1970년 김화읍 생창리 100세대, 1973년 김화읍 유곡리 60세대, 1974년 갈말읍 동막리 50세대, 정연리 120세대, 1979년 동송읍 이길리 68세대, 양지리 100세대, 1960년 근남면 마현1리 66세대, 1968년 마현2리 60세대 등 총 14개 민복마을을 조성하여 975세대를 입주시켰다.

끝으로 철원의 역사를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철원의 역사 >

시대 및 연대	연혁
고구려 시대	모을동비(毛乙冬非, 철두루미, 털두루빙) 또는 철원(鐵圓)이라 칭함.
신라 경덕왕 16년(757)	철성(鐵城)이라 개칭함.
후삼국시대(900~918)	궁예가 풍천원(風川原)에 국도를 정하고 18년간 통치하였으며 국호를 마진(摩震), 태봉(泰封)이라 하였음. 당시의 이 곳 명칭은 철성(鐵城).
고려 태조 1년(918)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국을 세우면서 옛 지명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살려 철원(鐵圓)이라 개칭.
고려 태조 2년(919)	도읍을 송악(松岳)으로 옮기고 동주(東州)라 개칭.
성종 14년(995)	동주에 단련사(團練使)를 둠.
목종 8년(1005)	단련사(團練使)제를 폐함.
현종 9년(1018)	직제개편에 따라 지주사(知州事)를 둠.
고종 41년(1254)	직제를 낮추어 현령을 두었다가 다시 승격시켜 목사(牧使)로 정함.
충선왕 2년(1310)	목사(牧使)제를 폐지하고 철원(鐵原)으로 개칭하고 부(府)로 직제를 낮춤.
공양왕 3년(1391)	경기도에 속함.
태종 13년(1413)	철원부에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
세종 16년(1434)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관.
영조 22년(1747)	춘천부의 진관(鎭管) 도호부(都護府)를 철원으로 이설하여 3부(府) 6현(縣)을 관할.
고종 32년(1895. 5. 26)	헌 칙령 제98호(1895. 5. 26 공포)로 춘천부의 철원군이 됨.

1896. 8. 4	칙령 제35호(1896. 8. 4 공포)에 의거 13도 구획시 강원도 철원군이 됨.
1914. 3. 1	부령 제111호(1913. 12. 29 공포)에 의거 경기도의 삭령군(朔寧郡)의 내문(乃文), 인목(寅目), 마장(馬場)의 3개 면이 철원군에 편입됨(10면)
1931. 4. 1	부령 제103호(1930. 12. 29)로 철원면이 읍으로 승격됨.
1945. 8. 15	해방과 동시 인공치하에 들어감.
1950. 6. 25	6·25동란으로 행정이 중단됨.
1954. 10. 21	법률 제350호(1954. 10. 21 공포)로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군정으로부터 행정권 인수.
1963. 1. 1	법률 제1178호(1962. 11. 21 공포)에 의거 구 김화군 중 8개 읍면이 철원군에 편입되고 신서면(新西面)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됨(2읍 9면).
1972. 12. 28	법률 제2395호(1972. 2. 18 공포)로 북면 유정리, 홍원리와 내문면(乃文面)의 독검리(篤儉里)가 철원읍에 평강군 남면 정연리에 갈말면에 편입됨.
1973. 7. 1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 공포)에 의거 서면 청양리와 도창리가 김화읍에 편입됨.
1979. 5. 1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 공포)로 갈말면이 읍으로 승격됨.
1980. 12. 1	대통령령 제10050호(1980. 10. 21 공포)로 동송면이 읍으로 승격됨.
1990. 12. 31	현재 4읍 7면임.

2.1.2 철원의 지리와 생태

한반도의 중앙에서 살짝 서쪽 방향(영서 방면)에 위치한 철원군은 지리적·기후적·생태적으로 남북·동서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 관찰의 보고이다. 또한 철원군 지역은 해발 200~300m의 광활한 평야지대와 800m의 높고 험산 산줄기가 어우러져 각종 산물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비록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나 이후 군민의 노력으로 철원군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험악했던 전쟁의 상처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철원군 자연의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너그러움의 현장을 지리와 생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⁷⁾

(1) 지리

1) 지리적 위치

철원군은 평강, 이천의 3개 군과 김화군의 서쪽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200~300m의 지대와 800m 내외의 산봉이 구릉과 연결되어 이루고 있으며, 그 중앙부에 해당하는 서남방 지대는 한탄강 유역을 따라 비교적 구릉과 평야를 이룬 대소분지로 재송평(현 철원읍지역)과 대야잔평(현 동송면 오덕, 장흥지역) 등 평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신생대 제4기 홍적세(洪積世)에 추가령열곡의 구조열선을 따라 유동성의 흑색 현무암이 분출하여 평탄한 용암대지를 이루고 있다. 60%의 산림지대와 40%의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곡에서 흐르고 있는 수계는 대소하천을 이루면서 한탄강으로 모여든다. 또한 토양은 농사짓기에 알맞아서 품질 좋은 미곡생산 지대이기도 하다.

철원, 평강을 연결하는 서쪽에 추가령열곡이 남북으로 뻗어 지리적으로 남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추가령열곡의 요지를 따라 서울과 관북을 연결하는 경원선이 놓여있다. 이처럼 철원군은 자연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알맞고, 지리적 조건이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

옛 군 소재지로부터 동쪽 12.8km 지점에 김화군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 17.2km 지점에 경기도 영평군과 경계를, 서쪽 13.2km 지점에 연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또한 7.6km 북쪽에 삭녕군, 북쪽으로 12.8km에 평강군과 만난다. 서울과의 거리는 88.2km이다. 동단은 동경 127° 24' 32" 서단은 동경 126° 55' 53" 에 해당하며 북단은 북위 39° 24' 남단은 북위 38° 05' 17" 이며 동서연장은 41.8km 남북의 연장은 34.4km이다. 또한 총면적은 548.8km², 면수는 1읍 9면 동리수는 60개 리동으로 구획되어 있다.

철원평야는 우리나라 중부지대, 영서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철원평야는 전국적인 평야지대에 비하면 평야라고 부르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평야지대가 빈약한 강원도 내에서는 평야로써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지대이다.

철원(평강 남방지역 포함) 평야(분지)는 지질시대구분으로 보면 남한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거의 볼 수 없는 신생대충이며 현무암의 분출로 생긴 용암대지로써 구성된 특이한 지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이 평야대지가 상호 연결되어 펼쳐있는 이 고장인 평강군 남방지대(남면 계곡리, 학전리), 철원군 북방지대(북면일원 및 철원읍 전역) 동방지대(동송읍

7) 이하의 내용은 『철원군지』(철원군 편, 1992), 『철원향토지』 4집(철원문화원 편, 1998.)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오덕, 장흥리, 어운면 양지, 이길, 강산, 중강, 하갈) 서남방지대(묘장면 대마, 산명리)의 평원한 분지들은 신생대에 분출된 암장이 광활한 지역들에 분지가 형성되면서 표고 200~300m의 준평원을 이루고 있는 대상을 통틀어 평야지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질과 토성은 농경지로 적합하여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원곡창지대로 널리 알려진 평야(분지)이다.

2) 산과 강

① 철원의 산: 철원의 주산맥인 광주산맥은 금강산을 분기점으로 회양군의 죽엽산(1,090m)과 지혜산(1,191m)을 끼고, 철원과 회양, 양구, 화천의 군계를 이루면서 서남으로 향한다. 6.25 당시 격전지였던 적근산(1,073m), 대성산(1,175m)의 험준한 봉우리를 연결하여 크고 작은 40여 봉과 이어지며, 철원 남방의 북계산(1,067m), 북주산(1,152m), 광덕산(1,046m)까지 산세를 유지하고, 화천과 포천의 경계인 백운산(904m)을 거쳐 200km를 뻗어 내리는 태백산맥에서 분파된 산맥이다.

이와 같은 광부산맥에 속해 있는 철원의 산과 봉의 표고는 평균 500~1,200m 내의 고산들이 많다. 이에 비해 추가령열곡과 연결된 산세는 비교적 낮은 야산이 많다. 철원의 산과 봉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00여 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북한 지역에 위치한 산도 다수 있다. 이를 제외한 대표적인 철원의 산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 철원의 산 >

이름	높이(m)	소재지	이름	높이(m)	소재지
고암산	780	북면 외학리	대성산	1175	근남면 마현리
백마산	395	철원읍 산명리	광덕산	1046	서면 자등리
소이산	362	철원읍 사요리	북주산	1152	근남면 잠곡리
수정산	489	철원읍 울이리	쥐골산	748	근남면 잠곡리
금학산	947	동송읍 이평리	회목산	1027	근남면 잠곡리
고남산	644	동송읍 상노리	흰바우	1119	원남면 등대리
덕령산	589	갈말읍 토성리	적근산	1073	원남면 진현리
명성산	922	갈말읍 신철원	월봉산	472	원남면 월봉리
성재산	471	김화읍 읍내리	곰미덕	938	근남면 육단리
안암산	507	김화읍 학사리	매봉산	1041	근남면 육단리

② 철원의 하천: 철원을 대표하는 하천은 한탄강이다. 체천 혹은 량천으로 부르기도 한 한탄강은 태백산맥의 황선산과 회양의 철령에서 발원한 수계가 평강군 정연리(현갈말읍 정연리)에 이르러 합류함으로써 철원, 김화, 평강의 삼각극점을 이루고, 계속 남류 하여 경기도 임진강에 유입하는 전장 110km에, 평균 하폭 60m의 큰 강이다.

강 유역은 현무암지대로서 침식지가 마치 파상지형으로 섬돌모양의 절벽을 이루고 있어 체천이라 했다는데, 다른 하천과 특이한 것은 평원분지 한가운데를 깊이 20~30m의 협곡을 이루면서 흐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마치 미국의 랜드 캐년을 연상케 하고 웬만한 홍수에도 범람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굽이쳐 흐르는 구비구비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천연의

비경을 빚어 놓아 칠만암, 직탕, 고석정, 순담 등의 명승지가 널려 있으며, 사시사철 맑은 물과 풍부한 수량은 각종 민물고기의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철원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이기도 하다.

한탄강을 중심으로 철원의 하천은 한탄강의 지천들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하천들이 흐르고 있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철원의 하천 >

이름	발원지	길이(km)
대교천	평강군 남방의 보양호와 철원군 북면지대의 협곡	28
역곡천	묘장면 산명리와 가단리의 산 협곡	30
상류천	철원군 북면 회산리, 외학리, 보막리 등의 산협	20
평안천	평강지방의 백암산	65
차탄천	철원을 서남방에 위치한 수정산(금학산 북서 계곡)	29
남대천	김화읍 금성면 어천리의 수리봉	142
금성천	김화읍 원북면의 잠간덕산	35
금강천	김화 동북방에 위치한 회양지방	40
군탄천	갈말읍 문혜리의 대덕봉, 싸리고개, 대하 등의 산협	20
량천	삭녕군 흥성산의 협곡	80

3) 기후

철원지역에서 기상관측은 1987년 12월 15일 철원측후소설치(대통령령 제12318호)와 함께 시작되었으므로 그 역사가 매우 짧다. 따라서 지역기후의 특성을 폭 넓게 분석하기 위한 기상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내린 태백산맥의 서쪽지역인 강원도 영서지방은 한반도의 중앙내륙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산맥의 지맥 사이에 형성된 분지형태를 이룬 곳이 많아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므로 대체로 한난의 차가 크다. 특히 산악지방은 풍향에 따라 기온이 급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강수량은 연평균 1,200~1,300mm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바람은 약한 편이다. 장마는 평균 6월 26일~30일 사이에 시작되어 7월 20일~21일경에 끝나며 연평균 1~2개의 태풍이 통과한다. 동해 해상에서 강한 북동풍이 불면 영서지방에는 맑고 기온이 높은 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10월 중순에 첫서리가 내리고 4월 중순에 마지막 서리가 내리며 4월 15일경에 벚꽃이 피고 10월 중순에 단풍이 든다.

1988~90년(3년간 : 이하 “기간 중”이라 함) 철원의 주요 기후 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온: 기간 중 철원의 연평균 기온은 10.5℃로, 월 최저기온의 평균교차가 40.0℃이다. 기간 중 극, 고, 저 기온이 모두 철원에서 관측되어 철원은 한난의 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강수량: 철원의 연평균 강수량은 1,480mm이고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체의 3/4이 집중된다. 상대적으로 지속성의 비가 내리므로 호우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③ 바람: 기간 중 철원의 연평균 풍속은 1.5m/s로 약한 편이고 따라서 바람으로 인한 재해의 요인이 크지 않은 편이다.

④ 상대습도: 기간 중 철원의 연평균 상대습도는 72%로 4월 전후의 봄철에 65% 내외로 건조하고 7~8월에 80% 내외로 습하다.

⑤ 수평 일사량: 기간 중 철원의 연평균 일사량은 4,479MJ/m²로 많다. 기간 중 철원의 첫 서리일은 평균 10월 11일이고, 마지막 서리일은 4월 12일이다.

전체적으로 철원의 기후는 강원도 영서지방의 기후특성과 일치하면서도 같은 기후 특성지역에 속하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춘천과 비교할 때, 한난의 차가 더 심하고, 강수형태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바람은 약한 편이고, 맑은 날이 많고 서리와 안개일은 적다는 차이를 지닌다.

(2) 생태

철원은 전 면적의 70%가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400~600m 내외의 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비옥한 철원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한탄강을 비롯한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다. 때문에 동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 민통선과 휴전선으로 인해 출입 통제 구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연의 훼손이 적은 편이다. 한민족의 상처로 얼룩졌던 곳이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된 셈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철원은 각종 동식물이 풍부한 곳이며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다. 철원 지역의 동식물을 효율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 장에서는 먼저 철원의 동식물을 간략히 소개하고, 철원 생태계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조류에 대해 항목을 나눠 살피기로 한다.

1) 동식물

① 포유류: 철원의 포유류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토종 포유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주로 노루, 너구리, 여우, 고슴도치, 다람쥐, 두더지, 들쥐, 박쥐, 멧돼지, 산양, 산토끼, 살쾡이, 족제비, 오소리, 담비 등 30여종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동물들은 풍부한 먹이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개체수가 많은 편이다. 다만, 일부의 동물들, 예를 들면 여우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 개체수가 급감하여 현재는 보호가 필요하다.

② 어류: 철원은 잘 발달된 하천과 민통선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한탄강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어류를 간략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뱀장어과: 뱀장어

ㄴ) 잉어과: 버들치, 금강모치, 피라미, 갈겨니, 끄리, 왜물개, 모래무지, 버들매치, 어름치, 새미, 긴물개, 쉬리, 돌고기, 가는돌고기, 참붕어, 누치, 참마자, 잉어, 붕어, 줄납자루, 묵납자루, 큰납지리, 돌상어, 돌마자, 배가사리, 중고기, 침중고기, 줄물개, 칼납자루 등

ㄷ) 기름종개과: 미꾸리, 미꾸라지, 참종개, 새코미꾸리, 종개, 쌀미꾸리

ㄹ) 동자개과: 동자개, 대농갱이, 눈동자개, 통가리

ㅁ) 메기과: 메기, 미유기

- ㅂ) 가물치과: 가물치
- ㅅ) 독종개과: 독종개
- ㅇ) 농어과: 꺾지, 쏘가리
- ㅈ) 망둥어과: 밀어, 동사리
- ㅊ) 다묵장어과: 다묵장어

③ 식물: 철원의 식물군을 수종(樹種)과 초식물(草植物), 즉 나무와 풀로 나누어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철원의 나무: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전나무, 분비나무, 갈잎나무, 가문비나무, 벚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박달나무, 떡갈나무, 동백나무, 납송 등 20여 종

ㄴ) 철원의 풀: 말풀, 고비, 고사리, 고추나물, 개박하, 관대나물, 구절초, 팽이밥, 개미취, 꿀풀, 도깨비바늘, 참쑥, 개망초, 달래, 취, 톱풀, 패랭이꽃, 명아주, 더덕, 시금치, 미나리, 당귀, 방동사니, 쇠비름, 질경이, 산철쭉 등 수백 종류.

2) 새

① 철원은 한반도 최대의 철새 군락지로, 그 중에는 희귀 조류가 적지 않아 조류 연구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철새 외에도 텃새 또한 적지 않다. 철원군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대략 32과 87종에 달한다. 이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여름철새: 덩불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쇠백로, 중백로, 왜가리, 붉은배새매, 쇠뿔부기사촌, 쇠물닭, 뜰부기, 물떼새, 갯작도요, 뺨작도요, 알락도요, 개구리매, 빠꾸기, 소쩍새, 쏙독새, 물총새, 제비, 귀제비, 털발제비,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hing새, 할미새사촌, 침때까치, 노랑매까치, 쇠유리새, 검은딱새,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숲새, 휘파람새, 개개비, 산솔새, 되솔새, 큰유리새, 붉은뺨멧새, 족새, 밀회부리, 북방쇠찌르레기, 찌르레기, 꼬꼬리,

ㄴ) 텃새: 흰뺨검둥오리, 원앙이, 황조롱이, 꿩, 멧비둘기, 청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직박구리, 매까치, 물까마귀, 굴뚝새, 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오목눈이, 쇠박새, 박새, 동고비, 멧새, 노랑턱멧새, 방울새, 참새, 어치, 물까치, 까치, 까마귀.

ㄷ) 겨울철새: 논병아리, 청둥오리, 쇠오리, 참매, 털발말뚝가리, 큰말뚝가리, 말뚝가리, 잣빛개구리매, 쇠부엉이, 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 큰재개구미리, 노랑지빠귀, 개동지빠귀, 쏙새, 되새, 콩새,

② 희귀조류: 철원에서 관찰된 천연기념 조류는 다음과 같다.

표 4 <민통선 북방 철원군의 천연기념물 조류(1986-1987)>

지정번호	종류	장소
202	두루미	동송읍
203	재두루미	동송읍
228	흑두루미	동송읍
323	매류(참매, 붉은배새매,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갈말읍, 동송읍
327	원앙이	김화 대성산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조류 조사지역은 6·25 전쟁 후 30년 이상 내려오는 동안 자연 경관이 그대로 잘 보존된 지역이며, 특히 삼림, 초지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해안조류, 습지조류, 산림조류, 희귀조류 등이 휴전선 부근 어디를 가나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휴전선 부근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통제와 환경오염, 즉 공해, 농약, 소음 등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텃새, 철새 등의 좋은 번식지와 이동철새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곳이다. 강원도 지역의 환경은 해안습지조류의 좋은 이동경로가 되고 있고, 계곡산악 지방은 산림조류의 낙원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딱새류 등 소형인 산림조류는 대부분 휴전선 부근의 습지나 높은 산 어디를 가나 많이 관찰되며, 최근 그 수가 줄기 시작한 여름철새인 뚝부기도 이곳 휴전선 부근 경작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딱새로, 멧새로, 되새로, 빠꾸기류, 뱀로류 등도 중부 내륙지방에 비해 밀도가 높게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희귀조류, 국제보호종인 두루미, 검독수리와 천연기념물 조류인 검은머리물떼새, 원앙이, 붉은배새매, 참매, 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철원의 평야는 매년 겨울 70~80여 마리의 두루미가 찾아와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3월 초면 모두 북상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두루미 집단 도래지이다.

2.1.3 철원의 민속 문화와 문화재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서남북의 중앙에 놓여 있는 철원군은 일찍부터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 지역적 특색을 결합하였다. 그리하여 보편이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철원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인 만큼,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비록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문화적 전통의 고리가 끊어지고 문화재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었으나, 군민의 노력으로 대부분 복원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문화와 문화재가 지닌 가치와 의미는 보다 견고해졌다. 이 장에서는 철원군에서 전래되는 민속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서 철원군이 자랑하는 문화재를 소개하기로 한다.⁸⁾

(1) 민속 문화

1) 풍속과 놀이

풍속은 지리와 풍토 등 외적 조건과 내적 생활 조건과 시대성, 역사성을 배경으로 조성된다. 철원지방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어 민속의 일반적 경향은 중부지방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산간지대이므로 산간농경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한민족의 사상적 배경인 유교와 불교는 물론 원시신앙의 영향도 생활면에 파고들어가 그 방면의 풍속도 많이 이룩되어 있다. 예부터 이 고장은 수많은 싸움터로서 고난을 겪었으며, 과거도 못 보게 하는 억울함도 당하여 왔기에 상부상조하는 심리가 자생하였다.

충효도의(忠孝道義)와 관혼상제(冠婚喪祭)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특수한 생활행위인 세시풍속도 역시 대동소이하다. 정월의 풍속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으며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는

8) 이하의 내용은 『철원군지』(철원군 편, 1992) 『철원향토지』 제3집(철원문화원 편, 1998.)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세배를 드린다. 선달 그믐날에는 묵은세배를 드리기도 했으며, 덕담을 하고 세주(歲酒)를 마시고, 복조리를 매달고 널뛰기와 연날리기, 윷놀이를 즐긴다. 정월 대보름에는 14일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시작되어 부럼깨기, 나무시집보내기, 더위를 파는 풍속, 귀밤이술을 마시고, 약식을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달맞이, 귀신달걀, 햇싸움, 다리밟기 등의 민속놀이를 행한다. 이밖에 정초에는 집집마다 돌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강원도에서는 이를 걸립(乞粒)이라고도 부르는데, 부락의 농악대를 동원하여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며 그 집 마당에서 한 해의 기복을 하며 농악놀이를 한다.

철원의 민속놀이는 산간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고장에 비해서 단순하고 소박한 특성을 나타내며, 토성농악을 비롯하여 달맞이와 석전(石戰), 햇불싸움, 농기싸움 등 다양한 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① 토성농악: 토성농악은 우리나라의 중심 농악인 경기농악의 쇠가락(리듬)과 연기 방법이 거의 동일하나, 토속적 체취가 풍기는 농악이 일제 말까지 전승되어 왔다. 오랜 옛날부터 두레농악으로 출발하여 명절 때에는 오락농악으로, 마을 행사 때에는 연예농악으로까지 발전해 온 전통이 뚜렷한 농악이다.⁹⁾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공산 치하에서 농악은 폐쇄되었으며, 6.25동란으로 인한 피난기와 수복 이후에도 이 고장의 농악은 재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 민속놀이 보전책으로 철원군의 보조에 의해 토성리의 농악 기능보유자인 최재길을 중심으로 농악대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토성농악이 복원을 거쳐 전승되고 각종 행사에도 출전하고 있다.¹⁰⁾ 농악대의 구성인원은 최소한 16명이며, 연희는 노작(勞作)농악, 걸궁(乞窮)농악, 연예(演藝)농악, 행사(行事)농악 등이다. 농악기는 팽과리 2개, 징 2개, 북 2개, 장구 2개, 소고 8개, 호적 1개, 농기 1개, 총모 10개 등이다.

② 거화대령(炬火待令): 이 놀이는 조선조 광해군 때 철원 출신인 충무공 김응하(金應河) 장군을 추모하는 전야제 행사로 철원의 고유한 민속놀이이다. 이는 정월 대보름을 기해 화전(현 화지리)과 오덕의 두 부락 주민들 사이에 석전과 햇불싸움 놀이, 영농을 위한 ‘솔다리 놓기’ 등의; 행사로 행해진 민속행사이다. 이는 두 부락 간에 수시로 야기되는 불화 등을 일소하고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민속놀이로 조선조 말기까지 전승되어 왔다. 그 후 일제시대부터 1982년까지 중단되었다가 1984년 제2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민속학자인 최승순 교수의 고증을 의해 재현하게 되었다.

③ 김화 성황제: 성황제는 모두 12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준비 기간부터 제가 끝나는 날까지 7일간 제를 지낸다. 그 가운데 제를 지내는 행사만 3일이 소요되는 부락민 공동의 큰 행사였다. 이제를 통해 한 해의 풍년과 무병, 손재의 예방을 무녀들이 축원케 했으며, 영조 48년(1771)부터 철원 김화지역에서 매년 4월 8일(석가탄신일)을 기해 성대히 거행되다가 6.25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1964년 민속학자와 무녀, 지역 주민들의 고증을 토대로 당시의 성황제를 재현하였다.

9) 남은화, 「철원 토성 농악의 실태조사」, 『체육교육연구』.1집, 1987, 53쪽.

10) 철원 토성 농악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김순돌→박용재→박용주(1940년대)→최재길→류덕렬→권익선. 앞의 논문, 53쪽.

④ 자등골 화전놀이: 철원군 서면은 높은 협곡과 1,000m 내외의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촌락을 이루는 산간지대로, 전면적의 80%가 산간촌락의 산악지대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색을 배경으로 화전이 성행하였는데, 화전밭일구기(일명 화전놀이)는 이들의 애환이 담긴 토속농요였다. 화전놀이는 산악지대의 농요로서 농악을 겸비한 동적이며 해학적인 노작농요로, 산을 일구어 주식을 해결하려는 산골사람의 정서가 잘 담겨져 있다. 놀이 내용은 농악놀이와 풍물쟁이의 선소리 선창과 쇠쟁이의 후렴으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발가리소리를 비롯하여 씨뿌리기, 김매기, 거두기, 타작고사 소리로 되어 있다.

⑤ 농기싸움놀이: 철원은 중부제일의 곡창지대로 논농사를 주업으로 품앗이와 두레가 행해져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농악대를 조직해 운영해 왔다. 두레농악대는 이동할 때 반드시 농기를 앞세우고 다녔다. 그런데 농기에 대한 예법이 매우 엄하여 먼저 설립된 농기를 형으로 모셔야 한다. 또한 일터에서 복을 울려 상대방을 부르면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농기를 뺏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농기싸움 놀이는 예부터 군내 전 지역에서 성행하던 농촌 풍습의 하나였다. 놀이에 직접 참여했던 촌로의 고증을 얻어 철원 농기싸움놀이를 재현하게 되었다. 상토성과 하토성의 두레농악은 서로 농기를 에워싸고 풍악놀이를 전개하면서 한바탕 놀이를 벌이게 되는데, 기회를 엿보다가 농기를 빼앗는 싸움이 격렬하게 시작된다. 농기에 대한 예법을 무시한 농악대가 기를 뺏기면서 싸움은 끝나게 된다. 승자는 빼앗은 기를 되돌려주며 서로 예를 갖추고 한바탕 농악놀이를 펼치면서 모두 끝나게 된다.

⑥ 머슴날 놀이: 곡창 철원은 음력 2월 1일을 머슴날 또는 일꾼날이라 하여 주인은 음식을 장만하여 이들에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오랫동안 쉬던 머슴들이 농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그에 앞서 하루를 유쾌하게 놀리기 위한 것이다. 주인은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광주리나 짚으로 만든 음식꾸러미에 담아 집안에 있는 정자나무에 올려놓는데, 이날만은 머슴들이 아무 집이나 자유롭게 들어가 음식을 먹으면서 풍물을 울리고 춤과 노래로 하루를 즐긴다. 또한 이날은 20세가 된 청년 머슴들이 진세라는 성년식을 치르는 민속도 행해졌다.

⑦ 토성 풍년 낚가리 놀이: 철원지방에서도 두레농악은 규모에 따라 마을마다 구성되었고, 이중 갈말읍 토성리 두레농악은 전통 민속의 맥이 가장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에 대동굿 마당으로 신년 풍년농사 기원제를 발굴한 놀이로서 노인들의 고증으로 재현되었다. ‘풍년 낚가리 놀이’, ‘벧 가래 굿’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대동굿 놀이로 생산의례, 농경의례 등 그 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농악이 병행된다. 풍년 낚가리라는 풍년 기원제는 마을마당에 벧낚가리를 만들거나 장대에 벧이삭 짚단을 묶고 그 밑에 새끼줄을 매달아 벧이삭을 상징한 낚가리를 세우고, 영기, 농기, 두레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런 축원농악은 2월 머슴날과도 연관된다. 그 과정은 마을청소, 풍년 낚가리 쌓기, 고사, 장원머슴 행차, 마당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⑧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

‘지경다지기’는 새 집을 지을 때의 전 과정 곧 지신제로부터 상량식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마을 사람들이 주로 밤에 횃불을 밝히고 달구 혹은 달궁이라고도 하는 지경목이나 지경돌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여 집터를 단단히 굳히는 전통사회의 보편적인 풍속인데 구체적으로는 ‘양택달구질’을 말한다.¹¹⁾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1998년 제16회 강원도민 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99년 제4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를 대표하여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¹²⁾ 2000년

11) 김의숙, 「철원의 무형문화재 <상노리 지경다지기>에 대하여」, 강원민속학, 18집, 2004, 393-394쪽.

12)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철원이라는 지역이 지니는 향토성을 띠고 있어서 지역 민속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락적 성격과 생산적 요소를 아울러 지니고 있어서 전통 사회의 미풍양속과 삶의 양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중요하고도 훌륭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김의숙, 「철원군 민속놀이 <상노리 지경다지기> 고찰」, 『인문과학연구』, 8집, 2000, 82-83쪽.

7월에 강원도 무형 문화재 9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동송읍 상노2리에 연건평 100평 규모의 민속관 1동과 놀이마당을 조성하였다. 민속관에는 민속놀이과정이 대형 벽화로 제작되어 있고, 지경목 등 민속자료와 소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민속놀이를 영상시스템을 이용 감상할 수 있다. 철원의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지경다지기로서의 보편성을 수반하면서도 철원이라는 특수한 사회의 풍속과 의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협동심을 배우고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¹³⁾

2) 신앙과 의례

민간신앙은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연적 신앙 곧 자연적 상황 속에서 민간인이 신앙하는 종교 현상을 말한다. 강원도 지역은 고구려, 옥저 등과 문화적 교류를 가졌고, 진한과 신라의 문화와 정치에 예속되어 있었으니, 북방계와 남방계 신앙을 수용·보존·전승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중매체의 보급과 교통의 발달로 급속히 변질·소멸되고 있다. 다음에 동신(洞神)신앙, 기우제, 가신(家神)신앙, 무속신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동신(洞神)신앙: 철원의 동신제로는 서낭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악지방답게 산신제가 거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화 성황제’가 발굴되어 복원을 거쳐 전승되고 있다. 김화 성황제는 영조 48년(1771) 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부민이 참여하는 부락민 공동의 무속 행사로서 제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과 주민의 무병, 손재 예방을 빌던 세시풍속의 하나였다. 김화를 서쪽에 위치한 성제산 정산과 금현의 중간에 있는 노수목(老樹木)이 성황이 되었다. 음력 4월 그믐날 역노를 시켜 대성산(안산)에 소를 끌고 가서 참나무 30-40척 되는 것을 잘라서 그것을 사각형으로 묶어 싣고 와서 군아문 앞에 임시로 당집을 짓는다. 5월 초이튿날 무녀가 군노사령으로 하여금 암 백마를 끌고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강신제를 지낸다. 그리고 길마에 강신 신나무와 섬바리 풍신(楓薪)을 싣고 내려온다. 내려올 때 선두에는 성황 선명기(宣明旗)를 세우고 다음에 무녀가 주악에 따라 춤추면서 따르고 행렬의 끝에 암말을 앞세운다. 이후에 할미당 애기 성황에서 참굿을 한다. 이 성황제의 특색은 참나무로 임시 제단을 만드는 것, 암 백마가 봉신하는 것, 무무(巫舞)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제약, 이 신의 생일인 3월 17일에는 간단한 굿이 있는 것, 단오를 맞이하여 큰굿을 벌이는 점 등이다.

② 기우제: 문헌에 보이는 철원의 대표적인 기우제는 삼부연, 고무래산, 매응소의 기우제이다. 고무래산에서는 여자들이 키(箕)로 까불었고, 매응소에서는 이시미에게 개를 바쳤고, 삼부연에서는 못에다가 돌을 던져 넣었다고 한다.

ㄱ) 삼부연(三釜淵) 기우제: 신라의 국력이 쇠잔해 질 무렵 “궁예”는 철원에 도움을 청하고 국호를 “태봉”이라 정했다. 그 당시 삼부연에는 도를 닦던 용이 두 쌍 있었는데, 3마리는 정한 시기에 도를 닦아 삼부연의 기암절벽을 뚫고 승천하였다 한다. 지금도 남아 있는 세 개의 부연은 그 때 생겨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때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 한 마리는 계속 그 소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이무기가 심술을 부려 비를 못 오게 하는 등, 해서 이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졌다. 결국 이 지방 사람들이 논의한 끝에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고, 푸짐한 제사를 차리고 정성껏 기우제를 드렸으나 며칠이 지나도 비 한 방울,

13) 김의숙, 「철원의 무형문화재 <상노리 지경다지기>에 대하여」, 강원민속학, 18집, 2004, 421쪽.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 당시 기우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쉽고 원망스러웠다.

그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실망과 고뇌의 번민으로 해마다 급기야 분노로 변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마을 사람들의 정성도 몰라주는 삼부연을 메워버리자고 말했다. 결국 그 젊은이는 삼부연으로 달려가 솔처럼 생긴 연못 옆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를 깨뜨려 세 개의 부연을 매우려 하였다. 바위를 깨뜨려 연못에 집어 넣자 금시에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뇌성벽력을 치며 폭우가 쏟아졌다 한다. 그 이후부터 이 곳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이 지방 특유의 기우제를 지내게 되었다.¹⁴⁾

ㄴ) 고무래산의 기우제(강원도 철원군): 고무래산은 철원군 서면 신술리에 있다. 옛날부터 이곳 주민들은 산간벽지에서 화전을 일궈 곡식을 심고, 산채를 뜯어 먹으며 생활해 왔다. 이 사람들은 신을 숭상하면서 생활해 왔다. 특히 산간에서 지냈으므로 큰 산의 산신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산신께 기원을 하였다.

이 마을에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온 동네 주민들이 전원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여 부정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정이 없는 아낙네와 남정네를 선별하여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산에 있는 산신각에 제물을 차렸다.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제사를 올린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키를 들고 까 불었다. 이렇게 하면 그날로 바로 날이 흐리고 밤이 되면 흡족할 정도의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 기우제는 해방 전까지도 계속해 왔다고 한다.

ㄷ) 매옹소 기우제: 매옹소는 철원군 사요리 소재 산명호에 있는 깊이가 10여 m나 되는 큰沼이다. 여기에는 큰 이시미가 살고 있어서 부근에 매놓은 송아지를 물어 갔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외경스런 곳으로, 가뭄이 심하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왔다. 그 방법은 인제읍 귀둔 2리의 용소에서 행사하던 것처럼 개를 잡아서 이시미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원주군 백운산지역의 기우제에서 소에다가 돼지머리를 던져 넣은 것처럼, 개를 던져 넣어 이시미가 흠향함으로써 이시미(龍)의 호의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간주한 제의로 여겨진다.¹⁵⁾

③ 가신신앙: 가신신앙이란 집안에 위치하는 신적 존재들에 대한 신앙이다. 가정 단위의 신앙이며, 담당자는 주부가 대부분이다. 가신에는 성주, 조상, 삼신, 조왕, 터주, 문신, 뒷간신 등 많은 신들이 일정한 자리를 점유하고 다른 가신들과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과 유사하다. 대표적으로 칙신 모시기와 쇠구영신 모시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4) 이 기우제는 1960년대에 “용화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기우제에 직접 참관한 분들의 말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정운모(75세, 용화동 거주)씨는 대정 8년(1919)과 소화 14년(1939)에 이 기우제를 참관했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의식을 끝낸 후 남자는 돌을 던지면서 소리를 하고, 여자는 키를 까불었더니 빗방울이 떨어졌다고 한다. 임운재(62세, 부연사 주지스님)씨도 소화 14년(1939)에 드린 기우제를 회상하는 바,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김병훈(75세, 갈말읍 지포리 거주)씨는 1961년 마지막 기우제 때 직접 축문을 썼다. 이 지방 기우제는 지방 특유의 민요와 용담(=부연)에 돌을 매우는 것이 특이하다고 증언하였다. 철원문화원, 『철원향토지』 제3집, 2000, 120-122쪽.

15) 강원도청 제공 한글 자료(www.provin.gangwon.kr), 「강원도의 민간신앙」, 39쪽.

ㄱ) 쇠구영신 모시기: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를 수호하는 신이 쇠구영신이다.¹⁶⁾ 마부신(馬夫神), 군웅신, 마구간신 등으로도 부르는 이 신에 대한 제사는 안택제를 지낼 때 함께 지낸다. 그리고 마구간에다 백설기나 쇠고기 한 묶음을 매달아 놓는다. 또 새 옷감이 들어오거나, 베를 짜면 말 코 옆을 조금 끊어서 역시 마구간 옆에 매단다. 쇠구영신에 대한 유사한 기록이《동경잡기(東京雜記)》에 있다. 곧 「10월 5일을 속칭 말날이라 하시고 팔시루떡을 찌서 마구간에 놓고 말의 건강을 빈다. 그러나 병오일(丙午日)에는 아니하니 병(丙)과 병(病)이 서로 같은 음(音)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ㄴ) 칙신 모시기: 칙신은 변소신인데 변소각시, 정낭각시, 변소장군, 뒷간신 등으로 부른다. 대체로 젊은 여성신이라는 관념이 많고, 귀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여신은 머리카락이 길어 그것을 세는 것이 일인데, 사람이 변소에 올 때 갑자기 자기를 놀라게 하면 깜짝 놀라서 그 머리카락으로 뒤집어 씌워 죽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념은 어두운 밤 멀리 떨어져 있는 변소가 공포의 대상이 된 것에서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칙신이 놀라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한국의 재래식 변소를 갈 때 지켜야 하는 인기척을 유도하려는 방편에서 생긴 설화로 생각된다.

그러나 변소는 가택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곳의 수호신이 칙신 인 것이다. 철원군 관내 주민들은 칙신의 존재를 믿고 특히 정월대보름 지신밟기를 하면서 칙신에게도 위무하여 연중 별 탈이 없기를 기원한다.

④ 무속신앙: 철원의 무당은 우리나라 중·북부지역의 무당형에 속하는 강신무 계통이 주를 이룬다. 이 고장의 무속은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북부지역의 것과 같다.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12거리의 복색을 다 갖추고 신어머니를 찾아서 무술(巫術)을 배워 사제 계승의 무풍(巫風)을 승계해 나간다. 철원의 청양리 청아골 마을은 김화읍 남단과 갈말읍 문혜리, 서면 자등리에 있는 성계산 계곡에 위치하여 예부터 김화지역 사람들이 한양에 갈 때는 필히 거쳐 가야 하는 사당고개가 있다. 이 고개 능선 밑 큰 나무 밑에서는 현재까지 약 3년에 한 번 씩 모든 주민이 시주하여 마을의 제앙을 추방하고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무녀를 초빙하여 굿을 하는 풍습이 전하고 있다.

철원 지역의 대표적인 굿으로는 청양리 초당굿을 들 수 있다. 이 굿의 유래는 옛 김화읍 반달산 부근에 살던 전주이씨 종문에 촌노 3명이 과거등급에 꿈을 품고 한양으로 상경하던 중 사당고개를 들어섰을 때 옆 냇가에 버려진 둥구미가 있어 괴이하게 생각하여 열어보니 그 속에서 무녀의 장비인 방울, 부채, 칼 등이 소장되어 있어 그대로 버려두고 상경하여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살았다. 그 후 전주 이씨들이 청아골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으나 동리에 흉사가 계속 발생함으로 전주이씨 종문에서는 이상히 여겨 옆 마을 무녀 복술(卜術)에게 물어보니 20여 년 전 초장고개 밑에 버려진 둥구미에 담겨진 혼의 장난으로 부락내 흉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므로 그 둥구미 주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굿을 한 것이 오늘날 청양 초당굿으로 전래되고 있다.

16) 쇠구영신은 태백산맥일대 산간지방에서 행하여지는 산신신앙으로 산맥이·산치성·조상보기·쇠구영신모시기 등으로도 불린다. 산신에게 가내평안과 제액초복(除厄招福 : 재앙을 막아주고 복은 부르는) 및 가축번성 등을 기원하는 제의로 매년 정기적으로 행한다.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쇠구영신 편(<http://encykorea.aks.ac.kr>)

3) 민요와 무가

민요는 여러 가지 노동요는 물론이고, 철원의 꽃노래, 김화의 농부가, 평강의 추모가와 선소리, 김화의 자등농요, 토성농요 등 다양한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다만 무가는 별도로 채록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¹⁷⁾

① 철원의 꽃노래

이때 저때 어느 때뇨/우리 부모 생신 때라
우리 부모 생신 끝에/꽃노래나 짓고 가지
쫓아가는 장미화는/가지가지 금빛이라
청송기생 살구꽃은/떼를 지어 회돌았네

무릉도원 복숭아는/그물안에 걸리시네
섬우에 목단화는/꽃중에도 임금일세
돌아 못간 두견화는/속국산천 생각난다
붉고 붉은 봉선화는/소조구성 춤을 추고

알송달송 금은화는/당상관의 관자되고
보기 좋은 작약화는/미인마다 희롱하고
당실당실 연적화는/단순호치 단장하고
계석시중 선비화는/의상대사 지팡이고

호박꽃과 박꽃은/산촌 형제 회돌았네
쓰고 나는 피리꽃은/상중에라 총총했고
열없는 할미꽃은/남보다도 먼저 피고
사시장춘 무궁화는/우리나라 꽃이란다

② 김화의 농부가

농부일생 한가한 날 없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건 해마다 있는 일이라
어제 밤 남쪽 마을에 가서 품앗이 짝을 맺고
오늘 아침 북쪽 마을 언덕에서 쟁기로 밭을 간다
동풍이 불어오는 십리들에
뼈꼭새 소리 도처에서 들리는구나
짙막한 젖대 밭두렁에 꽃고
흰자루 긴호미 손에 쥐었다
밭두렁에 일어서니 낮그림자 작아졌고
점심광우리 머리에 이고 며느리가 벌판을 걸어오네
만아이 끝에 딸은 앞뒤에 서고
흰개와 청삽살개 양쪽에서 따라오네

17) 이하는 『철원군지, 하』(철원군, 1992), 1342-1359, 1415-1417, 1425-1429쪽 등에서 각각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삼농근업 팔월초에
온별판에 가득 쌓인 곡식 소등에 잔뜩 실었더라
추당봉주로 초나라 무녀를 불러
늦은 밤 삼경에 달빛이 휘영청 밝다

③ 평강의 추모가

우리 엄마 나를 낳아/애명글명 기를 적에
일천 뻘골 다 썩었다/오줌통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진자리와 마른자리/가려가며 뉘었다네
지면 꺼져 불면 날까/굽게굽게 길렀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나하고 얼렸다네

싱긋병긋 웃을 적에/온집안이 꽃이로다
요색갱이 요색갱이/요강아지 요강아지
불기 짝을 툭툭치며/물고빨고 하였다네

우리 엄마 날 버리고/어디 가서 올 줄 몰라
일락서산 아니오고/월출동령 또 안 오네
장승같이 혼자 서서/엄마 오기 기다린다
야속할사 지성차사

우리 엄마 귀한 얼굴/어느 때나 다시 보고
우리 엄마 귀여운 뺨/ 어느 때나 만져 보고
우리 엄마 보드란 손/어느 때나 다시 절고
우리 엄마 귀한 목성/어느 때나 들어보고

설은지고 이내 창자/굽이굽이 끊어지네
나는 싫어 살기 싫어/엄마하고 같이 죽어
요자리에 죽거들랑/엄마 곁에 묻어주소

④ 김화 자등농요: 철원에서 산세가 험한 김화지방에서 산중의 다량농 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농요로 이곳에서 6대째 살아오고 있는 고노석옹이 15세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구전된 농요를 재현한 것이다. 이 노래는 논갈이, 모심기, 애벌논김매기, 두벌논김매기(메나리타령), 가을걷이, 추수 후 풍년을 기뻐하며 한마당놀이가 펼쳐지는 6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토성농요: 철원군은 평탄한 평야지대와 풍부한 농경자원이 많은 고장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애환과 고뇌를 농요에 담아 불러 왔다. 토성농요는 평야지대의 농요로서 농악을 겸비

한 동적이며 해학적인 것으로 권농에 필요한 협동과 단결을 고취하는 애향정신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로 ‘모심기 농요’와 ‘논매기 농요’의 가사와 가락이 전승되고 있다.

(2) 문화재

1) 지정문화재 현황

철원의 문화재는 크게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로 나뉜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 철원 지정 문화재 현황표 >

구분	종목	문화재명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63호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223호	도피안사 삼층석탑
	천연기념물 제245호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제 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지방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제105호	요동백 김응하장군묘비
	시도무형문화재 제9호	철원 상노리지경다지기
	시도기념물 제8호	고석정과 순담
	시도기념물 제22호	철원지석묘군
	시도기념물 제24호	철원토성및석조물
	시도기념물 제72호	철원충렬사지
	시도기념물 제78호	철원성산성
	시도기념물 제87호	철원향교지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제33호	동송 마애불상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제22호	철원 노동당사
	등록문화재 제23호	철원 감리교회
	등록문화재 제24호	철원 얼음창고
	등록문화재 제25호	철원 농산물검사소
	등록문화재 제26호	철원 승일교
	등록문화재 제112호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록문화재 제137호	철원제2금용조합 건물지
	등록문화재 제160호	철원 수도국지내 급수탑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철원군의 지정문화재는 역사적 의미에서부터 예술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문헌자료 철원군의 민속 문화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한다. 또한 대교천 협곡과 고석정~순담 일대, 승일교는 한탄강 권역에 속하므로 현지조사자료(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에서 다루기로 한다. 김응하 묘비는 한탄강 주변마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역시 현지조사자료(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서 다룬다.¹⁸⁾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는 아니나 철원의 중요한 문화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문화재 소개

① 도피안사(到彼岸寺)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舍那佛坐像):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도피안사에 소재한 철조 불상으로 국보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91cm, 폭 70cm이며, 통일신라시대 경문왕 5년(865)에 제작되었다.

높직한 대좌 위에 결가부한 형상으로서 조상, 명기가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대좌는 하대가 팔판연화에 본연석이며 그 위에 우주(隅柱)가 있는 팔각 중석을 얹고 다시 단판중엽의

18) 이하의 내용은 『철원군지』(철원군 편, 1992) 『철원향토지』 제4집(철원문화원 편, 1998.)을 중심으로 하되, 두 책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을 함께 참고하여 요약 발췌하였다.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양련석을 엮었는데 불신에 비하여 높고 넓어서 매우 안정된 감을 준다. 두발은 나발인데 육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면상은 난형이 되었다. 반개한 눈은 수평을 이루었고 자그마한 코에 입은 꼭 다물었으며 두 귀는 짧다. 긴 목에는 삼도가 확실하지 않으며 수인은 지권인(智券印)을 결하고 있다.¹⁹⁾

② 도피안사의 삼층석탑: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도피안사에 소재한 삼층석탑으로 보물 제 223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는 4.1m이며 재료는 화강암이다. 통일신라시대 경문왕 5년(865년)에 건축되었다. 암을 재료로 하여 통일신라시대 특유의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탑은 2중기단의 3층 석탑으로 각층마다 옥신이 매우 높고 옥개석의 받침이 다른 탑과는 달리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구조는 방형지대석위에 8각으로 된 하대에는 각면에 안상이 조각되고 상면은 단조로운 본판연화가 조각되었으며 그 위에 얇은 2단의 받침위에 8각 중대가 있으며 상대는 하대의 복연보다 볼륨이 큰 양연으로 받치고 상면에는 높은 방형받침 3단이 있어 탑신 부위를 받치고 있다. 탑신 부에는 방형으로 초층탑신은 중대석과 거의 같은 높이이고 2층부터 감축되었으나 2, 3층의 감축율은 거의 없는 듯하다. 옥개석은 추녀 끝의 전각이 밑에서 직선이고 락수면에서 반전을 보이는 신라 석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옥개받침은 1층은 4단, 2, 3층은 3단으로 감소되었는데 받침이 각형이 아니라 물딩으로 되어 있어 양식적으로 혼재를 보이며 그 주위에 얇은 흙이 파져 있다.

상륜부에는 큼직한 로반(露盤)만 남아 있다. 이 탑은 각 부위가 폭에 비해 높아 고준해 보여 안정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탑의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과도적인 위치에서는 시대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이한 구조로 인하여 통일신라 말기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형식은 경주 석굴암 동강의 삼층석탑과 일맥상통된다. 도피안사는 6·25전쟁 때 격전지였는데, 석탑의 상태는 상륜부와 3층 지붕돌 일부만 손상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③ 철원군 천통리 철새 도래지: 철원평야는 6·25전쟁 때의 격전지였는데 1953년 휴전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1970년대까지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휴전선 남방 완충지대와 인접지역의 논과 밭은 초지와 관목으로 변모하였다.

게다가 천통리에서는 겨울에도 15°C 가량 되는 경미한 온천이 용출되어 겨울에도 온화한 편이다. 따라서 두루미류와 기타 철새들의 도래지로서 천연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철원평야 북부지역은 소택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초지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이와 같은 환경을 좋아하는 각종 철새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일의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19) 이 불좌상은 신체와 대좌가 모두 철로 된 신라 말의 보기 드문 불상이다. 뒷면에 새겨진 100여 자의 명문 가운데 ‘함통 6년 기유 정월’의 문구가 있어서 이 불상의 제작시기는 신라 경문왕 5년(865)임을 알 수 있다. 살상투의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점, 계란 모양의 단정한 얼굴, 이상적이며 생동하는 느낌이 사라진 극히 현실적인 체구 등에서 우리는 당시의 참선하고 있는 스님을 대하는 듯한 친근한 느낌을 받는다. 법의에는 얇게 빛은 듯한 평행 옷주름이 전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옷주름은 9세기 후반기 불상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명문에 의하면 이 불상은 철원군의 거사 신도 1,500여 명의 열렬한 신앙심에서 만든 것으로서, 당시의 활발했던 불교신앙 결사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이와 함께 이 불상은 당시 유행하던 철조비로자나불상의 새로운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답사여행의 길잡이 9 - 경기북부와 북한강, 돌베개, 2012. 인터넷 지식백과에서 재인용)

철원 북부 천통리는 옛 경원선 철로변의 동남쪽지대로, 부근의 일부 지역은 전답으로 경작 중이지만 아직 개간되지 않은 넓은 지뢰지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의 논밭과 집터로서, 지금은 부들·줄풀·갈대·억새·산부추와 버드나무·아카시아 등이 산재하는 넓은 면적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오랫동안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지에는 벼메뚜기를 비롯한 각종 메뚜기류의 우점군을 볼 수 있다. 따라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시베리아 동북부에서 번식을 마치고 월동지인 동남아시아로 남하하는 100만 단위의 흑새·검은머리흑새·흰배멧새·꼬까참새 등 멧새류 대집단의 전형적인 채식 또는 유식지가 되고 있다.

이 밖에 겨울철에는 독수리·검독수리·흰꼬리수리 및 참수리 등 수리류와 또한 두루미·재두루미와 같은 천연기념물도 드물지 않게 규칙적으로 모습을 보인다. 한편, 남하하였던 멧새류집단의 일부가 봄에는 이곳을 거쳐 시베리아의 번식지로 북상하게 된다.

비록 인위적으로 조성된 비극의 지대이기는 하나 이 지역을 잘 활용하여 연구한다면 인위적인 요소가 가해지지 않은 생태계의 천이과정, 즉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④ 철원 지석묘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군으로 강원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청동기시대에 축조된 거대한 탁자형으로 남대천 강변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원래 7기의 지석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2기가 남아 있다. 설치시기는 대략 무문토기시대(약2000~2500년)로 추정된다.

⑤ 철원토성 및 석조물: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토성리 일대에 있는 토성과 출토석조물로 강원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대천의 하류에 위치하며 이 성곽으로 인하여 토성리(土城里)라는 마을 이름이 생기게 되었으며《대동여지도》에도 ‘토성리’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부르던 호칭임을 알 수 있다.

성벽은 전체 길이가 약 1km이나 경작 등의 인위적인 파손과 재료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성벽의 잔존한 높이는 10m이고, 하부너비 약 9m, 상부너비 약 4m이다.

농경지로 개간하면서 성벽의 흙을 운반하여 가서 현재는 서벽 약 150m, 남벽 10m, 높이 5~6m가량만 남은 상태이다. 성벽의 전체적인 평면구조는 방형이고 평지성인 점으로 보아 읍성의 성격이 짙다.

성내에서는 무문토기편과 석기류 등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축성되기 이전에 주거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사시대에 축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축성법으로 보아 삼국시대 또는 그 후대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 장수 마부대와 용골대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침공하였다. 이 때 평안관찰사 홍명구와 병마절도사 유림이 포위하고 공격하자, 청나라 군대는 하루 만에 성을 쌓은 것이 이 성곽이라는 전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쌓은 것이 확실하다.

⑥ 철원충렬사지: 홍명구공은 조선조 선조29년(서기 1596년) 8월 함의 홍성익의 아들로 경기 연천에서 출생하여 23세에 과거에 급제한 후 조정의 주요 내직과 외직(경상도 평안도

관찰사)을 두루 거친 문신이며, 병자호란 때 김화 진터골에서 적군을 맞아 격전하던 중 인조 15년(서기 1637) 1월 28일 42세를 일기로 장렬히 전사한 호국의 충신이다. 서기 1636년 병자호란 때는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평안도 병마절도사 유림장군과 합세하여 전투 조건이 양호한 김화 오성산(김화읍 생창리)의 진터골에 진지를 구축하고 의용병 삼백과 근왕병 이천여 명을 지휘하여 청군대장 마부대와 용골대의 대군을 무찔렀다. 싸움이 격렬한 중에 부하 한사람이 공에 피할 것을 권했으나 공은 “군부가 위급을 당했는데, 내 어찌 목숨을 아끼겠느냐, 끝까지 전진하여 칼이 부러질 때까지 싸우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하면서 결전을 독려하다 순절하니 나라에서는 공에게 이조판서를 증하고 충렬이라 시호를 내렸다. 충렬비는 조선조 인조23년(서기 1645년)5월 공이 전사한 김화읍 생창리(향교골)에 유림장군 대첩비와 동일형으로 나란히 건립(충렬비는 우측, 대첩비는 좌측)했는데, 높이 194cm, 상부폭 94cm, 하부폭 77cm, 평균두께 20cm로서 4개의 석초와 이중석단형식으로 된 화강암 비석이다.

⑦ 철원 성산성: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에 있는 산성으로 강원도 기념물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다. 둘레 1,489척(451m), 높이 9척(2.7m)의 석성으로 이다. 고려시대 외침을 막기 위한 외곽성으로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 등을 고려할 때 원래는 통일신라 시기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삼국,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개수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식 성곽 구축방법인 횡굴의 흔적도 있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주둔하였던 곳으로도 판단되는 산성이다.²⁰⁾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한국의 산성 및 축성법 연구에 학술적인 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산성이다.²¹⁾ 한편, 이 성은 병자호란 당시에 이 성을 이용한 격전장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병마사 유림이 김화의 자산에서 호군을 맞아 싸웠다고 하며, 또는 관찰사 홍명구가 김화의 자모산성에서 적을 맞아 싸웠던 곳이라고도 기록되었다. 때문에 달리 자모산성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⑧ 철원향교지: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에 위치한 구 향교 터로 강원도 기념물 87호로 지정되어 있다. 철원향교는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현 위치에 조선시대 초기에 건립되어 6·25때까지 존속해 있으면서 철원지방 정신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향교지 아래층 유적과 주변 토성 등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지정하여 보호하고 추후 조사하여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2006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²²⁾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은 고려태조 왕건이 그의 부장들에 의해 국왕으로 추대되었던 장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²³⁾

⑨ 동송읍 마애불상: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금학산 동쪽자락 중턱의 거대한 바위 면을 다듬어 조각한 마애불상으로 강원도 문화재자료 33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남향을 하고 있는

20) 유재춘에 따르면 철원성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김화지역에 일본군이 주둔하는 과정에서 일본식으로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 유재춘, 「임진왜란시 일본군의 조선 성곽 이용에 대하여: 철원 성산성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24집, 2003, 5-28쪽 참조.

21) 대한민국문화재청(<http://www.cha.go.kr>) 참조.

22) 철원향교터는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 강원도 기념물 78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성된 『철원군지』와 『철원향토지』,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대한민국문화재청(<http://www.cha.go.kr>)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23) 유재춘, 「철원의 고려태조 왕건 구택지설에 대한 검토」, 『강원문화사 연구』10집, 2005, 5-18쪽 참조.

불상은 전체 높이 576cm, 불신 높이 450cm, 머리 높이 134cm이다. 몸 부분은 바위 면에 직접 새기고 머리 부분은 다른 돌로 만들어 몸통에 꽃아 결합시켰다.

평면적인 불신에 비하여 머리는 입체적인 형태로, 삼도(三道)가 뚜렷한 원통형의 굽고 기다란 목이 함께 붙어 있다. 민머리 위에는 상투 모양의 높직한 머리묶음이 표현되었으며, 얼굴은 긴 네모꼴의 타원형으로 원만한 인상을 하고 있다.

손모양은 아름다운 선을 사용하여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오른손은 손등을 밖으로 하여 아래로 내려뜨린 채 가운데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구부려 옷자락을 살며시 잡고 있다. 왼손은 가슴 앞에서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가운데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다.²⁴⁾

마애불상 주위에는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와당(瓦當), 석탑의 조각들과 대좌(臺座)로 생각되는 연꽃모양의 돌 등이 흩어져 있다. 또한 금학산과 연결된 보개산 구령주산 중에는 신라시대(서기 647년)창건한 심원사를 비롯하여 그 후 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차례로 창건(석대암, 지장암, 성주암, 남암, 안양사, 복해암 등)되었으며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학산중의 산록에도 많은 사찰과 암자들의 유지가 남아 있다. 이로 보아 마애불상의 제작년대는 대략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전기로 추정된다. 온화한 미소와 옷자락을 잡은 법의가 양쪽으로 퍼지는 듯 한 조각미의 형태가 대체로 신라시대의 기법이라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⑩ 철원노동당사: 철원을 관전리에 위치한 북한의 노동당사로 강원도 등록문화재 22호로 지정되어 있다. 1946년 북한정권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1947년 초부터 북한의 중앙당으로부터 지령되는 극비사업과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연천지역주민들의 동향사찰은 물론, 대남공작을 주도한 북한정권하에서 중부지역의 주요업무를 관장했다. 최근에는 통일기원예술제, 열린 음악회 등 평화기원행사가 열리고 있다.

⑪ 철원감리교회: 철원을 관전리에 소재한 일제강점기 조선의 대표적인 교회로 강원도 등록문화재 22호로 지정되어 있다. 1920년에 완공한 후, 1936년에 재건축하였다. 1919년 3·1운동당시, 강원도에서 제일먼저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던 독립운동의 본거지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공산치하에서 기독교 청년학생의 반공투쟁이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전쟁 당시 폐허가 되어 현재는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이 파손되었다.

⑫ 철원 얼음창고: 1946년에 건립한 얼음보관창고로 강원도 등록문화재 2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운 콘크리트 건물로 겨울에 인근 산명호의 얼음을 채취하여 이곳에 보관한 후 여름에 사용하던 얼음보관창고였다. 한국전쟁으로 거의 파괴되어 현재는 건물 벽의 잔해만 남아있다.

⑬ 철원 농산물검사소: 1936년에 완공된 농산물검사소로 철원을 외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원도 등록문화재 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철원농산물검사소는 철원지방의 너른 평야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의 품질을 검사했던 기관의 건물이다. 이지역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듯이 검사소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음에도 비교적 잘 구성되어있다. 이 건물은 북한정권하에서 검찰이 사용하였다고 하며, 주로

24) 대한민국문화재청(<http://www.cha.go.kr>) 참조.

반공인사들을 색출, 취조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일제시대 (1936년 당시) 원명은 곡물 검사소 철원출장소로서 현재 구 철원 시가지 유적 중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⑭ 구 철원 제2금융 조합 건물지: 1936년 이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금융(은행) 건물로서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블록이 남아있어 건축 재료사적으로 귀중한 유적지이다. 1936년 당시 구 철원 시가에는 석산은행 철원지점을 비롯하여 동주금융조합, 철원금융조합, 철원 제2금융조합 등 4개의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본 조합은 그중의 하나로서 총자산은 49만원 일본 화폐에 대부 실적은 34만원에 이르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현재는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된 금고만 극히 일부 남아있다.

⑮ 궁예의 도성: 철원군 철원을 흥원리에 위치해 있으며, 903~904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궁예가 904년에 나라를 세우고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길 때, 금학산을 진산으로 정하면 300년을 지속할 것이며 고암산을 진산으로 정하면 30년밖에 유지 못한다는 도선의 도참설을 무시하고 고암산을 진산으로 정하고 이곳에다 궁전을 건설하였다.

이 도성은 외성, 내성으로 이중 축조된 특이한 성이며 밑 부분은 석축으로 상단은 토축으로 외성의 둘레는 4,370m, 내성은 577m의 큰 궁성이다. 내성에는 궁예만이 사용하였던 여수정과 석등 등 많은 유적이 있었으며, 특히 궁예도성의 석등은 1940년 국보 118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파괴되었으며, 현재 휴전선 내 유지가 남아 있어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림 2 궁예도성의 석등을 찍은 과거의 사진. 현재는 실물을 볼 수가 없다.

⑯ 명성산성(울음산성):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명성산의 8부 능선 협곡에 세워진 산성으로 건립 연대는 918년으로 추정된다. 궁예의 심복장수였던 신승겸, 홍유, 복지겸, 배현경 등은 반기를 들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한다. 이에 918년 일단의 군졸들과 궁중을 빠져 나와 대마리의 중어성, 중리(포천시 관인면)의 보개산성 등을 전전하던 궁예는 최후로 이곳 명성산에 산성을 쌓고 농성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결국 왕건의 군대에 패배한다. 그때 궁예를 따르던 군졸들이 너무나 슬피 울었다 하여 그 후 사람들은 이 산을 명성산(鳴聲山: 울

음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산정에는 당시 궁예와 군졸들이 은거 생활을 했던 유물들과 일부 성지가 남아 있다.

2.1.4 철원의 인물

예로부터 철원은 험준한 산맥과 같은 장수들과 풍요로운 대지를 닮은 명사들이 태어난 곳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뛰어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오랜 시간 머문 곳이기도 하였다. 편의상 시기를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⁵⁾

(1) 시대 이전의 인물

1) (?~918)

후고구려의 건국자·왕, 재위 901~918. 901년 후삼국 중의 한 나라였던 후고구려(후에 마진(摩震), 태봉(泰封)으로 개명)을 건국하였다.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부를 두어 국가체제를 정비하였고, 한때 전국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등 세력을 떨쳤다. 말년에는 미륵신앙에 기반을 둔 신정적 전제주의 정치를 추구하였는데, 918년 6월 이에 반발한 정변이 일어나 왕위에서 쫓겨나 죽음을 당했다.

궁예는 신라 제47대 헌안왕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궁 사이의 소생이라는 설과 제48대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설, 제45대 신무왕의 숨겨진 아들이자 장보고의 외손이라는 설 등이 있다.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왕이 그를 죽이도록 명하였는데, 유비(젓먹이 비녀)가 그를 구해(이 때 떨어지는 궁예를 받다가 손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다고 함) 몰래 길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궁예가 왕위 다툼에 희생되었던 왕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정쟁에서 패배하여 몰락하였던 유력한 진골귀족 가문 출신으로 보기도 한다. 시기별로 생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여세에 세달사(고려시대 흥교사)에서 출가하였고, 스스로 법호를 선종이라고 하였다.²⁶⁾ 891년 세달사를 떠나 기현을 거쳐 양길의 부하로 활약하였다. 894년 10월 명주(지금의 강릉)에 입성하여 3,500명의 병력을 확보하였다. 장군으로 추대된 궁예는 대규모의 병력을 확보하고 부대 편제를 정비하였으며, 지휘권을 확립하는 등 명주에서 자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895년 한산주 관내 10군현을 차지하는 등 군세를 떨쳤다. 899년 양길의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고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901년에 고려를 건국하였다. 904년 국호를 마진, 연호를 무태로 바꾸고 하고 중앙정치조직을 정비하였다.

905년 7월 철원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905년 8월에 죽령의 동북 지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고, 906년 상주를 차지함으로써 신라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였다. 905년에 패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그러자 그 외곽의 대동강 유역의 호족들도 궁예에게 귀속하였다. 909년 왕건을 나주에 파견하여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전국의 2/3를 차지하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911년 국호를 태봉이라고 하고,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궁예는

25) 이하의 내용은 『철원군지』(철원군 편, 1992) 『철원향토지』(철원문화원 편, 1998.)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26) 훗날 미륵불을 자칭하고, 경전을 짓고 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승려로서의 경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미륵불을 자칭하고 자신을 신격화하였다. 미륵불로서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해 미륵 관심법을 고안하였다. 즉 독심술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란의 음모를 적발하는 데에도 이용하였다.

이후 궁예의 신격화에 대한 비판과 불균등한 권력 분배에 대한 호족들의 불만, 궁예의 지나친 의심,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과중한 세금과 막대한 물자의 낭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궁예의 입지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918년 6월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 등이 왕건을 추대하고 궁예를 왕위에서 축출하였다. 그는 미북으로 도망쳐 산곡간에 숨어 있다가, 또는 여러 성을 전전하며 왕건에 대항하다가 부양(지금의 평강)에서 백성들에게 피살되었다고 한다.²⁷⁾

2) (877 ~ 943)

고려를 창건한 왕건은 신라 헌강왕 3년 송악에서 호족인 왕륜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건의 집안은 진골은 커녕 육두품조차도 못되었을 것이므로 신라사회에서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게 되었던 것은 시라의 사회체제가 무너져 가기 시작한 뒤의 일이었다. 혼란 속에서 이방에 근거를 두고 자라온 호족들은 독자적인 힘을 길러 성을 쌓고 성주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 세력 밑에 있는 백성들을 무장시켜 사병으로 만들고 스스로 장군이라 칭했다. 왕건은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호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895년 19세의 나이에 부친을 따라 궁예의 부하가 된 왕건은 이후 철원태수가 되어 지역을 굳건하게 지키는 등 많은 공로를 세웠으며, 특히 가문이 키워온 수군을 이끌고 한강 유역과 서해안, 멀리 지금의 경상남도까지 공략하여 기세를 떨쳤다. 《고려사》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마는 넓고 푹 튀어나왔으며, 턱이 살찐다. 목소리가 우렁찼다.”라고 표현했는데, 과장임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지도력이 있었던 듯하다. 913년(?)에 덕진포와 반남현에서 후백제의 군대를 연파하였다.

이후 궁예의 신격화에 대한 비판과 불균등한 권력 분배에 대한 호족들의 불만, 궁예의 지나친 의심,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과중한 세금과 막대한 물자의 낭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궁예의 입지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918년 6월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 등이 왕건을 추대하고 궁예를 왕위에서 축출하였다.

왕위에 오른 왕건은 궁예와 달리 신라를 후대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아냈고, 부자간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견훤을 끌어들이함으로써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이후 전란에 지친 백성을 다독이고 쉬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수많은 정략결혼을 통해 호족들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이어갔다.²⁸⁾

3) 신승겸(?~927)

통일신라의 운명이 다해갈 무렵 각지에서 일어난 인물들 중 강원도 농민 중심의 궁예와 전라도 지방 중심의 견훤이 있었다. 그 중 궁예는 왕건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는데,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신승겸이다. 그는 농민 출신으로 성장하였으나 왕건입국과 후삼국 통일사에서 가장 각광받는 인물이다.

27) 이상의 내용은 한국민족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참조.

28) 이상의 내용은 『철원군지』(철원군 편, 1992) 『철원향토지』(철원문화원 편, 1998.) 외에 네이버캐스트 인물한국사 왕건 편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였다.

신송겸은 평산신씨의 시조인데 평산신씨는 동양신씨라고도 한다. 신송겸은 본래 성씨 없이 능산이란 이름뿐이었는데 「동국여지승람」 평산부의 인물조와 「동양세계년표」를 보면 「공의 처음의 이름은 능산인데 생년은 알지 못한다……. 공이 태조(왕건)을 따라 평주(平柱·영산)에 사냥을 가서 점심때 마침 기러기 세 마리가 하늘을 나니 왕이 활로 쏘아 맞추기를 좌중에 명하였다. 공이 일어나 셋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맞추니 태조가 감탄하여 평주의 토지를 공에게 내려…….」 위의 글에서 평산을 본관으로 한 유래가 쓰였으나 이것은 전설에 불과하다. 왕건이 평산의 땅을 주고, 성을 만들어 줬던 것만은 사실 일테니 왕건의 경락에 큰 무공을 세웠음은 분명하다.

4) (?~1236년)

고려시대의 명종 때 문무를 겸비한 명신이다. 강동성 싸움에서 거란군을 쳐부수어 큰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예부낭중을 거쳐 추밀원 우승선이 되었다. 뒤에 철원부사와 상주목사를 거쳐 중서시랑평장사와 한림학사, 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예서와 시조에 매우 능하였다.

5) 최영(1316 ~ 1388)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은 철원이 낳은 출장입상(出將入相)의 대인물이다. 장군은 고려 충숙왕 3년(서기 1316년) 철원군 어운면 하갈리에서 최원직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동주최씨(동주는 철원의 옛이름)의 시조이자 고려 태조 왕건의 개국 공신인 최준웅의 11대손이다.²⁹⁾

1352년 조일신의 반란을 진압하여 호군에 임명되었다. 1354년 중국 장사성이 난을 일으키매 원이 원군을 요청하자 대호군에 임명되어 원정, 난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즉시 원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 8참을 수복하였다.

1358년 양광, 전라도 왜적체복사로 오부포에 침입한 왜선 4백여척을 격파하였고 이어 홍건적을 격퇴 서경, 개경을 수복한 공으로 도형벽상공신이 되고 전리판서에 올랐다. 1363년 흥왕사의 변을 진압 진충분의공신 1등이 되고 찬성사에 올랐으며 1364년 덕흥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원으로부터 쳐들어온 최유를 의주에서 섬멸하였고, 1374년 경사사에 승진되었다. 1376년 왜구가 삼남 지방을 휩쓸고 원수 박원계가 참패하자 출정을 자청 홍산에서 계속 왜구를 토벌하고 안사공신의 호를 받았으며 1381년 판삼사사를 거쳐 수시중 영삼사사가 되고 1388년 문하시중이 되었다. 이때 명나라가 북변일대를 요동에 귀속시키려 하자 요동정벌을 계획 팔도도통사로 평양에 가서 군사를 독려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좌절되고 이성계의 군사들이 개경에 난입하자 소수의 군사로 이를 맞아 싸우다가 체포되어 공

29) 고려 충신으로 유명한 최영은 의외로 그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출생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출생지로 지목되는 곳은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 하갈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등이 있다. 아직 뚜렷하게 최영의 출생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영의 출생지는 동주최씨 가문 내력이나 선영, 고려사절요 내용으로 보건데 철원일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몇 가지를 소개한다.

최영장군은 고려 개국공신 최준웅의 후손으로 최석(평장사), 최유청(평장사), 최당(평장사), 최선(평장사), 최린(평장사), 최종준(문하시중), 최운(평장사), 최문분(판도판서), 최평(추밀원부사), 최웅(한림학사) 등이 태조부터 고종때까지 연이어 등용되었고 실력을 과시하면서 당당한 지위를 누렸다. 현재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둔지산에 동주최씨 시조의 4세손인 예숙공 최석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예숙공의 묘역이 위치한 둔지산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일명 뱀산 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최석의 아들이 최유청으로 고려 예종조에 중서문하평장사로 문명을 날렸다. 최영은 최유청의 고손자이고 학저수지 북쪽마을인 하갈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관우리는 동주최씨의 근거지이다. 철원공감·철원역사문화연구소 편, 철원의 역사와 문화, 2012, 47-48쪽 참조.

요죄로 참형 당하였다.

조선조 태조 6년(서기 1397년)에 장군에게 공무민공(公武愍公)의 시호를 내리고 장군의 넋을 위로하였다. 조선조 태종 때 대제학을 지낸 변계량은 장군의 충절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일편단심응불사, 천추영여태산형(일편단심은 결코 죽는 일이 없이 천추에 태산과 더불어 솟아 있으리라)”

6) (827~898)

도선은 서기 827년 흥덕왕 2년~898년 효공왕 2년의 신라시대 말의 승이다. 그러나 신라보다는 고려사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쳐 끊임없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조 왕건에 의해 당시 사회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므로써 그 후 현종 때 대선사, 숙종때 왕사, 인종 때에는 국사로 명명 추증되었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도 풍수지리설의 대가이며 고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도선은 신라 경문왕 5년(865년)에 도선국사와 신도천여인이 현 위치인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50번지에 국보 63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과 보물 223호인 삼층석탑을 축조하고 도피안사를 창건 불상을 봉안하였다.

7) 범일국사(810년~889)

신라 후기의 고승. 통효대사 또는 품일이라고도 한다. 성은 김씨이며 흥덕왕 때 김의종을 따라 당나라에 유학하였다가 847년에 귀국하였다. 851년 백담사에서 수도하고 철원의 영주산(현 보개산)에 859년(헌안왕 3년) 흥림사를 재창하고 천불을 조성, 봉안하였으며 860년 성주암을 개창하고 그 후 차례로 자장암, 남암을 창건했다. 863년(경문왕 3년) 철원을 울리리 215번지 산에 안양사를 창건하고 극락삼성은 목제로, 관음상 삼위는 석제로 조성, 봉안하고 안양사라고 명명하였다.

(2) 인물

1) (1377~?)

박창령의 자는 원길이요, 본관은 영해인데, 1377년에 전객령 박유의 아들로 태어났다. 영흥부 소윤으로 있을 때는 준원전을 세웠고, 뒤에 평양 부서윤이 되었는데 어디서나 명성을 떨쳤고 공적을 세웠다. 박창령은 아들 셋과 손자 열다섯을 두었는데 선조때부터 계승하여 온 충, 효, 열의 절의 종헌을 지켜 평소 자손 훈육의 근본을 여기 두었다. 그가 죽은 뒷일이지만 세조의 왕위찬탈로 단종의 손위를 보게 되자 두 아들 곧 돈수 박도와 경은, 박제, 그리고 다섯 손자 곧 탁영제, 박규손, 운설 박효손, 규은 박천손, 성로 박인손, 포신 박계손 등 일곱사람은 타성사람 두분 곧 생육신 중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 부제학을 지낸 정제 조상치와 함께 벼슬을 버리고 김화군 근남면 옥단리 어둔산에 초막을 짓고 은거하며, 세상사를 논하고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관의 감시와 세조의 부름에 더 이상 모여 지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각처로 흩어져 피신하였다. 뒤에 이 아홉 분을 제사지내기 위하여 근남면 사곡리에 구은사(九隱祠)가 세워졌다.

2) 최항(1409~1474)

조선시대의 문인이며 본관은 삭녕이다. 자는 정부, 호는 태허정이며, 시호는 문정으로 관직은 영의정에 이르렀다. 1434년(세종 16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부수찬이 되었다. 정인지, 박팽년 등과 함께 훈민정음의 창제에 참여하였고 교리를 거쳐 용비어천가 창제에 참여했다. 1448년 집현전직제학, 우사간대부로 수사관이 되어 정인지 등과 함께 고려사를 개찬했다. 1453년(단종 1년) 동부승지로 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에 공을 세워 정난공신 1등이 되고 도승지에 올랐다. 또한 1466년(세조 12년) 판병조사를 거쳐 좌찬성을 역임 다음해에 우의정이 되었다가 좌의정 이후 영의정이 되었다. 1469년(예종 1년) 경국대전 상정소 제조를 겸하여 오랫동안 끌어온 경국대전을 찬진했다. 마장면 대전리 화석골에는 최항 영의정이 출생한 곳에 행적비가 세워져 있으며 그 후손들이 길이 추모해오고 있던 곳이다. 지금은 이북지역에 위치하므로 확인할 길이 없다.

3) 김시습(1435~1493)

조선왕조 때의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본관은 강릉, 자는 열경, 호는 여럿이어서 매월당, 동봉, 청한자, 벽산청은 등으로 불렸는데 그 중에서도 매월당이라는 호가 가장 유명하다. 1435년(세종 17년) 서울 반궁반에 음직으로 충순위를 지낸 김일성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시습을 서술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우리 고장과 인연이 깊어서 매월대에 얹힌 이야기가 있고, 시문도 전해오므로 이에 대해 요약하고자 한다. 근남면 잠곡리와 옥단리의 경계에 있는 북계산에 신선바위「선암, 창암」라고 부르는 넓이 세칸 정도의 높은 너럭바위가 있는데 주위에 울창한 숲과 맑은 샘이 있고 피신하기에 좋은 굴도 부근에 있어서 하늘이 준 수양처(천혜적 수양처)라 할만하다.

김시습이 긴 방랑 은둔생활 중 한동안을 이곳에 몸담아 지방 은사들과 교유하였으므로 그의 호를 따서 마을 이름을 매월동이라 하고 바위가 있는 산을 매월대라 하였다. 바위에는 당시 조각된 바둑판 그림이 오랜 풍우에 깎이면서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어 그때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4) (?~1562)

임거정(임격정)은 의적으로 유명하다. 그는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마치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작중인물 혹은 전설적인 인간으로 되어 버린 느낌이 있다. 그는 우리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실재 인물이며 명종 17년(1562년)까지 재세하였던 피지배층의 한 사람이었다. 기록의 대부분은 임격정의 생애사상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출귀몰한 그를 체포하는 과정의 것이다.

천민출신으로 출세길이 막히고, 조정의 부패와 양반, 관료들의 수탈은 물론 토호들의 행패에 불만을 품어 당시 학정에 신음하고 있던 서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대적당(大賊黨)을 조직하고 그 두목이 되었다.

지금 고석정 건너편 산 정상에 길이 2,892척(868m)의 석성을 쌓고 이곳을 웅거지로 하여 함경도 지방에서 이 지점을 거쳐 상납하는 조공물을 약탈해서 서민들에게 분배해 주는 활빈당 활동을 전개하다가, 조정 관군에 쫓기게 되면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곤 했는데 빠져나가는 재주가 흡사 껍지와 같다 하여 임격지(임격정)로 불렸다는 전설이 있다. 임격정은 그 후 1562년 조정의 토벌사 남치훈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쫓겨 황해도 구월산에 숨어들었다가 부하의 밀고로 관군에 체포되어 사형 당하였다. 성호 이익이 자신의 저서인 《성호사설》에서 조선의 3대 도둑으로 홍길동과 임격정 그리고 장길산을 꼽을 정도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둑이다. 그를 의적으로 평가하면서 소설책과 영화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³⁰⁾

5) 원호(1533~1592)

임진왜란 때 양평으로 향하는 왜병 때문에 원호는 남한강 지류인 섬강에 가서 진을 치고 수비 중 왜병이 도강해오는 것을 반격해 구미포에서 적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 후 제4진으로 상륙한 모리길성의 왜군은 서울 동두천을 경유, 철원, 김화, 평강, 회양을 침략하고 함경남도 안변을 향하여 이 고장(철원, 평강, 김화)을 짓밟게 되었으니 임진년(1592년) 8월경의 일이었다. 당시 원호는 현 철원군 근남면 하소리 갈동의 537.7m의 산정에 진을 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왜병을 막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순국하게 된다.

6) 김장생(1548~1631)

조선조 중기의 학자이다. 자는 희원, 호는 사계, 시호는 문원이며, 본관은 광산, 대사헌 계휘의 아들. 처음에 송익필에게 예학을 배우고 뒤에 율곡 이이에게 성리학을 배워 통달해 문명이 높고 예학과 유학의 장생은 선조 35년(1692년) 청백리로 녹선 되었으며, 광해군 2년(1610년) 6월 10일 철원부사로 부임하여 광해 5년(1613년) 5월 3일까지 3년간 군정을 이끌다가 사임하였다.

7) 김창흠(1653~1722)

조선 중기의 명문장가. 자는 자익, 호는 삼연, 본관은 안동으로 영의정 수항의 아들이며 철원부사도 역임했던(1695-1697년) 창집의 아우이다. 15세 때 양주군 영지동에서 정관재 이단상에 수학하였고 21세때 진사시를 보아 일등 했다. 그러나 삼연은 수십명의 판서가 배출된 가문의 행적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벼슬을 사퇴하고 명승지를 다니며 산수를 즐기었는데 숙종 5년 27세 되던 해 철원 동남에 위치한 용화림에 우거하며 가까이 자리한 삼부연

30) 이상의 내용은 철원군지와 철원향토지 외에 철원군청홈페이지(<http://www.cwg.go.kr>) / 인터넷 지식백과 등을 정리·발췌하였다.

폭포를 벗어나면서 역학의 계몽작 후 천도설을 심독하는 등 2년간 성리학에 정진하였다. 삼부연과의 인연으로 후에 아호를 삼연이라 하였다.

8) (1567~1596)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본관은 광산. 자는 경수. 광주 출신. 아버지는 봉섭이며, 어머니는 남평 반씨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고령명의 막하에서 전라도 경내로 침입하는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전주에 이르렀다. 그 때 돌아가서 어머니를 봉양하라는 형의 권고에 따라 귀향하였다. 1593년 어머니 상중에 담양부사 이경린, 장성현감 이귀 등의 권유로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세력을 크게 떨치자, 선조로부터 형조좌랑의 직함과 함께 충용장(忠勇將)의 군호를 받았다.

1594년 세익호장군(翼虎將軍)의 칭호를 받고, 선조로부터 다시 초승장군(超乘將軍)의 군호를 받았다. 조정의 명에 의해 각지의 의병을 통합한 의병장이 되어 광재우와 함께 권율의 막하에서 영남 서부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았다.

왜적의 전라도 침입을 막기 위해 진해·고성 사이에 주둔하며 적과 대치했다. 그 해 10월 거제도의 왜적을 수륙 양면으로 공격할 때 선봉장으로 활약해 적을 크게 무찌르고 이어서 1595년 고성에 상륙하려는 왜적을 기습, 격퇴하였다. 그 뒤 진주에 둔전을 설치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해 출전의 차비를 갖추었다. 홍산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키자 도원수 권율의 명을 받아 진주에서 운봉까지 진군했다가, 이미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돌아가려 했으나 허락받지 못해 진주로 돌아왔다. 이 때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무고로 체포되었다. 여러 대신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에 여섯 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옥사하였다. 체구가 작지만 날래고 민첩하며 신용이 있어, 용력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다. 1661년(현종 2)에 신원되어 관작이 복구되고, 1668년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1681년(숙종 7)에 다시 병조판서를 거쳐 1788년(정조 12) 의정부좌참찬에 추증되고 부조특명(국가에 공훈이 있는 인물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제사지내게 하던 특전)이 내려졌다. 죽기 전에 지었다는 <춘산곡> 시조 한 수가 전한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³¹⁾

9) 유림장군(1580~1643)

임진왜란의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라면 병자호란의 영웅은 유림장군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병자호란 당시 출중한 무예와 전략으로 조선을 방어했던 명장이다. 1603년(선조 36년) 무과에 급제 충청도 병마절도사 전라우도수군절도사 등을 거쳐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에 평안도 병마절도사로서 성을 굳게 수비하여 침입한 청군의 공격을 모면한 뒤 남하하는 청군을 추격, 철원의 김화에서 크게 무찔렀다. 화의가 성립된 뒤 다시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부임. 청국의 요청으로 청장 마부달과 함께 가도를 공략 명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1639년 삼도수군통제사가 되고 1641년 청나라에서 명나라를 정벌할 때 또 그들의 요청에 따라 원군을 이끌고 출정했다가 돌아와서 총계사 후에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10) 김응하(1580~1619)

김응하 장군은 철원군 어운면 하갈리에서 조선 선조 13년(서기1580년) 출생했다. 자는 경희(景羲), 시호는 충무(忠武), 본관은 안동이며 고려명장 김방경의 후손이다. 14세에 부모를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참조.

여의었으나 아우 응해와 함께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형제애가 지극하여 향리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25세에 무과에 급제, 병조판서 박승종에게 선발되어 선전관이 되었고, 도원판관과 삼수군수, 복우후로 있으면서 국경지대의 방비를 튼튼히 했다. 서기 1619년(광해군 10년) 김응하 장군은 도원수 강홍립의 좌영장으로 명나라에 들어가 명장 유정의 군사와 합세하여 후금과 전투를 벌였다. 이때 명나라 군사는 곤경에 빠져 유정은 자살하고 김응하 장군은 부하 3천명을 거느리고 적군 6만과 대치하여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적군에게 포위되어 몸에 수 십대의 화살과 창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오랑캐들은 장군의 용맹과 충절에 감격하여 버드나무 밑에 장군을 묻고 유하장군(버드나무 밑에서 전사한 장군)이라는 뜻말을 세워주었다. 서기 1620년(광해군 12년) 명나라 신종황제는 장군에게 요동백을 봉하고 처자에게 백금을 하사했으며, 우리 조정에서도 충무공의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현종 7년(서기 1666년)에 철원을 화지리에 사당을 짓고 이듬해 7월에 사액하였으며 사당의 칭호는 포충사(褒忠祠)이다.

현재 동송읍 양지리 여우산(일명 군량봉)기슭에 장군의 의관만으로 조성한 묘역이 있다.

11) (1588~1666)

조선 인조 때의 장군. 자는 군서, 본관은 안동 응하의 아우. 광해 8년(1616년)에 무과에 급제, 선전관을 비롯하여 도총도사를 거쳐 희천 군수가 되었고, 뒤에 가계부사를 거쳐 부학, 인동, 정주를 두루 다스렸으며 청렴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12) 유척기(1691~1767)

근세조선 중기의 고질이었던 사색당쟁, 그 말기에 유배의 고통도 맛보고 정승도 지냈던 유척기는 본관이 기계이며 자는 전보, 호는 지수제, 시호는 문익이다. 숙종 17년(1691년)에 서울 반송방에서 대사헌을 지낸 유철의 손자이며 청주목사 유명악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유척기는 철원이 낳은 인물이 아니고, 철원이 받아들인 인물이다. 그는 철원군 지혜동 곧 갈말읍 문혜리 논골에 사패로 받은 사방 10리 땅에 묘역을 잡아 그의 아버지와 일찍 죽은 아들 언균을 장사지내고, 본인도 여기 매장되고 후손들이 와서 살게 된 것이다.

13) 이가환(1742~1801)

정조 때의 대학자이며 서학(천주교) 연구가이다. 자는 정조, 호는 정헌, 금대, 금옹 등이고 본관은 여주이다. 채제공, 정약용 등과 더불어 정조의 개혁정치를 추진했던 중심인물의 하나이다. 이가환은 재질이 특이하고 기억력이 강할뿐더러 고금의 모든 서적을 눈만 한번 스치면 두루 통달하여 잊은 적이 없었다. 이가환이 우리고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정주목사로 나갔을 때 시론에 영합한 어사 이곤수의 장계 때문에 1787년 4월 직을 물러나고 김화에 귀양을 오게 되었는데 정조 12년(1788년) 봄 채제공이 입상하자 승지로 서용되었으며 1년이란 짧은 기간이었던 것이다. 당시 처량한 생활은 금대시집에 실려 있는 시문에 나타나 있다.

14) 김학유

철원출신이며 강릉 김씨이다. 부친의 병을 회생케 하고 동생인 학옥을 복상케 하였으며 학유의 아들 병보는 부병에 단지주혈 하였고 학옥의 아들 병순도 역시 복상케 하였다. 4인이 자소로 효성이 지극하여 향간에 칭찬이 자자하여 후일에 철원군 내문면 오동리에 사효각을

건립하고 그들을 추모하여 왔으나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으며 휴전선 이북에 위치하므로 유적지마저 알 수 없다.

(3) · 현대 인물

1) (1867~1939)

조선조 고종 때의 광대이며 동편의 명창이었다. 전남 구례에서 출생하였으며 7세때 소리공부를 시작하여 뒤에 원각사의 간부가 되었다. 참봉 감찰과의 벼슬도 지냈으며 소리로만 부르던 춘향가를 창극으로 공연하였다. 궁내부 별순검을 역임하였으며 늦게 이동백, 정정열과 함께 조선성악 연구회를 설립하여 제자양성에 힘썼으며 말년에 철원에서 후인양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철원방송국에도 출연한 바 있다. 판소리의 후기8명창 중 하나이다.

2) 이태준(1904~?)

상허 이태준은 우리나라 순수문학에서 소설계를 대표하는 최초의 기수이자 근대적 단편소설의 한 완성자로 평가되고 있다. 상허는 1904년 11월 4일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에서 이문교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9세 때인 1912년에 어머니마저 잃었다. 상허는 일본에서「오몽녀」를 집필하여 1925년(시대일보) 발표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오몽녀」발표 후 문단의 주목을 받으며「얼닌 수문장」,「모던걸의 만찬」,「그림자」,「온실의 화초」등을 써서 1920년대 후반기의 황폐한 문단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1931년에는 순수 예술을 중시하는 “구인회”모임에 참가하여 이 시기에 훗날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달밤」,「밤길」,「가마귀」,「영월영감」등의 역작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자 1936년에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심한 갈등을 보이고 새로운 문학적 변신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농군」과 같은 현실 인식이 투철한 적극적인 작품을 썼다. 한편,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는 친일적 경향의 글을 몇 편 쓰기도 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던 뒤로 자신의 양심에 용납되지 않는 듯 붓을 꺾은 상허는 고향인 철원의 용담으로 낙향하여 유유자적한 생활로 소일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3) 조금명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갈곡동에서 1902년 8월 25일 3·1 독립만세운동 시 청양지구 서당훈도로서 1919년 3월 13일 황철 성씨와 시위운동을 선두 지휘하던 함양 조씨인 윤선씨의 이녀로 명문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금명의 시가는 극빈했으나 어린 몸으로 샅바느질과 노동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며 효부 표창을 받았다. 집 한 칸 의지할 곳 없이 어린 자식을 홀로 키웠으며 남편의 사망 소식에 일 년도 채 동거하지 못한 남편의 사처를 찾아 헤매었다. 두 자식을 거느린 몸으로 재가의 권유도 물리치고 남장으로 행상 및 노동을 하여 두 아들을 6·25에 참전시켰다. 정부수립 후 정부에서 열부로서 표창을 받은 이 고장 출신의 열녀였다.

4) 박용만(1881~1928)

박용만은 1881년(고종 18년) 철원을 중리에서 태어나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하던 중 1910년 나라를 잃게 되자 독립운동에 몸 바쳐 오다 1928년 48세 때 중국에서 이해봉에 의하여 암살당하였다.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의 특징으로 이승만은 외교에, 안창호는 교육과 문화에 힘을 쏟았지만 박용만은 군사적 실력을 통한 독립운동에 힘썼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헤이스팅 대학 정치학과와 군사학을 연구하여 1910년 졸업한 후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12년 하와이에 건너가서는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박용만이 군단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박용만은 중국에 들어가 국사 교육뿐만 아니라 1927년 "초등국어" 책도 만들어 중국 교포의 국어 교육에도 이바지하였다.

5) (1898~1945)

독립운동가. 호는 추정(秋汀). 강원도 김화 출신. 1919년 3월 김화지방의 만세시위운동을 주동하다가 체포되어 철원재판소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1921년에 출옥, 상해로 망명하여 1923년에 임시의정원의 의원이 되었다.

1931년 12월의 제23회 의정원회의에서 염석로·박용철 등과 함께 다시 의원으로 보선되었다. 1929년 난징에서 신익희·김홍일·윤기섭·최용덕 등과 한국혁명당을 조직하였다.

1934년 일본첩자 5명을 난징 자금산으로 유인하여 사살하였으며, 1941년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관리과장에 임명되었다. 1944년 6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 총무과장, 선전부 군사학 편찬위원회 간사에 임명되었다. 1968년 대통령표창, 1977년에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³²⁾

2.1.5 철원의 관광 자원

철원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수많은 역사적 유적들로 가득한 관광의 보고이다. 이 장에서는 3·1 철원군 현지조사자료 및 2.1 철원군 문헌자료에 작성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대표적인 관광 자원을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³³⁾

(1) 철원8경과 신 철원8경

1) 옛 철원의 팔경

- 칠만암(七萬巖) <동송읍 양지리 한탄강 상류>
- 고석정(孤石亭) <철원읍 장흥4리 한탄강>
- 마산제(馬産堤) <철원읍 산명리 현 산명호>
- 궁예의 고적(弓裔의 古蹟) <철원읍 흥원리 풍천원>
- 안양사(安養寺) <철원읍 울리리 보개산내>
- 보개산(寶蓋山) <철원읍, 동송읍과 경기도의 연천, 포천일부지역>
- 도피안사(到彼岸寺) <동송읍 관우리 화개산>
- 삼부연(三釜淵) <갈말읍 신철원 3리 용화동>

2) 신 철원팔경

현 철원군은 6·25동란 이후 국토분란으로 명승고적이 대부분 연멸(煙滅)되었고 그나마 휴

32) 염운동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참조.

33) 이하의 내용은 『철원관광 100선』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전선 북방지대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옛 팔경이 오늘날엔 의미가 없다. 또한 김화군의 병합으로 옛 김화팔경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분단된 현실의 토대 위에서 보다 새롭고 현실적인 요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롭게 재 지정하게 되었다.

- 고석정(孤石亭) <동송읍 장흥 4리>
- 삼부연(三釜淵) <갈말읍 신철원 3리>
- 직탕(直湯) <동송읍 장흥 3리 한탄강>
- 도피안사(到彼岸寺) <동송읍 관우리>
- 매월대(梅月臺) <근남면 잠곡리 북계산>
- 토교저수지(土橋貯水池) <동송읍 양지리>
- 순담(蓴潭) <갈말읍 한탄강>
- 제2땅굴 <동송읍 토교저수지 동북방>

이 중에서 고석정, 직탕, 토교저수지, 순담은 3장 현지조사 자료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삼부연, 도피안사, 매월대, 제2땅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3) 폭포(철원읍 신철원리 산23-4)

삼부연 폭포는 철원군청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명성산 중턱의 조용한 계곡에 있는 높이 20m에 3층으로 된 폭포이다. 사계절 마르지 않는 물과 기이한 바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며 폭포의 물 떨어지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그 모양이 가마솥 같다하여 삼부연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어 동네 이름을 용화동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상류 3km 지점에 용화저수지가 있고 옛부터 가뭄이 들면 폭포 밑에 단을 차려놓고 기우제를 지냈다. 현재는 철원군민의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에 식당이나 매점 등 편의시설이 없어 경관이 매우 청결하다.

4) 도피안사(철원군 동송읍 도피동길 23)

통일신라 경문왕 5년(865년) 도선국사가 높이 91cm의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제조 철원읍 울리리에 소재한 안양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여러 승려들과 같이 가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이 불상이 갑자기 없어져 그 부근 일대를 찾다가 현 위치에 그 불상이 안좌한 자세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이 불상을 모셨다 한다. 당시 철조불상이 영원한 안식처인 피안에 이르렀다 하여 절 이름이 도피안사로 명명 되었으며 절 내에는 도선국사가 제조한 국보 제63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과 보물 제223호로 지정된 높이 4.1m의 화강암 재료로 된 3층 석탑이 보존되어 있다. 전에는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

5) 매월대 폭포(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222-5)

매월대는 생육신의 한사람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과 8의사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비분한 나머지 관직을 버리고 이 일대 산촌으로 은거하여 소일하던 곳으로 복계산 기슭 해발 595m 산정에 위치한 깎아 세운 듯한 40m 높이의 층암절벽(일명 선암)을 말한다. 전설에 따르면 아홉 선비는 이 암반에 바둑판을 새겨놓고 바둑을 두며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던 곳이라 전해오며 그 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김시습의 호를 빌어 매월대라 부르고 매월대 정상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에는 매월대폭포가 있어 사계절 장관을 이루는 명소이다.

6) 제2땅굴(철원군 동송읍 두루미로 1484)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이 땅굴은 한국군 초병이 경계근무 중 땅속에서 울리는 폭음을 청취함으로써 현대장비를 통한 시추작업으로 땅굴 소재를 확인한 후 수십 일 간의 끈질긴 굴착 작업 끝에 1975년 3월 19일 한국군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발견한 북괴의 기습 남침용 지하 땅굴이다.

땅굴이 있는 지점은 견고한 화강암층으로 지하 5m~160m지점에 있는 이 땅굴의 총연장은 3.5km인데 그 중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1.1km까지 파내려 왔고 그 규모는 높이 2미터의 아치형 터널로서 한 시간당 중무장한 약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의 대규모 침투가 가능하도록 특수 설계된 북괴의 엄청난 도발 현장이기도 하다.

(2) 관광 자원

이 장에서는 트래킹이나 낚시, 레저를 즐기는 것과 동시에 자연의 절경과 생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철원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기로 한다.

1)

해발 947.3m에 이르는 철원의 대표적 명산으로서 학이 막 내려앉은 산형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기 901년 후삼국의 궁예가 송학으로부터 철원에 도읍을 정할 때 도선 국사의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궁전을 짓되 이 금학산을 진산으로 정하면 명산의 힘을 받아 300년을 통치할 것이며, 만일 고암산으로 정하면 국운이 25년 밖에 못 갈 것이라고 예언한바 궁예의 고집으로 금학산을 정하지 않고 고암산으로 정하여 18년 통치 끝에 멸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산세가 험준하고 웅장하여 등산 코스로 적지이며, 산중에는 마애석불, 부도 석재 등 유적이 있다.

2) 명성산(울음산)

일명 울음산이라고도 부르는 명성산은 철원평야의 동남단을 위압하는 해발 922.6m의 명산이다. 산세는 광주산맥에 속하며, 산형은 기암절벽으로 울창한데 특히 이곳 석질은 건축석재로 외국인들의 기호를 사고 있는 홍광석으로 산 전체를 형성하고 있어, 개발을 유혹하고 있으나 자연자원보존의 관점에서 보호 관리에 역점을 두는 지역이다. 명성산 또는 울음산으로 부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옛날 태봉국의 궁예가 철원 풍천원에 도읍을 정하고 통치하던 중 지나친 폭정으로 인심을 잃고 부하들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여기까지 피신해서 왕건과 대치하던 중 기력이 쇠퇴하여 부득이 이 산중에서 부하군사들과 해산을 하게 됐는데, 이때 심복들이 슬퍼 통곡하였다 하며, 그 후 가끔 이 산중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한다.” 지금도 이 산중에 궁예가 은거했던 성지 등 유적 일부가 남아있다.

3) 북주산(휴양림)

북주산은 휴전선 가까이 있고 입산통제에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오염되지 않아서 좋다. 산 정상의 넓은 봉우리에 올라서면 북한의 산야가 바로 펼쳐 보이고, 대성산, 백전산, 화학산, 백운산 등의 조망도 뛰어나다.

4) 천불산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에 소재하며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584.8m의 이 산은 자연적으로 솟아 나온 개개의 바위마다 불상과 닮은 형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천불산이라 호칭되고 있다. 신라 때 창건된 천불암 위에 자리한 미륵 형상의 2개 바위와 인접한 칠대암은 수없이 많은 영험과 신묘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데 애기를 못 낳는 부인이 수십 길 낭떠러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50여척의 이 미륵바위를 안고 돌며 자식점지의 간절한 소망을 빌면 꿈속에 수태하여 자식을 얻는 예가 종종 있었다 하여 이 같은 소문으로 전국 각처에서 많은 부녀자들이 찾아 왔던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천불산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마하여 통화하는 것이 관례처럼 내려오고 있으나 이를 어긴 이들이 벌을 받은 실례가 전설에 전해오고 있다.

5)

철원군 상노2리에 위치한 담터는 그 입구부터 절경을 연출하는데 용정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먹바위와 신포동을 지나서 만나는 신비를 간직한 수직절벽의 불상암(높이 약 100m)은 담터 절경 중 백미라 할 수 있다. 담터의 지명유래는 산짐승을 사냥 후 먹고 버린 뼈로 집주위에 담을 쌓았다는데서 연유한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울창한 수목과 맑은 물로 한기를 느낄 정도의 자연그대로의 계곡으로 여름철과 가을철 많은 관광객 즐겨 찾고 있다.

6) 태봉대교와 번지점프

태봉대교는 고석정 상류 2km지점의 한탄강 계곡에 놓인 철제 다리로서 상사리와 장흥리를 연결한다. 군에서는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지역 간 균형 발전, 교량의 관광자원화에 의한 관광철원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2002년 총사업비 170억여 원을 투자하여 교량연장 240m, 폭 17.8m로 건설하였다. 전체적으로 한탄강 계곡과 조화되어 유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어 탐방의 명소가 되고 있다.

이 다리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다리 상판위에 번지 점프장이 설치되어 있어 동호인들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천혜의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며 높이 50m 위에서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7) 한탄대교와 래프팅

한탄대교는 기존의 승일교를 대체하여 신설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여 2년여(97.2.3 ~ 99.8.11)간의 공사 끝에 교량연장 166.8m, 폭 9.5m의 규모에 붉은색으로 도장된 아치교를 건설하였는데 미래를 향한 우리 군민의 굳은 의지와 힘찬 기상이 담겨 있다. 기존 승일교는 통행을 폐쇄하면서 교량 일대를 공원(승일공원)으로 조성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 공원에서는 종래의 승일교와 신설한 한탄대교의 규모와 형식을 비교해 보면서 역사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도 있다. 50년을 건너다니던 승일교의 역할을 이제는 한탄대교가 대신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최근 래프팅 코스가 새롭게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탄강 래프팅은 현무암 협곡으로 형성된 한탄강 줄기에서 즐기는 철원군을 대표하는 체험관광이다. 래프팅 코스는 순담~군탄교 구간과 직탕교~승일교 구간을 제일 선호하고 있으며 거리는 6~7km이고, 소요시간은 2~3시간 정도이며, 연간 40~50만 명이 찾고 있는 국내 제일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래프팅을 하며 한탄강의 협곡과 기암절벽을 바라보면 일상의 시름을 잊고 자연에 도취되어 심신을 수양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수량이 풍부하여 스릴을 만끽하는 레포츠로 각광받고, 가을철에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절벽 사이의 단풍을 감상하며, 겨울철에는 계곡의 얼음길에서 즐기는 트래킹도 일품이다.

8) 소이산

소이산은 평야에 우뚝 솟은 362m의 작은 산으로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넓은 평야를 내려다보는 정상전망은 그 위용을 자랑한다. 고려시대부터 외적의 출연을 알리던 제1로 봉수대가 위치한 공간으로 한국전쟁 이전 화려했던 구 철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 철원역사의 중심이다. 특히 군사통제구역을 벗어나 지뢰밭과 민간인 통제구역에 갇혀 수십 년간 사람

의 발길을 거부해 왔으나, 최근 민관군이 하나 되어 지금의 길을 열어 놓았다. 지뢰지대의 안전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울타리의 설치는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산림과 어우러지며 때 묻지 않은 자연 생태계는 찾는 이에게 큰마음의 안식을 주고 있다. 소이산에서 보이는 철원평야는 약 6천만 년 전 현무암 화산 분출로 생긴 용암대지로 넓은 평야가 발달해 제주도와 함께 현무암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 철원평야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정도로 전국 최고의 곡창지대이며, 최고의 미질을 자랑한다.

9)

일명 강산저수지라고 리기도 하는 동송저수지는 월정역에서 제2땅굴로 가는 중간의 길옆에 위치하고 있다. 수계는 평강 남면 학전리에 있는 보양호와 가곡 등지에서 유입되는 수자원을 저수하여 1977년에 토축한 인공저수지로서 제방연장은 3km로서 단일제당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 저수지면적 74.9ha, 저수지량은 42,367톤이며, 유역면적은 1,827ha, 몽리면적은 802.3ha로서 강산리, 하갈리, 양지리 일부지역에 관수하는데 철원 안보관광코스에 인접하여 좋은 관광명소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 도래지 중 하나로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0) 용화저수지

갈말읍 신철원3리에 위치한 용화저수지는 1960년도에 자연 소류지를 확장해서 축조한 인공저수지이다. 저수지면적 28.47ha에 저수량은 17,770톤이며, 유역면적 1,400ha, 몽리면적은 450ha로서 지포리, 군탄리 지역에 관수하고 있는데 저수지 하류에는 삼부연 폭포가 있다. 용화동 주위 산록에서 채취한 산채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다.

11) 왜가리 서식과 철원군청 옛터

왜가리는 호수나 저수지, 강가에서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왜가리는 턱 아래 근사한 수염을 가진 맵시 있는 노신사의 풍모를 하고 있다. 번식기가 되면 이들은 머리와 턱, 목, 가슴에 있는 긴 땀기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사랑을 나눈다. 왜가리는 백로과에 속하는 여름 철새로 3월 말쯤이면 강남에서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는 이곳 철원군 사요리를 비롯하여 경기도 여주군 신접리, 강원도 횡성군 압곡리, 충남 연기군 감성리, 경남 통영군 도산리 등 다섯 곳이 집단 번식지로 이름이 나 있다.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는 현 위치는 6·25전까지만 해도 철원군청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었는데, 오늘날은 잡목이 무성한 지뢰밭으로서 왜가리 보금자리로 바뀌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착잡한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3) 관광 자원

철원은 오랜 시간 동안 군사·교통의 요충지였다. 때문에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곳이 산재해 있다. 대부분은 2.1.3장 철원군의 문화재 편에서 살핀 바 있는데, 이 장에서는 남은 관광 명소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유림 장군 대첩비

유림장군(서기 1580년 ~ 1643년)의 자는 여온(汝溫),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진주이다. 선조 36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평안도 병마절도사로서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공과 합세하여 김화 진터골(현 김화읍 자모산성)싸움에서 청나라 오랑캐를 무찌르는

전공을 세웠고 국란 후에도 통제사, 총융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방에 이바지하였다. 후에 조정에서는 충장공의 시호와 함께 좌의정을 추증 하였다. 대첩비는 인조22년 (서기 1644년) 10월에 충열사 문전에 건립하였는데, 높이는 199cm, 상부폭 90cm, 하부폭 82cm, 평균두께 20cm의 규모로서 홍명구공의 충렬비와 동일위치(좌측)에 세워진 화강암 비석이다.

2) 충렬비

홍명구공은 병자호란 때 김화 진터골에서 적군을 맞아 격전하던 중 인조 15년(서기 1637) 1월 28일 42세를 일기로 장렬히 전사한 호국의 충신이다. 서기 1636년 병자호란 때는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평안도 병마절도사 유림장군과 합세하여 전투조건이 양호한 김화 오성산(김화읍 생창리)의 진터골 [자모산성]에 진지를 구축하고 의용병 삼백과 근왕병 이천 여명을 지휘하여 청군대장 마부대와 용골대의 대군을 무찔렀다. 충렬비는 조선조 인조 23년(서기1645년) 5월 공이 전사한 김화읍 생창리 (향교골)에 유림장군 대첩비와 동일형으로 나란히 건립(충렬비는 우측, 대첩비는 좌측)했는데 4개의 석초와 이중 석단형식으로 된 화강암 비석이다.

3) 심원사와 지장석상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심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 말사이다. 원래의 심원사는 신라 진성여왕 원년(647년)에 영월조사가 보개산에 개창하였으나 6·25전란으로 전소되고 현재는 군부통제지역으로 출입이 불가하여 지금 위치로 옮겨 재건하였다. 1948년 이전까지는 신서면 내산리 석대암 법당에 봉안되어 있던 지장 석상은 높이 63cm, 폭 43cm의 청흑색 자연석 재질로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신라 성덕왕 19년(720년) 산태지의 영혼이 변화하여 탄생하였다고 전해지는 우리나라 제1생의 지장보살상이다. 현재는 동송읍 상노리 소재 심원사 명주전에 모셔져 있다.

4) 철원역사와 금강산 전기철도

금강산 전철은 경원선의 중심역 이었던 철원역을 시발점으로 종착지인 내금강까지 총연장 116.6km를 1931년에 「철춘철도주식회사」에서 부설하고 금강산 전기철도주식회사에서 별도관리 및 운영했는데 당시 금강산까지는 4시간 반이 걸렸다. 원래 일제는 창도의 풍부한 지하자원인 유화철을 흥남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주민들의 강제 노력동원과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1차로 1921년부터 1926년까지 부설하고, 2차로 1926년부터 1931년에 걸쳐 창도에서 내금강까지 부설하면서 전기시설로 전환하고 금강산 관광과 자원수송을 병행하였다. 이 전철은 매일 8회 운행하였으며 내금강까지의 요금은 당시 쌀 한 가마 값인 7원 56전으로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 1936년 당시 연간 이용객은 약 15만 4천여 명 정도였다. 정연리 한탄강 계곡에 남아 있는 전철교량은 2004.9.4.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12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5) 태봉제

철원은 옛 태봉국의 왕도로서 산자수명하고 인심이 순후하며, 풍요롭고 광활한 농경지를 가진 중부 제1의 곡창지대로 이름난 곳이다. 이러한 고장의 전통을 오래도록 기리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며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뜻에서 매년 10월 21일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태봉제를 개최한다. 1983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29회째 최하였다.

태봉제 행사는 문화행사와 특별행사를 시작으로 전야행사로는 태봉제례 및 연예인 축하공연 등을 실시한다. 본 행사 당일은 개막식 기념행사 및 각종 민속놀이, 군민장기자랑, 궁예왕 어가행차 퍼레이드 및 즉위식을 재연하는 등 다채롭고 볼만한 행사들이 치러진다. 특히 궁예왕 어가행차 퍼레이드 및 즉위식 재연 행사는 태봉제의 주제행사로서 지역정체성을 강화시킨다.³⁴⁾

(4) 관광

6·25 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대로서 전투의 격전장이었던 철원은 현재에도 남북의 첨예한 대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철원군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날의 상처들과 오늘날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제2땅굴과 노동당사를 비롯한 근현대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이를 제외한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를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승리전망대는 철원군 근남면 마현 2리 마을 앞산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로부터 108km, 춘천으로부터 74km 떨어진 지점으로, 휴전선 155마일 중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성산, 적근산, 삼천봉이 한눈에 들어오고, 북한지역으로는 6·25전란 당시 격전장이었던 오성산과 북한 금성지역 등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잡초에 묻혀 있는 금강산 철길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승리전망대는 철원군에서 지난 2002.2.18. 개관하였으며,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2) 백마고지전시관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1950.6.25. ~ 53.7.27.)기간인 1952년 10월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3km 북방에 위치한 무명의 한 작은 고지를 놓고 한국군 보병 제9사단(사단장 김종오)과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이 전력을 기울여 쟁탈전을 벌인 끝에 우리 국군의 승리로 매듭지어진 전투를 말한다. 1952. 10. 6.일부터 10일 동안 해발 395m 밖에 되지 않는 고지 하나를 빼앗기 위해 아군과 적군 2만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전투기간 중 발사한 포탄은 적 측 5만5천발, 아군 측 22만발, 피아간 12차례의 공방전으로 24회나 주인이 바뀌기도 했다. 혈전사투의 초연이 견인 다음 처절하게 변모한 산용이 흡사 백마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백마고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백마고지전투는 한국군의 방수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일전으로서 보(步), 전(戰), 포(砲), 공(空)의 협공이 긴밀하게 이루어진 고지공방의 범례가 되는 결전이기도 하였다.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현재 백마고지전시관이 건축되어 당시의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시는 민족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34) 이학주, 『철원농촌체험관광해설사스토리텔링북』, 철원군농업기술센터, 2012, 171쪽.

3)

경원선의 간이역이었던 월정역은 남방한계선에 최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원안보관광의 대표적인 경유지이다. 현재는 객차잔해 일부분만 남아 있는데,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강렬한 팻말과 함께 분단된 민족의 한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원래 경원선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주민들을 강제동원하고 당시 러시아(구소련)의 10월 혁명으로 추방된 러시아인을 고용하여, 1914년 8월 강원도 내에서 제일 먼저 부설되었는데 서울 ↔ 원산 간 221.4km를 연결한 산업철도로서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원산의 해산물 등을 수송하는 간선 철도 역할을 했다. 현재의 월정역사는 철원안보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88년 복원하였다.

4) 평화전망대와 모노레일

철원평화전망대는 2007년 8월 준공하였으며, 2층 전망대는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평강고원과 북한선전마을을 전망할 수 있으며, 초정밀 망원경시설과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지형 축소판이 있어 민족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다. 편안하고 안전한 최신형 관광객 수송 시스템인 모노레일카를 민자로 유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5) OP

공산주의를 멸하고 복진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백골장병의 의지를 담아 “멸공”이라 명명하였다. 중부전선의 심장부인 철의 삼각지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8월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되었다. 멸공OP 바로 앞에 펼쳐진 비무장지대의 한탄천과 민들레 별판에서는 수십여 종의 철새를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천리 마을’, 영화 『고지전』으로 유명한 ‘오성산과 저격능선’과 ‘끊어진 철길’ 등 다양한 안보전적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2.1.6 철원의 설화와 지명유래

철원군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나름대로의 유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설화와 지명유래는 철원이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한탄강과 연관된 설화는 3장 현지조사 자료에서 다루기로 한다.³⁵⁾ 그 외에 철원에서 내려오는 설화와 지명유래 중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항목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⁶⁾

(1) 설화

1) 궁예와 관련된 전설

① 궁예와 용담 설화: 궁예왕이 궁궐터를 잡으려고 풍수를 데리고 왔다가 풍수의 말을 지키지 않아서 학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3백년 도읍지가 3십년 도읍지가 되었다. 그것을 본 풍수는 한탄을 하였다. 그때 서해의 용이 보니까 궁예왕이 3백년 도읍지를 열 것 같아서 그에 맞는 물을 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서해의 바닷물을 끌고 연천을 거쳐 철원의 용담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서해의 바닷물을 끌고 들어오던 용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갈 곳이 멀었는지를 보려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래서 용이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까 300년 도읍지가 30십년으로 바짝 줄어들어 있었다. 그래서 용은 서해의 물을 다 끌어들이지 않고 현재 용담에 담겨 있는 물만 남겨두고 갔다. 용은 “에이! 이만하면 뭐 30년은 물을 달아 먹겠지.” 하고, 나머지 물은 모두 물고 나갔다. 그때는 바닷물의 조수가 여기 용담까지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래서 용담 근처에 가보면 망바위, 배바위 등으로 모두 바위가 이름이 있다. 실제로 철독길에 가보면 물이 들어와 출렁인 흔적이 있다. 그때 그곳에 쌓였던 낙엽이 묻혀서 토탄(土炭)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불을 붙이면 종일 꺼지지 않고 탄다. 철원의 용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② 궁예부인과 왕건의 사통 설화: 궁예왕은 자신이 오래 살려고만 신경을 쓰고 가족에 대

35) 원칙적으로 철원의 설화와 지명유래는 다른 장에서 살피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작성한다. 다만, 전체적인 통일성을 비롯해서 기타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중복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김응하 장군 설화 ⑥⑦은 현지조사 당시 제보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칠만암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3·1.3장 양지리 마을의 설화에 넣을 예정이나 김응하 관련 설화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 장에서도 중복 수록하였다.

36) 이하의 내용은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원대학교박물관·강원도철원군, 1995)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궁예왕은 왕비와 같이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었다. 왕비는 매일 독수공방을 하고, 궁예왕은 따로 젊은 처녀의 젖가슴만 보면서 밤을 보냈다. 왕건은 궁예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으므로 궁예 대신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았다. 그래서 왕건의 권력이 날로 커갔다. 그래서 실제로는 궁예보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왕건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건은 궁궐을 돌아다니다가 왕비하고 눈이 맞게 되었다. 둘은 눈이 맞자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왕건은 그 이후 왕비와 잠을 자고 싶으면 찾아갔다. 이것도 모르고 궁예는 매일 쓸데없이 앉아서 처녀들 젖가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궁예가 대낮에 궁궐 순찰을 돌게 되었다. 순찰 중에 왕건과 왕비가 함께 자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 궁예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와 자신의 부인이 사통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왕건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왕건은 자신의 사통이 들기자 군사를 풀어 궁예왕을 죽이고자 하였다.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많은 군사가 왕건의 수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궁예왕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의 토성리로 왔다. 토성리에서는 왕건의 군사들을 막기 위해 궁예왕은 흙으로 토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토성도 금방 왕건의 군사에게 점령당했다.

궁예는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울음산으로 후퇴를 했다. 울음산에서 다시 퇴각을 해서 삼방이라는 곳에 당도했다. 그래서 궁예가 여기가 어디냐고 자신을 따라 온 몇 안 되는 군사들에게 물었더니 삼방이라는 곳이라 했다. 궁예가 생각하니 자신의 궁궐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었다.

그때 갑자기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궁예를 알아보았다. 궁예가 워낙 백성들의 고향을 쥐어짚으므로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다. 백성들은 궁예왕인 것을 확인하고는 다짜고짜로 몰려들어서 궁예왕을 때려죽이고자 하였다. 백성들이 양쪽 산 위에서 돌을 굴리기 시작했다. 양쪽에서 돌을 굴리니 오갈 데가 없었고, 궁예왕은 결국 돌덩이에 깔려 죽었다.

③ 석두생두(石頭生蠱) 설화: 석두생두는 ‘바위 위에 좀이 생기다’라는 말로서 궁예와 관련되는 다음의 이야기가 전승된다.

궁예가 장차 망하려 할 때 인심이 고려 태조에게 돌아갔다. 어떤 대신이 궁예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왕건에게 돌아가니 왕위를 그에게 넘기고 목숨이나 보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하였다. 궁예왕이 절대로 불가하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까마귀 머리가 희어지고 말에 뿔이 나면 왕위를 넘기겠노라.” 그런데 그 말을 한지 하룻밤이 지나자 궁궐 안의 말에 뿔이 나고 흰머리의 까마귀가 궁전 주위의 나무에 날아드는 것이었다. 대신이 말하였다. “까마귀의 머리가 희어지고 말에 뿔이 났습니다.” 궁예왕이 또 불가하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바위에 좀이 슬면 왕위를 넘기겠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자 궁궐 주변 십 리 안의 바위가 모두 좀이 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좀이 슬어 구멍이 난 것이 지금도 완연하다.

④ 궁예와 궁궐터잡기 설화: 철원에 궁예왕이 궁궐터를 잡을 때의 일이다. 풍수와 함께 철원을 돌아보고 다녔다. 그러다가 철원군 북면에 궁예왕과 풍수가 들어가 보니 천하의 궁궐터였다. 그런데 이곳에 궁궐터를 하려면 용상을 놓을 자리에 왕이 엎드려 있고, 풍수가 궁

꺾터를 돌며 선을 그어야 했다. 그때는 마침 7월이라 날씨는 몹시 덥고 해가 내리 썩어서 폭폭 찌고 있었다. 풍수는 궁예왕에게 용상을 놓을 자리에 얹드려 있으라고 하였다. 풍수가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절대 그 전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궁예왕이 그거야 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얹드려 있었다.

그러자 풍수는 쇠지팡이를 끌고 궁궐을 지을 곳을 표시하기 위하여 선을 그으며 돌아왔다. 그런데 아직 반도 못 왔는데, 학이 동서남북으로 후루룩 날아갔다. 그러니까 궁예는 날도 덥고 하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풍수가 꽤 용한 모양이라며 학이 나니까 좋은 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얼떨결에 궁예왕은 벌떡 일어난 것이다. 풍수는 “왜 일어나시오. 일어나지 말했는데.” 하고 외쳤다. 그러자 궁예왕은 “왜 일어난 게 뭐야! 학이 다 날아갔는데.”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학이 세 마리가 와서 앉아있었다. 앉아 있던 학이 한 마리는 금학산으로 날아가서 앉고, 한 마리는 봉학에 와서 앉고, 한 마리는 배학에 가서 앉았다. 그런데 알을 낳는데 운천에서 서쪽으로 곤암산으로 가서 알을 낳았다. 이때 금학산에 알을 낳았으면 태봉국이 300년 도읍을 할 수 있었는데, 곤암산에 알을 낳아서 30년 도읍지 밖에 안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풍수는 300년 도읍지를 곁에 두고 30년 도읍지에다 궁궐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3년간 금학산에 나무가 살긴 살아도 잎이 하나도 안 뾰다고 한다.

⑤ 궁예의 원혼 설화: 궁예가 부하인 왕건에게 쫓겨 가다가 삼방에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궁예의 무덤 앞을 말을 타고 가려면 말의 발굽이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말에서 내려 약간의 제물이라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야 했다. 제사를 지내면 붙었던 말굽이 땅에서 떨어져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길은 함경도 방면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어서 많은 길손들이 지날 때 마다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런데 어떤 짓곳은 함경도 감사가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타고 가던 말굽이 땅에 붙어서 말이 갈 수가 없었다. 감사는 화가 나서 타고 가던 말의 배를 장도로 찢어서 말 피를 사방에 뿌렸다. 그러면서 “고기 먹어라. 고기 먹고 싶어 하니 말 피나 실컷 먹어라.”고 외쳤다.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는 말굽이 절대로 붙지 않았다.

원래 귀신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이 말의 피라고 한다. 이곳을 지나는 길손의 말굽이 붙게 한 것은 원한 맺힌 궁예왕의 원혼이 원혼을 풀지 못해서였다고 전해진다.³⁷⁾

⑥ 궁예와 금학산: 궁예왕이 거기서 도읍할 적에, 아 여자가 그랬다나. 뭐 어떻게 되나. 금학산을 내다 보고 학산이 돼서 안됐다구. 해서 금학산 밑에 곤암산을 안을 삼았다구. 곤암산을 안을 삼으니까, 곤암산을 주름 잡구 금학산이 안이 되기 딱 맞는데 主山도 돌아갔을 것 아냐? 그 때 곤암산이 그저 보기 싫어서 저 강암리 이천까지 머릴 획 돌렸다는 것 아냐? 황새 모가지 같은 거, 그래서 시방 산세가 그렇게 된게야. 그때 금학산이 서러워서 삼년을 잎이 안퍼, 나무는 죽진 않았는데 잎이 안 퍼요. 그래서 이 철원을 미우고 생겼죠. 이 대궐터가. 그런데 그게 곤암산을 주루 삼고 금학산을 안을 삼으은 삼천 년 도읍을 내려갈 적에 난리가 나는 뱀이 없구 있는데 이 철원이 생긴 복원이 다래물, 구루물, 산우물, 원정,

37) 이 설화는 철원의 또 다른 설화인 갈현고개, 말고개 설화와 유사하다.

뭐, 뭐 물이 뗏이구 이상하게 생겼어요. 간음바리, 진바리, 녹음죽 또 바리능지국, 학이 금학, 봉학, 음학, 메학, 배학 이게 다 영웅이 나서 그 난리 한번씩 막을테레.

<1988년 6월 30일, 갈말읍 지포리, 안일봉(83세), 갈말읍 지포리 노인정에서>³⁸⁾

⑦ 궁예왕 이야기1: 옛날에 왕은 부인을 여럿 두었다. 궁예가 왕이 되니 욕심이 많아져서, 또 한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몇 백 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여우는 사람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러한 여우가 궁궐로 들어오니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비는 병이 나 드러누웠다. 왕이 용한 의사들을 다 불렀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궁에서 그런 일이 나니 이름 좀 알릴까 하고, 별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 한 사람이 '나는 잘 알지는 못하나 맥쫄은 안다'고 하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궁중에 가보라'고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병은 아닌데 꼭 사람 고기를 먹어야 나을 병'이라고 하였다. 또 '꼭 열세 살, 열네 살 정도 된 여자아이의 유방을 먹여야 한다'고 하며, '좀 힘들겠다'고 했다. 옆의 사람이 말했다.

“아! 힘들게 뭐가 있어.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들어.”

그래서 왕명이라면서 여자 하나를 빌려다가 가슴을 딱 베어 먹이니 왕비의 병이 나았다. 그리하여 이력저력 여섯 달이 지났는데, 왕비가 또 아프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꾸 여자아이를 잡아 먹이니, 4,5년이 지나자 사람이 무척 줄게 되었다. 그것도 꼭 열세 살, 열네 살 된 여자아이를 갖다 먹여서, 그때부터 일곱 살, 아홉 살에 시집가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집만 보내면 잡혀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왕건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죽이고 나면 나라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 군사를 일으켰다. 이에 궁예가 군사를 데리고 도망을 쳐서 여기에 있는 궁예성(포천시 창수면 중리)으로 왔다. 이 당시에 왕건에게 쫓겨 올라오면서 군사를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쌀 씻은 뿌연 물이 왕건 군사가 있는 곳까지 흘러내려 갔다고 한다. 거기에 성을 쌓는 동안에도 왕건이 자꾸 쳐들어오니, 궁예는 성만 쌓아 놓고 그곳에 하루만 머물고는 그냥 또 쫓겨갔다.

왕건이 또 계속 쫓아와서 도망간 데가 운천구에 있는 용해라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울음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울음산 저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함) 울면서 한탄을 했다. 그 결과 한탄강이 생겼다고 한다.

왕건은 궁예를 잡을 수 있었지만, 잘못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난 사람이 날까봐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추방시켰다. 궁예가 도망갈 때, 남자들은 돌을 쳐다주고 여자들은 돌을 날라와, 사람들이 그 돌맹이를 쌓아놓고 던졌다. 그래서 강원도 복개(철원에서 삼십리 쯤 되는 곳에 위치)라는 곳에서 돌무덤에 묻혀 죽었다.

그런데 왕건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역적이 된 궁예는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흐른 후에 고종 때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자고 하며, 만주를 침범해 그것을 나누자고 했다. 고종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 을사조약을 맺었다. 이 때 일본이 한국을 빌려달라고 해서, 서로 의형제를 맺은 것과 같으니 승낙을 했다. 그러자 일본은 인천, 부산, 원산으로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 무기를 확보했다. 그 뒤에 일본이 서울에서 원산까지 경원선을 닦는데, 철로가 복개를 지나면 길이 조금 구부러지고 능선을 끊으면 좀 가까웠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닦자, 일본인이 자꾸 이유 없이 죽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어떤 한 노인이

38) 철원군청 편, 『철원군지(下)-철원의 설화』, 1992.

말했다.

“거기 끊는 데가 어디 있다고. 그 앞에 그래도 일개 왕의 무덤이 있는데, 아무리 역적으로 죽었지만 거길 끊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수 밖에 없지.”

이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듣고, 그 중 한 사람이 일본인에게 고자질했다. 그러자 순경들이 나와서 그 노인을 붙잡으니까, 그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 말했다.

“길을 그렇게 닦지 말고 그 앞으로 다시 재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 당신들이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길을 다 닦고서 한 번 제사를 또 지내십시오.”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돼지를 잡고 제사를 지내고 길을 닦으니, 사고 하나 없이 원산까지 철도를 놓을 수 있었다. 기차가 서울부터 개통을 하는데, 복개라는 언덕에 와서는 올라가 질 못했다. 그때 다시 노인의 말이 생각이 나서, 궁예왕의 무덤 앞에다 제사를 지냈다. 한 번 절을 하고 일어나니까 잔에 부어 놓은 술이 없어졌다. 절하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쳐다 보니 술이 없어지니까, 또 한 잔을 부어 놓고 절을 했다. 그랬더니 또 부어 놓은 술의 반이 줄었다. 계속해서 술 석 잔을 다 올리니 맨 끝의 잔은 그냥 흔들리기만 하였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자, 노인이 음력으로 시월 보름날이면 잊지 말고 제사를 지내주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인에 의해 후대에 와서 궁예왕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궁예왕은 역적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제사를 못 얻어먹고, 일본인이 기차를 개통하는 바람에 제사를 얻어먹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은 '한번 지냈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해,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니 또 기차가 가지를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인들은 8·15 해방 전까지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 제보자 : 김한길, 1995. 8. >³⁹⁾

⑧ 궁예왕 이야기2: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자 미륵불이라 자칭하며, 머리에 금색 모자를 쓰고, 몸에 승복을 입고, 맏아들을 청광보살, 둘째 아들을 신평보살이라 불렀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항상 백마를 타고 채색 비단으로 말갈기와 꼬리를 장식하고, 동남동녀로 일산과 향화를 받들게 하여 앞에서 인도하고, 또 비구(比丘)200여명으로 범패를 부르면서 뒤를 따르게 하였다.

또 경문 20여권을 자술하여 강설하기도 했는데, 석총이 그것을 사설이라 지적하자, 궁예는 노하여 철퇴로 석총을 때려 죽였다. 궁예가 이렇듯 비법을 자행하므로 부인 강씨가 간하자, 궁예는 오히려 자기가 독심술이 있다 하며, 강씨에게 간통의 누명을 씌워 무죄 방망이를 열화에 달구어서는 그녀를 처서 죽이고, 두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렇듯 의심이 많고 잔인무도했던 궁예 때문에 여러 보좌관과 장수, 관리는 물론 양민들도 죄 없이 죽어 갔다. 이리하여 민심은 흉흉해져서, 마침내 궁예에게서 떠나고, 그때 시중이었던 왕건을 새 왕으로 옹립하자는 소리가 높았다.

마침내 태봉국 정개(政開) 5년 6월에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등 네 장수가 왕건을 찾아가, 궁예를 폐하고 왕위에 오를 것을 권장했다. 왕건은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으나, 이 네 장수와 부인 유씨의 간청으로 마침내 거사를 결심하니 따르는 군사와 백성이 구름 떼와 같았다.

한편 궁예가 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평북 차림으로 도망해서 명성산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이 때 왕건군이 명성산 뒤쪽을 포위하자, 궁예군은 대부분 명성산 앞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궁예는 북쪽으로 간신히 도망쳐 부양(지금의 평강)에 이르렀으나, 얼마 후에 그곳

39) 이하 궁예왕 이야기1·2·3은 정인섭, 『한국의실화』,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32~35쪽 참조.

백성들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이 때 미처 도망하지 못한 궁예의 군사와 그 일족들은 온 산이 떠나가도록 울었다 하여, 이 산을 울음산, 곧 명성산이라 한다고 전해진다.

⑨ 궁예왕 이야기3: 궁예가 가평 현등산에 천연의 요새를 친 뒤 왕건의 공격을 막아내다 이 산에서 죽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 궁예의 무덤은 철원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다고 한다. 삼방역이라는 곳인데 궁예가 나무에 기댄 채 미동도 않자, 왕건의 수하들이 확인한 결과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한다. 죽음조차 서서 맞이한 그의 주검 위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궁예와 관련이 있는 이곳의 이름은 여러 개가 전해진다. 강사골, 티나무골, 보라골, 서령골이 그것이다. 강사골은 강한 군사를 배치한 데서 유래하고, 티나무골은 대전투의 치열함에서, 또 보라골은 왕건의 군사를 견제하려 했음에서 유래된 이름들이다. 마지막으로 서령골은 나라가 망했음을 궁예의 군사들이 한탄한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궁예가 해동궁을 세운 후 어렵게 쇠기둥을 세웠는데 드나들 때마다 만지면서 “야! 이 기둥은 천 년 만 년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궁예가 신하들에게 무슨 이유로 이 쇠기둥을 세웠느냐고 물으니, 간신이 대답하였다.

“왕께서 이 쇠기둥처럼 썩지 않고 천 년 만 년 군림하시라고 지었습니다.”

궁예가 그 간신을 둘도 없는 부하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 말을 신임했다. 하루는 궁예가 그 간신에게 “그럼 내가 천 년 만 년 왕 노릇을 하려면, 천 년 만 년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천 년 만 년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 간신이 대답하였다.

“왕께서 새로운 처녀장가를 자주 드시면 그 젊은 사람의 기를 타서 천 년 만 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예는 포천, 철원 일대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끌어다가 궁녀로 삼았다. 궁예가 쇠가 아닌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간신의 말만 믿고 포악한 정사를 하던 궁예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왕건에게 크게 지고 나서 도망을 가다가 하연리, 지연리라는 데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농부들이 가래질을 하다 말고 가래로 도망가는 궁예를 찔러서 죽였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근처의 난전터 역시 궁예가 나라의 망함을 한탄해 하면서 정성스레 지은 것이라 전해진다.

< 제보자 : 이현문, 2000. 9. 22. >

⑩ 비극의 왕자 궁예 설화: 중오절(단오) 한 후궁이 그녀의 친정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내였다. 그때 지붕 위에 하얀 빛이 있어 마치 긴 무지개와도 같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이러한 이변을 본 일관이 그날로 왕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상한 빛이 감돈 것으로 보아 장차 국가에 이롭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 두려우니, 마땅히 이 아기는 기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관의 이 말을 믿은 왕은 사자에게 명령을 내려 그 집에 가서 그 아기를 죽이도록 하였다. 후궁의 집으로 달려간 임금의 사자는 강보에 싸인 아기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다락 아래로 던져 버렸다. 이때 이 집 유모가 몰래 다락 밑에 숨어 있다가 떨어져 내려오는 아기를 얼른 받았다. 받을 때 잘못하여 유모의 손가락이 눈을 찔러 아기는 그만 애꾸눈이 되었으나 목숨만은 건질 수가 있었다. 유모는 아기를 안고 허둥지둥 도망쳐 멀리 시골로

숨어 버렸다.

그 후 유모는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아기를 양육했다. 시골로 세상의 눈을 피해 숨은 유모 밑에서 커가던 궁예는 어느덧 나이가 10여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유모의 뜻도 모르는 듯 장난이 심하여 그칠 줄 몰랐다. 유모는 어느 날 궁예를 불러 앉히고 숨겨온 과거를 털어 놓았다.

“도련님은 왕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난 고귀한 신분이요. 그렇건만 임금님은 도련님을 없애 버리려고까지 했었소. 그래서 내가 유모로서 도련님을 구하여 안고 도망쳐 나와 오늘에 이르도록 숨겨 길러온 것이요. 그런데 도련님은 장난이 도를 지나칠뿐더러 갈수록 더욱 심해 지기만 하니 한심스럽소.”

유모는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어머님! 잘 알았습니다.”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어린 궁예는 왕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유모와 작별하고 곧 집을 떠났다. 그 길로 절에 들어가 중이 되어 법호를 선종(善宗)이라 하였다. 궁예는 몇 년 동안 절에서 중들의 시중을 들면서 맏힌 한을 풀기위해 힘을 길렀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재(齋)가 있었다. 그는 바로 바리때를 들고 법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날아가던 까마귀가 입에 물고 있던 쪽지를 바리때 안에 떨어뜨리고 날아갔다. 그는 이것을 집어 보았다. ‘왕’자가 쓰인 첩서였다. 그는 첩서를 품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장차 한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을 스스로 자부하고 절을 떠나 나라를 세울 일에 나섰다 한다.

2) **관련 전설**

① 김응하 장군의 출생설화: 김응하 장군은 금학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금학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것은 오직 요동백인 김응하 장군 뿐이었다. 김응하 장군이 태어나기 전에 금학산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주 큰 이심이가 금학산에서 나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나무꾼이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큰 짐승이 몸을 감추지 않고 나와서 된다고 의아해 했다. 아주 오랫동안 이심이가 그렇게 몸을 감추지 않고 날뛰었다.

이심이가 날뛰는 것을 보다 못한 사냥꾼이 활을 가지고 가서 이심이를 화살로 쏘았다. 이심이는 화살에 맞자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그런데 이심이가 몸을 뒤틀고 죽으면서 입을 딱 벌리니까, 죽은 이심이의 입에서 굴뚝새만한 새가 한 마리 나왔다. 그 굴뚝새만한 새는 이심의 혼이었다. 그 새는 이심이의 입에서 나와 어디론가 날아갔다. 그래서 사냥꾼이 그 새를 쫓아갔다. 새는 소가 교미하는 데로 가서 들어갔다. 그래서 사냥꾼이 소를 한 대 때리니까, 새가 나와 가지고 또 날아갔다. 날아가다가 개가 교미하는데 가서 들어갔다. 또 사냥꾼이 개를 때리니까 새가 나와서 날아갔다. 새는 또 어떤 여염집의 안으로 들어갔다.

그 여염집에는 두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 늙은이는 낮에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낮더니 갑자기 동침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두 늙은이는 대낮에 동침을 하게 되었다. 막 두 늙은이가 동침을 끝냈는데, 그 사냥꾼이 뒤쫓아 왔다. 사냥꾼이 그 새를 쫓아서 오니 그 새는 분명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집은 조그만 오막살이인데, 사냥꾼이 와서 주인을 찾았다. 그랬더니 머리가 하얀 늙은이가 나왔다. “왜 찾습니까?” “뭐 물어볼 일이 있어서 찾습니다. 영감님, 저 মানুষ라하고 동침한 일이 있습니까?” 늙은이는 부끄러워서 “아 무슨 소리요. 대낮에 그럴 리가 있어요?” 하였다. 그러자 사냥꾼은 “안 했으면, 동침을 하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냥꾼은 “아, 됐어. 다행히 사람

에게 갔으니까, 천하영웅을 낳을 것입니다.” 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이십이의 혼이 두 늙은이에게 들어가서 요동백 김응하를 낳게 되었다.

② 김응하(金應河) 장군의 정화(情話) 설화: 김응하 장군이 스물네 살 때의 일이다. 그는 이 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사냥에 나서 철퇴로 한 마리의 곰과 이어 표범 한 마리를 잡고 난 후였다. 곰에서 웅담을 꺼내고 표범의 가죽을 벗겨서 짐을 챙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무꾼을 만났다. “여보 젊은 양반! 이 고개를 넘어가면 무서운 땡초 소굴이 있소. 그놈들은 먼저 사람을 죽여 놓고 나서 물건을 빼앗는 잔인한 놈들이니 정심을 바짝 차리시오.” 하고 일러 주었다.

나무꾼이 말하는 땡초라는 무리는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이 산중에 모여 절을 점령하고 중인 척 속여 낮이면 동냥을 다니고 밤이면 도적질을 하는 불한당의 무리였다. 이 말을 들은 응하는 속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었으나 나무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짐을 짊어지고 고개 아래 마을에 들어섰다. 날이 저물어 응하는 이 마을의 한 조출한 기와집 문간에다가 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다. 주인은 근심에 찬 얼굴로 “오늘 밤에 우리 집에는 도둑떼가 오게 되었소. 만일 낮선 사람이 그놈들 눈에 띄었다가는 당장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아예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하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도둑떼가 온다구요?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내가 다 막아 드릴 터이니 저녁밥이나 두둑이 먹여 주시오.” 하고 청했다. 그러나 주인은 “공연히 젊은 목숨을 귀신도 모르게 잃지 말고 일찌감치 피할 도리나 생각하시오.” 하고 응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난 응하는 집에서 표범가죽과 웅담을 꺼내 이것을 모두 자기가 때려잡았다고 보여주었으나, 이것 역시 믿으려 하지 않았다. 슬그머니 화가 난 그는 마당가에 있는 반아름이나 되는 배나무를 두 손으로 거머쥐고 용을 쓰자 배나무는 뿌리 채 뽑아졌다. 또한 옆에 있는 바위를 후려갈기니 배나무가 두 동강으로 부러졌다.

이 광경을 본 주인은 응하가 천하장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사랑방)으로 맞아들여 상좌에 앉히고 주안을 대접하며 자기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는 원래 경기도 가평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가 곧 눌러 살게 되었다는 것과 자기에게 조카딸이 있다고, 들려주었다.

조카딸은 서울 재상 집안의 금지옥엽 같은 귀여운 딸로서 병을 요양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자기 집에 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절색이라 소문은 곧 산 너머에 있는 땡초떼의 두목 마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달은 그녀를 자기의 셋째 첩으로 달라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한 달 전에 조카딸이 데리고 온 몸종을 거짓 조카딸로 꾸며 마달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던지 마달은 그 눈치를 채고 바로 오늘밤 진짜 신부를 곱게 단장시켜 신방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집안 식구를 모두 죽여서 분을 풀겠다고 전해 왔다는 것이다. 조카딸은 도적 괴수에게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몇 번이나 자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죽더라도 신방에 들어서 도적에게 얼굴이라도 보이고 죽어야 집안에 책망이 돌아오지 않겠으니 제발 다른 식구들의 목숨을 위해서 신방에 들어가라고 타일렀다. 그리하여 마침 조카딸을 신방으로 들여 보내 놓고 지금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일장 설화를 듣고 난 응하는 치밀어 오르는 의분을 감출길이 없어 자기가 대신 신부노릇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술을 반동이나 마시고 나서 신부 방에 들어가 옷통을 벗고 불을 끄고는 깔아놓은 비단 이불에 누웠다.

이윽고 대문 밖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안 있어 쿵하고 마루에 올라서는 소리가 났다. 마달이 온 것이다. 마달은 방에 들어서자 응하를 신부인 줄 알고 달려들었다. 응하의 쇠뿔치 같은 손이 마달의 목살을 잡고 주먹이 올라갔다. “어이쿠! 이년이 사람 잡는 구나.” 마달은 젖 먹던 힘을 다하여 몸을 빼려하였으나, 어느 틈에 도적의 배를 타고 앉은 응하는 돌덩이 같은 주먹으로 동네 북치듯 함부로 마달을 들이쳤다. 응하는 몸을 일으키며 닥치는 대로 마달의 패거리를 때려 뉘이니 마당에는 열댓 명이나 되는 땡초가 즐비하게 쓰러졌고 마달은 틈을 타서 슬그머니 도망해 버렸다.

이에 응하는 신방에 불을 켜놓고 주인이 차려온 술과 고기를 양껏 먹은 후 부드러운 비단 이불 속에서 하루를 편안히 지냈다. 응하는 날이 새자 주인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러자 주인은 펄펄 뛰며 응하를 붙드는 것이었다. “괴수 마달은 도망하였고 십여 명의 졸개가 혹은 죽고 병신이 되었으니 그 놈들이 필연코 원수를 갚으러 올 터인데 만일 임자가 떠난다면 우리 집은 아주 썩밭이 되고 말 것이 아니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 식구를 살려 주고 떠나야겠소.” 하고 떼를 쓰고 매달리는 것이었다. 이려고 보니 박절하게 잡아 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우선 주인을 안심 시켜놓은 응하는 그날 밤으로 도적의 소굴인 화엄사를 들이쳐서 잡혀 간 몸종도 찾아오고 또 그 절의 본 주인이었던 스님들도 구해주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날 밤 느지막하게 응하는 철퇴를 차고 뒷산을 넘어 화엄사에 도착하니 때는 거의 자정이었다. 마달은 마침 집 주인 조카딸의 몸종을 끼고 있었고 다른 패거리도 여자들을 끼고 자고 있었다. 응하는 호통을 치면서 철퇴를 휘두르며 도적들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여러 방에 흩어져서 자던 땡초들은 제각기 낫과 도끼와 창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 나와서 응하를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창끝에 가슴팍이 파산적처럼 꿰어졌을 것이지만 상대방이 천하장사 김웅하인지라 펄쩍 뛰어 몸을 반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내려오면서 발길로 두 놈을 냅다 차니 쿵하고 마당 가운데 나가 떨어져서 그대로 뺨어버렸다.

이 광경을 본 땡초들은 그만 겁에 질려 달려들지 못했다. 응하는 단숨에 여러 도적을 때려 뉘었다. 도적의 소굴을 단신으로 소탕한 응하는 절에 불을 지르고 땡초 두목의 방으로 가서 몸종을 등에 업고 마을에 내려왔다. 응하는 몸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이튿날 일찍이 주인에게 하직을 고했다. 그러자 주인은 응하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인도하여 그를 융숭히 대접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자기의 성은 본시 한(韓)씨로 일찍이 과거를 하여 양주군수를 지냈다. 조카딸은 인목대비의 부친 되는 영흥부원군 김제남의 손녀였다. 광해군이 간신 이이첨, 정인홍 등의 참소를 듣고 김해 부원군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후 다시 그 집안 남녀노소를 깡그리 잡아다 죽이거나 혹은 관비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겨우 몸을 피한 조카딸은 다만 몸종 하나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해 오게 되었다. 죄인의 몸이라 드러내 놓고 상당한 가문에 시집가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마침 응하의 용맹을 보니 멀지 않아 국가에 큰 공을 세워 이름을 조야에 떨칠만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조카딸을 위험에서 구해주었으니 이 역시 인연이라 아주 오늘로 작수성례를 한 후 고향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응하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 하며 굳이 사양하였으나 주인은 끝내 듣지 않고 그날로 비밀히 성례를 시킨 후 응하를 신방으로 몰아넣어 버렸다. 신방에 들어간 그는 눈을 들어 단정히 앉은 신부를 살펴보았다. 비록 열여섯 살이라고 하지만 의젓하고 단아하여 예법 있는 양반의 규수가 분명할 뿐 아니라 용모 또한 아름다웠다. 응하는 기

뿐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신부의 손을 잡고, “색시는 서울 재상 집안에서 자라난 금지옥엽 같이 귀한 몸이요, 나는 시골의 미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오늘날 이와 같이 부부의 연분을 맺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수에 맞지 않을 것 같소.” 하고 털어 놓았다. 그러자 규수는 “만사가 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닙니까. 하물며 도적에게 꼭 죽게 된 몸을 구해주신 은혜를 생각하오면 일생을 두고 받들지라도 다 갚지 못할까 하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응하는 현재로서는 변변치 못한 자기를 낭군으로 섬기려는 그녀가 고맙기 이를 데 없었다. 신방을 한씨 집에서 보낸 응하는 나흘째 되던 날 신부와 그녀의 몸종을 데리고 형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응담과 호피를 판 돈으로 따로 집 세 칸을 장만하여 동생까지 네 식구가 단란한 신접살림을 시작하였다 한다.

③ 김응하 장군 사망과 혼령 모셔오기 설화: 요동백 김응하 장군이 만주에서 죽었다. 적의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맞고 죽었는데, 버드나무에 기대서서 쓰러지지 않은 채로였다.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호국(오랑캐)들조차도 요동백의 넋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요동백의 넋을 위로하려고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제물을 서 있는 요동백의 시신 앞에다 차려놓고 절을 하였다. 그때 용천검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버드나무에 기대서 있던 요동백의 시신이 쓰러지면서 제사를 지내던 호국놈 몇을 죽였다. 용천보검이 호국놈의 목을 내리친 것이다. 요동백은 죽어서도 호국놈의 목을 잘랐다고 한다.

요동백이 죽은 후에 그 자손들이 요동백의 죽은 곳을 찾았다. 그러나 이미 세월은 흘러 요동백의 시신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곳에 요동백의 죽음을 기리는 비석이 돌각담에 외로이 있을 뿐이었다. 무덤들이 있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자손들은 요동백의 혼령이나마 모셔오고자 하였다. 자손들은 혼백함을 만들어 들고 “장군님 가십시오. 할아버지 가십시오.” 하니까, “오냐, 가자, 가자” 하였다.

그런데 오면서 “오십니까?” 하니, “응. 온다.”는 소리가 공중에서 났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백을 앞에 놓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는데 오셨습니까?” 하니까, “왔다”고 그러더니 그 위에 한걸음 올라가니까 또 안 보였다. 그래서 내려서서 “오셨습니까?” 하니, “오냐, 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땅을 파고 요동백을 모셨다. 그러니 혼령만 모시고 와서 무덤을 쓴 것이다.

④ 김응하 장군 버들 설화: 청나라에 가는 우리 사신들 가운데 무인들은 일부러 요동 심하로 먼 길을 돌아 부차령을 넘는 것을 하나의 무도로 알았다. 그 잣마루에는 '장군버들'이라고 불리는 큰 나무가 있었다. 이 거목 앞에 엮드려 장군의 넋을 초혼하면 그 장군의 용맹이 제 몸에 옮겨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장군버들을 꺾어 품에 넣어도 용맹스러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장군버들가지를 몸에 지닌 무인들은 혼장을 가진 것보다 명예로 알았고 또 선망을 받았다. 연행 길에 장군버들을 꺾어 바치면 무인에게는 더 없는 선물이 되었다. 그래서 연행 길에 나서는 장군들은 일부러 먼 길을 돌면서도 부차령을 넘어 그곳에 있는 장군버들을 꺾어 몸에 지니고 갔다. 이와 같이 용맹의 샘이 된 장군버들이 지닌 주력의 주인공이 바로 김응하 장군이다.

부차령에서 6만 명의 적병에게 포위된 김응하 장군은 그 버드나무를 방패로 버티고 서서 단신으로 항전을 하였다. 이때 김철현이라는 통인만이 몸집이 거대한 장군의 투구 속에 숨

어서 화살을 집어 주었다. 장군은 일시삼살(一矢三殺)의 활 솜씨로 꼭 일주야를 버텼다. 이러는 동안 그 버드나무의 주변은 시체가 성처럼 쌓였다. 장군은 화살이 다하자 쫓아 오르는 적과 칼로 싸우고 칼이 부러지자 자루만으로 싸웠다. 장군은 칼자루만 남은 칼로 싸우다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전사한 그의 몸에는 10여 개의 창과 수십 개의 화살이 꽂혔다고 한다.

⑤ 김응하 장군의 유서를 물고 온 용마: 조선 광해군 때 조선은 명과 연합하여 청나라를 공격한다. 이때 김응하 장군은 부원수가 되어 만주 건주위정벌에 나선다. 그러나 도원수 강홍립의 배신으로 그는 홀로 오랑캐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된다. 전사할 당시 김응하 장군은 자신의 옷에다 유서를 써서 애마로 하여금 고향에 전하게 했다. 그의 말이 유서를 물고 요동별판과 압록강을 지나 평안도를 거쳐 강원도의 장군 고향까지 와서 유서를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후 말은 복讞에 묻힌 장군을 그리며 굶어 죽었다고 한다. 장수의 억울한 죽음과 절개를 지킨 용마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전설의 소재로 즐겨 이용되어 왔다. 이 전설 역시 이러한 이야기 소재에 김응하라는 역사적 인물이 합쳐져 탄생한 설화로 보인다.

⑥ 김응하 장군의 무예 터였던 칠만암: 칠만암은 양지리의 남쪽에서부터 대위리 까지 한탄강 줄기에 놓인 7만개의 바위를 말한다. 대위리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조선 중기의 명장 김응하 장군은 14세 때 전염병으로 양친을 잃은 후 동생 김응해와 함께 칠만암에서 무예를 익히며 성장했다고 한다.

⑦ 칠만암과 관련된 김응하 장군과 용마: 김응하장군이 아직 무과에 급제하기 이전의 일이다. 고향인 하갈리에서 매일같이 무예를 연마하고 있던 어느 날, 장군은 그가 타던 말의 용맹을 시험하기로 했다. 장군은 자기가 아끼는 말에게 이르기를 “이제 내가 쏜 화살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그곳에 달려가 입으로 화살을 받아라. 만일 받지 못하면 너를 한 칼로 쳐 죽일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장군은 말을 탄 뒤 활의 시위를 힘 있게 당기고 말을 몰았다. 말이 뛰다가 멈춘 곳은 칠만암 바위였다. 장군이 말 위에서 보니 말은 멈춰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날아오지 않고 있었다. 장군은 화살이 먼저 날아가 버린 줄 알고 노한 나머지 허리에서 장검을 뽑아 “너같이 느린 말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외치면서 말의 목을 쳤다.

그러나 목 잘린 말이 바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돌아서려는 순간 화살이 말의 궁둥이에 꽂혔다. 세차게 달려와 바위위에 섰던 말굽자리에는 슬프게 죽어간 발자국만이 지금도 남아 있다 한다.⁴⁰⁾

3) 관련 설화

① 김시습과 조씨 묘터: 김시습은 초막골이라는 산골짜기에 와서 초당을 짓고 숨어서 살았다. 거기서 전나무 지팡이를 짚고 고갯길을 넘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조씨네가 김시습에게 뒤통자리를 잡아달라고 하였다.

김시습이 뒤통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은 제비형국이었다. 그러면서 이 뒤통자리는 금시발복 터라고 하였다. 조씨네가 착하게 살지만, 하도 가난하니까 김시습이 그렇게 좋은 자리를 잡

40) 안동김씨대종회 제공 자료(www.andongkimc.kr/kimeungha.htm) 참조

아 준 것이다.

조 씨네는 그곳에 부모를 안장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와 보니, 초가삼간이 너무 넓아서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래서 기둥을 일으켜 세우면서 땅 밑을 보니 웬 향아리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 향아리를 열어보니 향아리 속에는 금이 가득 들어있었다. 조씨네는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한다.

② 김시습과 구은사(九隱祠) 설화: 매월당 김시습은 생육신 중의 한 사람이었다. 단종손위 사건이 있는 후 살기 위해서 철원에 들어와서 숨어 살았다. 그런데 그때 김화에 밀양 박씨가 많이 살았다. 그런데 마땅한 터가 없어서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하고 다들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김시습이 이곳에 오니 자신들이 살터를 잡아달라고 하였다.

김시습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박씨들이 집단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녔다. 그렇게 다니다가 사구문이라는 데를 찾아들었다. 그곳에 가보니 가히 여러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시습은 박 씨들한테 이곳에 터를 잡고 살도록 했다.

박씨들은 김시습의 영향을 받아서 생육신과 뜻을 같이 했다. 그래서 청룡포에 귀양 가있는 단종임금을 모시고 여기 와서 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의치 않아서 결국 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김시습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때 박씨들은 이곳에 숨어사는 사람이 8인이었다. 김시습까지 하면 9인이 되었다. 그래 9명이 이곳에 숨어 살았다고 해서 ‘구은(九隱)’이라고 했다. 박씨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구은사라는 사당을 세웠다. 이 사당은 6·25전쟁 때 모두 불에 탔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허허벌판이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복이 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되어서 사당을 다시 지었다. 그리고 매년 춘추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4) 설화

① 왕건의 탄생과 도선(道詵): 도선은 처음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나라의 괴승 일행에게 신술을 배웠다고 한다. 도선이 본국으로 돌아오려 할 때 일행은 도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듣자니 삼한의 산수가 자기 나라를 등지고 밖으로 배치된 곳이 많은 까닭에 조그마한 땅인데도 삼한으로 나뉘어 있어 병화가 자주 일어나며 또 여러 차례 변란이 생기고 있으니 그 이유는 산과 물의 혈맥이 조화되지 못한 때문이요, 내가 장차 삼한으로 하여금 태평한 나라를 만들고 삼한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한 백성이 되게 해 줄 것이니 그대 나라 산수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오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나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요” 도선은 이 말을 듣고 즉석에서 삼한의 산수를 그려서 일행에게 바쳤다. 일행은 이것을 보고 나서 “산천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겠소.” 이렇게 말한 일행은 그림에 3,800곳에 점을 찍고 다시 말했다.

“사람이 급한 병이 있으면 그 혈맥을 찾아서 침도 놓고 혹은 뜸질도 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요.” 일행은 다시 계속해 말했다. “그대 나라 푸른 나무 밑에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년에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은 장차 삼한을 통일할 주인공이 될 것이요. 그대는 고국에 돌아가거든 이 사람을 꼭 찾아보도록 하시오.”

도선은 본국으로 돌아오자 500곳에 절을 짓고 나서 일행이 말한 대로 푸른 나무 밑에서 사는 사람을 두루 찾았다. 그랬더니 과연 푸른 나무 밑에는 왕룡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왕릉은 이때 마침 자기가 살던 옛집에 새로 터를 잡아서 집을 지으려 하고 있었다. 도선은 그를 보고 말했다. “벼를 심어야 할 땅에 왜 삼을 심으려 하시오?” 도선은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대로 가 버렸다. 왕릉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전했다. 왕릉은 급한 걸음으로 도선의 뒤를 따라가서 그를 만났다. 그들은 처음 인사를 했는데 마치 백년지기 같았다. 이에 그들은 두 사람은 함께 곡령에 올라가서 산수를 둘러보았다. 도선이 말했다. “이 땅의 혈맥이 백두산으로부터 수모목간(水母木幹)을 타고 났으니 마땅히 물의 흐름을 쫓아서 집을 지어야 할 것이요. 또 집은 삼십육 칸 집을 지으면 천지의 큰 운수에 부합되어 명년이면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꼭 건(建)이라 해야 좋을 것이요.” 왕릉은 이 말을 명심하여 도선이 시키는 대로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랬더니 과연 그달부터 아내는 태기가 있어 후일의 고려 태조 왕건을 낳았다. 왕건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도선이 다시 찾아왔다. 도선은 왕건을 청해 보고 말했다. “그대는 일백 육의 운수를 타고 또 이름난 터에서 났으니 이 말세의 창생들은 그대의 손으로 구제받기를 기다리고 있소.” 도선은 말을 마치고 군사를 거느려 진을 치는 법과 천시와 지리에 대한 이치를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이때 태봉의 모든 장수들은 궁예의 어지러운 정치를 미워하던 터라 왕건은 맞아 임금으로 삼고 도선을 국사로 봉했다고 한다. 이리하여 마침내 후삼국은 통일되어 고려의 큰 나라가 이룩되었다 한다.

② 병산(柄山)과 김덕령(金德齡) 설화: 평강군 고삼면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며 호익장군이라고 시호를 받았던 김덕령의 고가가 있었다 한다. 어느 포수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금학산에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대사가 있었다. 포수는 대사를 사냥감으로 오인하여 얼떨결에 총을 쏘았다. 원래 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에 총알은 하늘로 날아갔다. 그러나 길을 가던 대사는 바로 옆에서 날아오는 공포에 깜짝 놀랐다. 대사가 공포에 놀라 아찔 하자, 대사의 머리에서 웬 나비가 한 마리 나와 날아갔다. 포수는 그 나비를 따라 갔더니, 나비가 평강군 고삼면에 있는 병산 기슭의 오두막집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덕령의 부모는 마침 잠자리를 함께 하고 있던 중이었다. 날아가던 나비는 덕령에게 들어갔던 것이다. 그로부터 덕령의 어머니는 아기를 배었고, 달이 차자 덕령을 낳았다. 덕령은 철원에 있는 금학산의 정기를 받아 명종 22년 이 초막에서 태어났다. 원래 금학산은 그 정기가 대단하여 이름 있는 장군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⁴¹⁾

③ 금학산과 곰취: 궁예가 송학으로부터 도읍지를 철원으로 정할 때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설에 의해 궁궐터를 정하였다. 이때 금학산을 진산으로 하고 궁전은 천황지에 도성은 만가대 쪽에 정하면 금학산의 정기를 받아 300년을 통치할 것이며, 만일 고암산을 진산으로 하면 25년 밖에 못갈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도선국사의 예언을 듣지 않고, 궁예의 고집으로 금학산을 진산으로 정하지 않아 18년 통치 끝에 멸망하였다. 그랬더니 금학산은 크게 노하여 3년간을 울었다 한다. 그 결과 산은 3년간 초목에 싹이 나지 않았다. 또한 산의 정기가 노하여 금학산과 이 산에서 바라보이는 주위 산에 자라는 곰취는 맛이 매우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이 산의 곰취는 맛이 써서 그냥 먹을 수 없고 삶아서 여러 날 우려내야 먹을 수 있다 한다. 당시 도선국사에 의해 명명된

41) 철원문화원 편, 『철원향토지』, 2000, 305쪽.

지명들인 이장죽, 초장죽, 장죽, 만호대(만가) 등이 그 유래와 함께 아직까지 전하고 있다.

④ 삼부연 기우제 설화: 삼부연은 철원 팔경의 하나로 주변의 기암절벽과 함께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신라의 국력이 쇠잔해질 무렵 궁에는 철원에 도움을 정하고 국호를 태봉이라 정했다. 그 당시 삼부연에서는 도를 닦던 용이 두 쌍이 있었는데, 두 쌍 중 3마리는 정한 시기에 도를 닦아 삼부연의 기암절벽을 뚫고 승천하였다. 그때 생겨난 연못이 지금의 삼부연이라 한다. 그러나 3마리가 승천을 할 때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 한 마리가 계속해서 그 연못에 살게 되었는데, 이 이무기가 심술을 부려 비를 못 오게 해서 이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푸짐한 제사를 차려놓고 정성껏 빌면서 비가 오기를 기원하였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자 다음과 같은 사연이 깃들게 된 것이다.

하늘에선 벌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이제는 논에 댈 물은 고사하고 먹을 물조차 떨어질 판이라 마을 사람들은 거의 환장을 하다시피 되어 매일 하늘만 원망했다. 삼부연 연못도 말라버려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다. “하늘도 무심하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늘을 원망하는 말을 주고받게끔 됐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다가도 자기들의 정성이 모자라 하늘이 비를 안 내려주는 것으로 믿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여 푸짐한 음식을 차리고 밤새도록 제를 지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전히 구름 한 점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다. 이젠 아주 낙심이 되어 마을을 떠나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 마을에는 제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하여 일을 주선하던 젊은이가 있었다. 이 젊은이는 정성을 다 바쳤기에 거기에 반비례해서 오는 아쉬운 마음도 컸다. “정말 하느님이 있다면 우리의 정성을 몰라줄 리가 있는가. 마을사람들의 정성만을 그냥 받아먹는 저 놈의 연못을 내가 메워 버려야지.”

이런 말을 뇌까린 젊은이는 마을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달음에 삼부연에 달려갔다. 그는 솔처럼 생긴 연못 옆에 우뚝 서 있는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 바위를 깨뜨려 연못을 메우려는 심사에서였다. 젊은이가 바위를 깨 연못에 집어넣기 시작하자 금시에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벼락이 내리쳤다. 그 벼락에 젊은이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는 연 사흘간 소나기가 쏟아졌다. 이 소나기 덕택에 메말랐던 대지는 목을 축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삼부연에 찾아가 그 바위 위에서 제를 지내고 돌을 주워 연못에 던진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기우제를 지내던 그 바위를 기우암(祈雨岩)이라고 부르며 기우제를 지낼 때는 연못 안에 돌을 집어 던진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곳 삼부연의 기우제는 제사를 차리고 기원을 한 후에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연못에 던지는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우제는 1961년에 마지막으로 행해졌다. 지금 기우제를 지내지 않는 것은 1960년대 용화저수지가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용화저수지를 만든 후부터는 어지간히 가뭄이 들어도 저수지 물로 논에 물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갈현(葛峴) 서낭당 설화: 예부터 갈현고개 서낭당은 영험이 있어서 정성을 들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언젠가 인근 고을의 주민들이 정성을 드리고 있을 때, 마침 한 양반이 말을 타고 이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 때 정성을 드리던 노인이 예라도 올리고 가라고 하니 양반이 오히려 사람들을 꾸짖고 그대로 지나려 하자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

지지 않았다. 양반은 놀라서 말에서 내려 정성을 올리니 말발굽이 마침내 떨어졌으며, 그 자리에는 붉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서낭당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예를 드리고 갔다고 한다. 이 설화를 기리기 위해 백자기로 만든 백마 두 필이 세워졌는데, 6·25사변 때 없어졌다. 위의 기록에 보이는 ‘말발굽이 떨어지지 않은 이야기’와 비슷한 설화가 『향토지(철원)』에도 한문으로 실려 있다.

⑥ 금돼지와 원

김화 뒷산에 금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금돼지는 평소에는 황금빛이나 사람이 접근하면 여러 짐승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은 물론 사람으로도 변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금돼지의 행패가 심하여 걱정을 하던 고을 사람들은 고을 원에게 진정을 했다.

“원님, 고을에는 황금빛을 내는 산돼지가 나타나서 가축과 아기를 물어가는 등 행패가 심하오니 금돼지를 처치해 주십시오.”하였다. 이 말을 들은 원은 자기가 직접 금돼지를 잡으러 굴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선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한다. 내가 기어이 그 금돼지를 잡아야지’ 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잡을 자려고 하는데 살그머니 방문을 여는 사람이 있었다.

원은 하인이 무례하게 방문을 여는 줄 알고 점잖게 꾸짖으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여인이었다. “소첩은 무례함을 무릅쓰고 원님을 찾아 왔습니다. 저는 이 고을의 청이라는 기생이옵니다.”

그녀의 미모는 뛰어났다. 원은 자연 마음이 동했다. 그녀는 자기 집에 원을 위해 주안상을 마련해 놓았으니 자기의 집으로 가기를 간청했다. 원은 그만 금돼지를 잡을 생각도 잊고 그 여인에게 마음이 끌려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다. 여인이 앞장을 섰다. 길이 먼 것 같아 원은 “다 왔느냐?” 하고 물으면 “저기 보이는 불이 우리 집입니다”고 여인은 대답을 했으나 아무리 걸어도 불빛은 늘 그만한 거리에 있었으며 왜 그런지 그녀를 따라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원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아 “내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생각이냐?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랬더니 그녀는 깔깔 웃으며 “사내 대장부가 계집을 따라오는 발걸음이 그렇게도 피곤해서야 어디 남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며 핀잔을 주었다. 원은 그 말에 화가 나서 “오냐 좋다. 내가 기어이 너를 오늘밤 내 품에 품고 말리라” 하고는 다시 힘을 내어 걸었다.

한동안 어느 산비탈 길을 오르내리던 그녀는 조그마한 집으로 원을 안내하고는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잡숴고 놀다 가십시오.” 하며 원을 자리에 앉히고 곧 주안상을 들여왔다. 원이 술을 마셔보니 그 맛이 감미롭기 이를 데 없었다. 원은 술을 정신없이 마셨다.

이윽고 시간을 흘러 멀리서 첫닭이 울고 새벽이 되었다. 원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 일인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던 방은 어느 이름 모를 굴속이며 여자도 온데간데없는 것이었다.

원은 깜짝 놀랐다. 원은 어제 밤의 여자를 불러 보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황금빛이 번쩍 이더니 말로만 듣던 금돼지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원은 와락 겁이 났다. 생각해보니 어제 밤의 그 색시는 금돼지가 여자로 둔갑을 한 것이었다.

금돼지는 원 앞에 와서 그를 잡아먹지도 않고 희롱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금돼지가 원에게 묻기를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섭소?” 하는 것이다.

원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떡이 제일 무섭소.”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금돼지는 어디선가 떡을 잔뜩 가져와서 “너는 이 떡이나 보고 무서워서 떨다 죽어라” 하고 의기양양해 했다.

원을 떡을 보고 무서워하는 척 하면서 금돼지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나 물었다. 그랬더니 금돼지는 금새 몸을 떨며 “나는 사슴의 가족이 제일 무섭다. 사슴 가족만 봐도 떨린단 말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돼지는 원에게 “무서운 것을 실컷 구경하다 죽어 버려라” 하고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원은 배가 고팠던 참이라 그 떡을 먹으면서 곰곰이 도망칠 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굴문을 커다란 돌덩이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도망갈 틈이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원은 금돼지가 가장 무서워 한다는 사슴 가족을 구하려고 했으나 굴속에서 사슴 가족을 구할 수는 없었다. 원은 금돼지에게 잡혀 먹힐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던 어느 날 금돼지는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바로 원의 아내였다. 아내에게 사연을 물은 즉 “어제 밤 한 남자가 찾아와서 당신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여 따라 나섰는데 그 남자가 금돼지로 변하더니 나를 범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다.

부부는 이 굴에서 탈출할 궁리를 했으나 별 묘책이 없었다. 원은 아내에게 사슴 가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있어요. 바로 당신 허리에 차고 있는 열쇠 끈이 사슴 가족이에요.” 하고 일러주었다. 원은 사슴가족 끈을 풀어서 주머니에 꼭 간직하고 금돼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저녁때가 되자 금돼지가 돌아왔다. 원은 금돼지 눈앞에서 사슴가족 끈을 내놓고 “이놈! 이것을 자세히 보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슴가족이다” 하며 벽력같이 소리 지르니 금돼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꼼짝을 못했다. 이때를 틈타 원은 돌맹이를 집어 들고 금돼지의 머리통을 수없이 내려치니 금돼지는 그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죽어 버렸다.

원 부부는 금돼지의 굴에 있던 많은 보물을 얻어서 부자가 됐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원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다. 금돼지의 아들이었다. 원부인은 몇 번이고 자결을 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이를 정성껏 길렀는데 그 아이는 장성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2) 지명유래

1) 관련된 지명유래

① 철원의 산세: 철원에는 명산이 많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명산마다 말뚝을 박아서 혈을 질렀다. 철원에는 삽슬봉에 말뚝을 하나 지르고, 마산봉에 하나 지르는 등 여러 곳에 말뚝을 질렀다. 그것이 문힌 곳은 깃대 모양으로 올라가 있다. 그 깃대 같은 곳에 가서 땅을 파보면 북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혈을 지를 때 북어를 묻고, 쇠말뚝을 박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쇠말뚝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그 쇠가 빠지지 않았다. 그 말뚝을 삽슬봉에도 묻었는데, 그 깃대는 이제 다 없어졌다.

쇠말뚝은 고기 잡을 때 쓰는 지렛대만한 철장으로 되어 있다. 그 쇠를 흔들면 흔들흔들 한다. 그걸 흔들면 그곳에서 물이 질질 나오는데, 그걸 흔들고 내려오면 마을사람이 학질에 걸렸다.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그 쇠를 뽑으려고 흔들었다. 금방 뽑아질 것처럼 흔들리나

절대로 뽑아지지 않았다. 당시에 전하는 말과 같이 쇠말뚝 밑에서 물이 질질 나왔다. 그렇게 애만 쓰다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학질에 걸려서 아주 애를 먹었다. 그 다음부터는 동네에서 쇠말뚝을 빼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다 녹슬고 삭아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이 철원의 명산 곳곳에 쇠말뚝을 박은 것은 산의 정기로 영웅이 날까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명산은 나라에 난리가 날 것 같으면 명장을 한 명씩 내어서 기르게 한다. 그래서 일인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혈(穴)을 지른 것이다.

철원에는 학이 다섯인데 그곳이 다 영웅이 날 곳이다. 다섯 학은 봉학, 외학, 내학, 배학, 금학이다. 이 중에 배학은 영웅이 둘이나 나온다고 한다. 물이 다섯인데 이곳에서는 용마가 난다고 한다. 다섯물은 찬우물, 구루물, 다래물, 월정, 야구물이다. 또 바리가 있는데, 바리는 발(足)을 말한다. 가는바리, 진바리, 녹음족 등이다. 이처럼 철원은 발이 몇이고, 물이 몇이고, 학이 몇이고 하여 학의 수대로 영웅이 나오고, 물의 수대로 용마가 나온다. 그래서 용마가 나오면 네 발이 울리곤 했다.

② 금학산(金鶴山)의 지명 유래: 금학산은 철원군 소재지로부터 20km지점인 동송읍 이평리에 있다. 이평리 뒤편에 위치한 수정산과 연해 있는 표고 943.7m 동경 127°12′ 북위 38°11′지점에 있는 명산이다. 금학산이라 붙여진 명칭은 학이 앉아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산세이기 때문이다. 주위에는 삼학산(3개의 학산)인 백학산, 봉학산, 금학산이 같이 있다.

③ 명성산의 지명유래: 태봉국을 건설한 궁예는 그가 믿던 신하인 왕건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다. 왕건의 군사에 쫓긴 궁예는 이 산에 피신했다. 그를 따르는 충절을 지키는 병사들을 이끌고 도망치는 길이었다. 그러나 많은 병사를 이끌고 더 도망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궁예는 이 산에서 군사를 해산했다. 군사들은 울면서 결국 궁예와 결별하는 수밖에 없었다. 군사들의 울음소리에 감동한 이 산도 결국 함께 울었다.

이 산에서는 때때로 군사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산을 ‘울음산’이라고 부르고 이 산에서 왕건의 군사를 막기 위해 궁예가 세워놓은 성터를 ‘울음성’이라 부른다 한다.

④ 달래산의 전설: 옛날 이 고장에 남매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 남매가 길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겼다. 남매가 어느 산 고개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때까지 맑게 갠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덮이더니 뇌성벽력이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빠, 무서워요.” 누이동생은 그만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며 주춤거렸다. “무섭기는 뭐가 무서우냐? 이런 것은 날씨의 이변이니까 겁내지 말고 어서 가자” 오빠는 침착한 태도로 겁에 질린 누이동생을 달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이동생은 오빠의 말에 겨우 마음을 놓기는 했으나 그래도 겁이 나서 앞장을 서서 걸었다.

비는 계속 쏟아졌다. 때는 마침 여름철이라 누이동생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 비를 흠뻑 맞아 젖은 옷은 살에 착 달라붙어 육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곡선뿐만 아니라 옷이 얇았던 탓으로 젖가슴을 비롯하여 속살이 거의 알몸이나 별다름 없을 만큼 드러났다.

아무리 친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성숙한 여자의 나체와 다름없는 몸뚱이를 본 오빠는 그만 정욕이 끓어올랐다. “애야, 나 좀 보자” 오빠는 앞서가는 동생을 불렀다. “왜 그러세요?” 누이동생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앞서 갈 터이니 너는 내 뒤를 따라 오너라.”

옷이 흠뻑 젖어서 육체의 곡선이 남김없이 드러난 아름다운 누이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빠는 어쩔 줄을 모르며 몸을 떨었다. “싫어요. 뒤에서 가면 무서우니까 그냥 내가 앞서서 가겠어요.” 오빠가 왜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는지 동생은 아무 영문도 몰랐다.

누이동생은 오빠 뒤를 따르는 것이 무서워서 오빠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앞에서 젖은 몸을 드러내고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움직이는 누이동생의 엉덩이와 젖가슴을 보고 오빠는 끓어오르는 정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오빠는 끓어오르는 정욕을 부끄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만 허리띠를 풀어 목을 매어 죽어버렸다. 누이동생에게 정욕을 느끼는 자기가 하늘을 보기에 무서워서였다. 그것도 모르고 앞서서 걸어가고 있던 누이동생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오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누이동생은 걸음을 멈추고 오빠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누이동생은 발길을 되돌려 지금까지 온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걸어가던 동생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오빠를 발견했다.

“오빠가 왜 이곳에 쓰러져 계실까?” 누이동생은 오빠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누이동생이 달려가도 오빠는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누이동생은 오빠를 부르며 흔들었다. 그러나 오빠는 이미 차디찬 시체로 변해서 누이동생의 부름에도 대답이 없었다. “아니, 오빠가 죽다니” 누이동생은 소스라쳐 놀라며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누이동생은 오빠가 죽은 이유를 쉬 알 수 있었다.

“그렇게도 괴로우면 달래나 보지 왜 죽었어요.” 누이동생은 오빠의 시체를 껴안은 채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목 놓아 울었다. 그리하여 그 뒤부터는 이 산의 이름을 ‘달래산’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⁴²⁾

⑤ 마현(馬峴)과 말서낭제 유래설화: 김화군 서면 와수 1리에서 화천으로 통하는 험준한 고개가 있는데, 이것을 ‘아리랑고개’ 혹은 ‘말고개[馬峴]’라고 부른다. 말고개는 5번국도로 철원군과 화천군의 경계에 있는 높은 고개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근남면 마현리에 속한다. 그 고개에 있는 서낭당에는 신씨네들이 해마다 당제를 지내왔는데,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한다.

옛날 고려 말엽 이 마을 신씨 문중의 장수가 싸움터에 나가 전사하자 타고 다니던 말이 주인의 목을 물고 돌아와 이 고개에서 떠나지를 않으니 문중에서 목을 고갯마루에 안장하고 제사하였다. 그로부터 3년간 이 고개를 넘으려는 길손들이 고개에 오르면 발이 붙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돌아서 다녔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왜인 장수 하나가 군졸을 데리고 말고개를 넘어 화천방면으로 가려 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는 노변 부근에 있는 천불암 앞을 지나갈 때 말을 끌던 안내인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마(下馬)하여 예를 올리고 통과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왜인 장수는 그대로 지나다가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왜인 장수는 화가 나서 자기 애마의 머리를 장검으로 내리쳤다. 왜군장교는 쓰러진 말의 피를 천불

42) <달래강>은 근친상간 금기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광포전설이다. 전국적으로 달래산 달래내고개 등 관련 지명 및 전설이 20여 편이 보고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서사구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달래산 전설은 대홍수로 인류가 절멸될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매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혼인한다는 남매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 남매혼이 신성성을 획득함으로써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신화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데 비해, 달래산 전설은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남매혼 설화가 신화→전설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 철원군 <달래고개전설>은 소설 <달래산 달래강>의 원형이 되었다. 강진옥, 「달래강에 얹힌 지명전설」, 한국민속문화사전 참조.

암에 뿌리고 저주하며 고개를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벌을 받아 계곡으로 떨어져 모두 죽었다. 그 후에도 왜인 연락병들이 이 말고개를 넘다가 수시로 계곡으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한다. 현재는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굴곡을 많이 직선화하여 쾌적한 기분으로 고개를 넘나들게 되었다.

⑥ “부래산(浮來山, 일명 외동산) 지명 유래: 철원군 김화읍 청양1리의 청하동 남쪽 농경지 북판에 주위 350m 고도 약 50m의 외동산이란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다. 뜰에다가 조산(造山)했을 리 없고 다른 산맥과는 동떨어지게 있으니 누가 보아도 홍수에 떠내려 와서 걸린 것 같이 보인다.

이 외동산은 다음과 같은 전설과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먼 옛날 두 사람의 건장한 사람이 마을 구석에 조그마한 외동 봉우리가 있는 마을에 찾아왔다. 이들은 산 주인을 찾아와서 “저 산은 우리 산이오. 우리가 6대조 때 잃어버리고 그 후 대대로 찾아다니던 끝에 오늘에야 찾아냈소.” 하고 그 외동산이 자기들의 산이라고 우겼다. 그들은 큰 생색이나 내는 것처럼 “그동안 몇 백 년의 세를 다 받을 수는 없어 탕감해 줄 터이니 오늘부터 세를 내야 겠소. 금년 동짓날 올 터이니 금년 세를 장만해 두시오” 하고 요구했다.

그들의 태도와 말씨는 당당했다. 외동산의 산주인은 대대로 나무를 해서 때 왔는데 청천벽력 격으로 탄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그 생김새로 봐서 모두들 어디서 떠내려 온 산 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세를 안 물겠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외동산의 주인은 마을 노인들을 찾아가서 의논해 보았으나 별 묘한 대책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 산세를 물었다. 이때부터 외동산은 부래산이라 불리게 됐다. 어느 해 동지 전날 외동산의 주인은 또 억울한 산세를 물어야 할 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때 잠을 못 이루는 아버지를 보고 10살밖에 안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외동산 주인은 아들에게까지 걱정을 시켜 주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나 아들의 간청 때문에 결국은 외동산에 얹힌 사연을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어린 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금년부터 제가 세를 안 물도록 할 테니까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튿날 장골의 형제가 예년대로 산세를 받으러 왔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들을 상대하러 나섰다. “여보시오 손님, 마침 오셨으니 이번에는 그 산을 제발 좀 떠가지고 가시오. 이제는 우리도 우리 눈에 농사를 지어야 겠소. 몇 백 년 농사 못 지은 손해 배상을 받을 것이지만 산을 지금 떠가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치 산세의 2배만 내시오” 하고 의젓이 맞섰다.

어린애의 뜻밖의 말에 장골 형제는 서로 마주 보았다. 산을 떠갈 수야 없지 않은가? 장골 형제는 몇 해 동안 산세 받아간 것을 저부 반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장골형제는 어린이의 꾀에 빠져나갈 길을 잃고 어린이의 관대한 것같은 처분에 백배사례하고 도망치듯 돌아갔다. 그들은 그 후부터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린이의 꾀로 마을은 다시 평안해졌다 한다.

⑦ 암소고개의 지명 유래: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소재한 암소고개의 지명유래담이다. 화지리의 암소고개는 수정산을 거쳐 안양사 쪽으로 넘어가는 498.3m의 산봉의 고개이다. 이 암소고개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서기 864년 도선국사가 지금의 도피안사에 봉안돼 있는

철조비로사나불 좌상을 만들어 고대산에 있는 안양사에 봉안하기 위해 여러 승려와 신도들이 함께 암소 등에 이 불상을 싣고 가다가 이 “암소고개” 마루터에 도착 잠시 쉬었다고 한다. 이때 암소 등에 실렸던 불상이 어디론지 없어져 밤새 찾았으나 못 찾고 다음날 아침 현 동송읍 관우리에 안좌해 있는 불상을 찾게 되었다. 이는 범상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 불상의 안좌한 자리에 암자를 짓고 이 불상을 모시게 됐고 절 이름도 철조불상이 도(到)했다 해서 “도피안사(到彼岸寺)”라 이름 지었으며, 마을 이름 또한 도피동이라 했으며 옆 개울 역시 “도피여울”. 암소고개의 옆 고개도 “작은암소고개”라 지금도 불리고 있다.

2) /소(沼)/바위의 지명 유래

① 한탄강(漢灘江)의 지명 유래

ㄱ)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전엔 그걸 한탄강이라 소릴 안했거든. 이게 행광과 제말과 그에 그냥 새천장이니까 그거 큰 개울이라구, 큰 물이라구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한탄강이 어디부텀 한탄강이냐 하면은 남대천하고 그거 거기 뭉니까, 그 법계에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정연 거기가 합수가지구 거기부텀 한탄강이라고 한 다구요. (임갑동, 63세)

ㄴ) 그것은 이북 사람들이 월남할 적에 이 강을 건너야 될텐데 너무 물이 크니까 건너지 못하고 저쪽에 앉아서 한탄을 했다고. 그 때부터 그렇게 됐다구요. 그 전에 ‘칠담강’이라 그런 게 한탄강이라 그래. 왜 그러냐 하면 거 개울 우에 소이가 있는데. 그 전에 요동백 시절에 칠만리 가는 용마가 그 소이에서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칠담강이라 그래. 그런데 이 난리 중에는 그 강을 못건너 와서 한탄하구. 건너오면 도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해 한탄하구. 그래 한탄강이라 그래.(안일봉, 83세)

ㄷ) 군탄리에서 전해오는 설화: 901년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태봉국을 세웠다. 17년간의 통치 끝에 궁예는 믿었던 신하인 왕건(고려 태조)의 군사에게 쫓기어 오성산으로 피해 가다가 궁예와 군졸들은 한탄강 부근(현 갈말읍 군탄리)에서 피로에 지친 몸을 잠시 쉬게 되었다. 그때 궁예와 군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군졸들이 탄식을 했다 하여 군사 '군(軍)' 자 탄식할 '탄(嘆)' 자를 써서 군탄동(軍嘆洞)이라 불렀다. 나중에 행정기구가 변하면서 군사 '군' 자 숲 '탄(炭)' 자를 쓰는 군탄리(軍炭里)로 바뀌었다.

② 삼부연(三釜淵)의 지명유래: 삼부연은 한자로 석 그릇에 가마 부, 못 연을 쓴다. 그러니 솥 모양의 못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가마탕, 노귀탕, 솥탕이라는 세 개의 연못으로 이뤄져 있다. 제일 작은 것이 노귀탕인데 노귀는 노구솥을 일컫는다. 노구솥은 구리나 놋쇠로 만든 솥으로 자유로이 옮겨 걸 수 있는 솥이다. 그리고 중간 것이 솥탕이고, 가장 큰 것은 가마탕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따로 용탕이라고도 한다.

이 폭포는 물이 마른 적이 없다고 하며, 예부터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세 솥(釜淵)에 돌을 가득 채우면 용이 노하여 순식간에 폭우를 내려 돌을 말끔히 치웠다고 한다. 삼부연이라 이름 지은 또 하나의 유래가 있다. 조선조 중기의 성리학자이며 시인이었던 김창흡(1653-1722)이 이곳에 집을 짓고 글을 읽으면서 지냈다. 그런데 김창흡은 호가 삼연(三淵)

인데, 그것은 김창흡이 이곳의 경승에 감탄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또 후세에 삼연의 호를 사용하여 삼부연 폭포라 불렀다고도 한다.

③ 어수정: 태봉국의 시조인 궁예가 도움을 정할 때 이 물의 맑음을 보고 도움을 정하였다고 한다. 궁예는 도움을 정하고 그 후 자기만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 한다. 그래서 왕이 물을 마신 우물이라 하여 어수정이라 부른다.

④ 석대암 지명유래: 보개산 중턱에 돌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해에도 싱싱하고 먹음직한 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려있었다. 어디서인지 까마귀 한 마리가 짹을 찾아 까악 까악 울고 다니다가 이 배나뭇가지에 날아와 앉았다. 배 나뭇가지에 앉아 깃털을 다듬으며 잠시 동안 쉬고 있던 까마귀는 다시 다른 나뭇가지를 찾아 날아갔다.

까마귀가 배나무에서 다시 날 무렵, 그 깃바람 때문에 그만 탐스럽게 열려있던 배 한 개가 툭 떨어져서 공교롭게도 그 나무 밑의 풀숲 속에 있던 독사의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져 버렸다. 난데없이 한 대 얻어맞고 눈에 불이 난 독사는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까마귀가 날고 있었다. 독사는 확 치밀어서 머리를 하늘로 쭉 내밀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독을 뿜어냈다. 독사의 독기는 까마귀의 깃털 속까지 스며들어서 까마귀는 힘이 빠지고 온 몸이 뻣뻣해졌다. 까마귀는 온몸이 저려서 더 날 수가 없었다. 비명을 울리면서 까마귀는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끝내 까마귀는 죽고 말았다.

까마귀는 죽으면서 일부러 독사에게 싸움을 건 것도 아닌데 독을 내뿜어 자기의 목숨을 앗아간 독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을 다짐했다. 독사도 너무 독을 뿜어내서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까마귀와 뱀은 서로 아무런 원수 될만 일도 없었는데 둘은 모두 원망을 안고 죽어간 것이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까마귀와 뱀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뱀은 죽어서 산돼지가 되었고 까마귀는 죽어서 까투리로 변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들의 싸움은 점점 더해 갔다. 산돼지는 먹이를 찾아 이 산마루에서 저 산 언덕으로 어슬렁거리며 헤매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까투리를 만나게 되었다.

“저놈의 까마귀가 아무리 까투리의 탈을 쓰고 다닌들 내가 모를 줄 아나?”

양지바른 곳에서 알을 품고 있는 까투리를 발견한 산돼지는 그 까투리가 전생의 독사였던 자기를 죽게 한 원수인 까마귀의 화신이고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저 놈을 꼭 잡아 원수를 갚아야지” 산돼지는 살며시 까투리가 알을 품고 있는 산위쪽으로 올라가 바위를 굴러 내렸다. 까투리는 그 바위에 깔려서 품고 있던 알을 채 깨지도 못한채 죽어버렸다. 원수를 갚기 위해 호시탐탐 까투리를 찾아다녔던 산돼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산돼지는 흔쾌한 마음으로 다른 산등성으로 옮겨 갔다.

그때 그 산기슭에 사는 사냥꾼이 이 앞을 지나게 되었다. 까투리가 알을 품은채 죽어 있지 않은가? ‘이 첩첩산중에 사람이 들어 왔을 리 만무하며 더구나 사람이 죽었다면 주워 갖을 것이며 이렇게 그냥 내버려져 있을 리가 만무한데...’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사냥꾼은 손쉽게 얻은 까투리를 주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반갑게 남편이 들고 온 까투리를 받아 들었다. 내외는 까투리를 볶아서 배를 채웠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까투리 고기를 먹고 난 후부터 아내에게는 태기가 나타났다. 시집 온지도 여러 해가 지났건만 아직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던 아내

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달이 차서 아내는 아기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내외는 금이야 옥이야 하고 소중히 길렀다. 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고 씩씩한 소년이 됐다. 그 아들은 활쏘기를 잘 했다. 사냥꾼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 활쏘기를 익혔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이상하게도 까투리를 보면 그것만은 안 쏘려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활숨씨를 익혀주기 위해 까투리와 같은 날짐승을 쏘게 하였으나 “아버지, 난 까투리는 안 쏘래요.” 하고 아버지가 쏘라고 하여도 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왜 안 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다른 짐승은 쏘도 까투리는 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무슨 짐승을 잡으려느냐?” “산돼지요.” 아들은 산돼지만을 쏘겠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왜 산돼지를 모조리 잡아 없애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넌 왜 산돼지만 잡으려고 하니?” “괜히 산돼지만 잡고 싶은걸요. 아버지! 산돼지가 나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쏘아서 꼭 잡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용맹스러워 산돼지만을 잡으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용맹스러운 말을 기특히 여기면서도 나이 어린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넌 아직 어려. 산돼지를 잡기에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타일렸으나 아들은 그저 산돼지만 잡겠다고 막무가내였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사냥을 하느라고 종일 보개산을 헤매고 있을 무렵이었다. 아들이 산돼지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저기 산돼지가 달려요” 아버지는 재빨리 화살을 채고 활을 쏘았다. 화살은 산돼지의 머리통에 명중하였다. 산돼지는 몸부림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산돼지가 안간 힘을 쓰다 쓰러지는 모양을 지켜보던 아들은 소리 치며 기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왜 그렇게 수선을 떨며 즐거워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 후 아들은 점점 장성해 갔다. 그는 장성해 갈수록 산돼지를 더욱 미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냥연장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냥도구를 가지고 매일 사냥을 다녔다.

어느 날 또 보개산으로 사냥을 나갔다. 산돼지 사냥만을 나선 길이었다. 웬일인지 그날은 전에 본 일이 없는 커다란 산돼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산돼지의 몸에는 황금빛 광채가 서려 있었다. 그는 화살을 쏘았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명중했다. 그런데 그 산돼지는 화살을 맞은채 피를 흘리면서 유유히 도망쳐 가는 것이었다. 전에 산돼지를 쏴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그가 쏘는 한 살의 화살은 산돼지를 명중시켜 단 할 살로 쓰러뜨리고는 했었다. 금빛광채의 산돼지는 여전히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한희봉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는 산돼지를 뒤따랐다. 그런데 별안간 그 금빛 산돼지는 어디로인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웬 일일까?” 그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금빛 산돼지가 숨었으리라고 생각한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지장보살의 석상(石像)이 샘물 속에 몸을 담그고 머리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지장보살 석상의 어깨위에는 그가 쏜 화살이 꽂혀있는 것이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혹시나 이 석상이 금빛 산돼지로 화하여 화살을 맞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는 물속에 잠겨있는 조그마한 지장보살의 석상을 꺼내려고 애를 써 보았다. 그러나 힘깨나 쓴다고 자랑하던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하는 수없이 지친 몸을 가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밤새껏 자기의 화살을 맞은 지장보살 석상의 일이 잊히지 않아 날이 밝자 그 이튿날 또다시 그곳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것이 웬 일 일까? 어제 물속에 잠겨있던 석상이 물 밖에 나와 서서 그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때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석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였다.

“보살님, 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제하여 주시려고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소생은 이제부터 출가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도를 닦으려 합니다.” 그는 그 후 출가하여 보개산에 석대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그 석상을 모시고 도를 닦는 데만 전념했다고 한다.

그는 사냥꾼 시절에 본래 자기가 까마귀의 후신임을 몰랐고 까마귀와 뱀의 싸움도 몰랐던 것이다. 까마귀가 까투리가 되고 그것이 다시 자기로 태어난 사실을 인간이 된 그는 몰랐던 것이다. 그저 산돼지가 원수처럼 생각되어 사냥을 했던 것이다.

까마귀와 뱀 사이의 우연하게 시작된 싸움이 꼬리를 몰로 원수처럼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장보살이 산돼지로 바뀌어 화살을 맞고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이 싸움을 막게 한 것이었다.

⑤ 선녀바위 지명유래: 지금부터 3백여 년 전의 이야기. 오성산 기슭 수태굴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오누이가 있었다. 이들의 집은 아주 가난해서 양식이라고는 감자 고사리 산나물 같은 것으로 연명을 하여 갔다.

어느 해 봄 어머니는 이름도 모를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병은 더 무거워지기만 했다. 워낙 가난하였으므로 약도 써볼 수 없었지만 또한 어떤 약을 써야 낫는지도 알 수 없는 그들 오누이는 수척하여 가는 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보며 울뿐이었다. 이렇듯 손을 못 쓰고 있는 중에 뜻밖에도 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정경을 보고 가엾게 여기며 어머니의 손과 발 여러 곳을 만져본 뒤에 서른세 가지의 약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달여서 드리라고 일러주고는 가버리고 말았다.

이 두 오누이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산기슭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노인이 일러주고 간 서른두 가지의 약풀을 캐었다. 그러나 노인이 일러준 약풀 중에서 단 한가지만은 캐지를 못했다. 그 노인의 말에 의하면 그 풀은 높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이었다.

두 오누이는 그 이튿날 또 다시 산위로 올라가서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던 끝에 높다란 바위가 있고 그 곳에는 늙은 소나무가 서 있는데 그 바위 옆에 그 노인이 가르쳐준 약초인 ‘모연실’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본 순간 오누이는 기뻐서 뿔 것 같았다. 그러나 모연실은 험한 바위벽에 붙어 있어서 캐기에는 여간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망설이던 오누이는 어머니의 병을 한시라도 빨리 낫게 하려는 마음에 쫓겨 자기네 몸이 떨어져 죽는 위험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누이는 한손으로 오라비의 손을 잡고 한손은 풀을 잡고서 한발자국씩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다 내려가서 이것을 캐려고 하였을 때 그것은 모연실이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풀이었다. 그것이 모연실로 보였던 것이다.

누이는 그만 깜짝 놀라 실망한 끝에 잡았던 오라비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누이는 그만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을 본 오라비도 그 누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라비마저 가엾게도 미끄러져 바위 밑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이 소식을 그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크게 놀라 오랫동안 병으로 일어나지고 못하던 것이 현장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다. 어

머니는 두 자식을 안고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은 갑자기 “어머니!” 하고 소리를 내면서 살아났다. 그러나 딸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영영 살아나지 못했다. 그 뒤 어머니는 두 자식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했음인지 점차 원기를 회복하여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다.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아들은 건실히 성장하여 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딸의 일을 생각하고 이 산봉우리 바위 옆에 와서 늘 울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누이가 떨어져 죽은 산봉우리는 차츰 마치 선녀와 같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바위를 ‘선녀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⑥ 담터의 지명 유래: 철원군 동송읍 상노2리에 전해지는 지명유래담이다. 옛날의 이곳은 금수가 많은 곳으로 그 당시 인적이 없는 벽지에 수목이 울창하고 들리는 것은 짐승의 소리뿐 그 외엔 아무도 없었다 하며 그때 허수룩한 30대 노총각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체격이 장대하고 기운이 역세어 천하에 당할 자가 없었다 한다. 이 총각이 이곳을 근거지로 정하고 매일같이 사냥을 하여 먹고 살며 짐승들의 뼈로 담장을 쌓았다고 하여 담터라 불리게 되었고, 이 담터에 약수가 있어 전에는 피부병을 많이 고쳤다고 전해오고 있다.

3) 뭇 역사 관련 지명 유래

① 월정리(달의 우물) 지명유래 설화: 이곳 한 골짜기에 으름 모를 병으로 고생하는 홀아버지를 봉양하고 있는 처녀가 살았다. 자나 깨나 아버지의 병환이 낫기만 기다리던 효성스런 이 처녀는 밤마다 달님께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지성으로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름달이 온 천지를 낮과 같이 비추고 있었다. 이날 밤 아버지가 병이 낫기를 빌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수염이 흰 노인이 나타나 “나는 달님이다. 너의 정성이 지극하여 이르노니 너의 집 옆 바위 위에 가보면 물이 괴어 있을 것이니 달이 지기 전에 너의 손으로 천 모금을 길어 아버님께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다”고 말해주었다.

처녀는 꿈을 깨어 꿈속에서 들은 곳을 찾아가 보았다. 과연 그곳에는 손으로 겨우 굽어 담을만한 물이 괴어 있지 않은가. 달은 이미 서편에 기울어 있었다. 효성스런 처녀는 부리나케 물을 손에 추겨 나르기 시작했다. 달이 지면 큰일이라고 조바심에 탄 처녀는 물을 길어 나르기에 경황이 없었다. 처녀의 손은 바위에 달아 벗겨졌고 발은 바위에 부딪쳐 깨어졌다. 손과 발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서편의 달은 점점 기울기만 하였다. 달의 모습이 서산의 산봉우리에 마지막으로 가려질 때 처녀의 물 길기도 1천 번을 마칠 수 있었다. 효성스러운 처녀는 천 번째의 물을 길어 아버지의 입에 손을 물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의 병은 딸의 효성과 샘물의 영험으로 완쾌 되었으나 처녀는 영영 회생하지 못했다. 이후 사람들은 효성스런 딸의 이야기가 얹혀있는 이 샘을 달우물(月井)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달우물의 이름을 따라 마을 이름도 월정리라 부르게 됐다 한다.

② 김화 큰서낭 전설: 김화 관아에 한 관노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이 관노의 꿈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제발 나를 도와 달라”고 목메어 호소했다. 관노는 관노의 신분으로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뒷산에 올라가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당을 지어 주시오” 하고 부탁했다. 관노는 꿈이 하도 이상해서 뒷산에 올라가 사당을 지어 주려고 터를 닦고 조그마한 사당을 상량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또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사당을 지어주려고 하는 뜻은 고마우나 지금 그 자리가 아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당을 지을 자리가 있으니 그곳에 지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사라졌다.

관노는 기왕 사당을 지어주려고 마음먹었던 일이니 여인이 지어달라는 곳에 지어주리라 마음먹고 이튿날 날이 밝자 또 산에 올랐다. 터를 닦아 놓았던 사당자리에서 서 산 정상에 오르니 그곳에는 상량목이 스스로 놓여있고 그 상량목 밑에 무쇠로 만든 여상(女像)이 하나 있었다.

관노는 이 자리가 사당을 지을 자리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곳에 사당을 세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지어 달라고 부탁하던 여인은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새로 한 현감이 이 고장에 부임해 왔다. 그 현감은 사당에 치성을 드리는 것을 황당

무계한 이야기라고 하여 신사(神祠)를 금하였다. 그랬더니 범이 그 현감의 아들을 잡아가 현감을 아들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 다음 현감 때부터 신사를 부활했다고 한다.

③ 와수리(瓦水里)의 지명 유래: 철원군 서면 와수리의 지명유래담이다. 고려시대 이곳 김화 고을에 청기와 공장과 자기를 제조했던 도요지가 있다. 원래 산간촌락이었으나 이곳은 기와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와수리(瓦水里) 일대의 주민들의 주택들은 초가가 아닌 와가 일색(瓦家一色)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김화고을의 원(군수)이 부임하면서 오성산 마루턱에 올라 자기 고을들의 사방을 살펴보니 현 와수리 일대가 유난히 눈에 아름답게 띄었다.

이곳에는 바다나 큰 호수가 없는데 멀리 아름답게 보이는 잔잔한 파도의 물결은 무엇인가? 하고 하인에게 물은 즉, 답하기를 저것은 물결이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기와집들이 서있으며 햇빛이 반사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원은 즉석에서 그곳 동명을 물결같이 보이는 집들이 많다 하여 와수동이라 명명했으며 현재의 명칭도 역시 와수리로 불리고 있다.

④ 자등리(自等里) 지명 유래: 철원군 서면 자등리의 지명유래담이다. 조선조 중엽 인조 2년(1629) 2월 김화고을에 부임한 황후영이라는 군수가 이곳에 있는 상해암의 마루턱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항상 남쪽 하늘이 빨갭게 물들어 있어 신하들에게 사연을 물은즉, “남쪽 하늘은 원래부터 그렇게 빨갭게 물들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무슨 곡절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하고 말했다.(그 후 병자호란으로 고초를 겪었다는 유래가 있음)원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 부락이름을 붉을 자에 등 등자를 써서 자등(紫燈)부락이라 부르도록 일러 그리 불러오다가 근래에 이르러 스스로 자(自) 무리 등(等)으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⑤ 토성리(土城里)의 지명 유래: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의 지명 유래담이다. 토성리의 동쪽 한가운데 건설된 토성이 있어 토성리 또는 “토세이”라고 불리고 있다. 일부 구전에 의하면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시 호군이 하룻밤 사이에 쌓았다고 하나 이것은 잘못된 구전이며 여러 학자들의 감정에 의하면 삼한시대에 성축된 토성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덕령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덕촌”이라고도 부른다. 토성리 마을의 유래는 언제부터인가 토성이 쌓여져 있는 곳이기에 토성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⑥ 백마고지의 유래: 백마고지는 철원을 서북방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395m의 야산으로서 전쟁 전에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무명고지에 불과했으나 전선이 고착되면서부터 철의 삼각지 왼쪽에 해당하는 중요 지형지물로 유명해진 곳이다.

백마고지란, 명칭이 생기게 된 유래는 작전기간 중 포격에 의해 수목이 다 쓰러져 버리고 난후의 형상이 누워있는 백마처럼 보였기 때문에 백마고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과 당시 참전했던 어느 연대의 부연대장이 외신기자의 질문에 “화이트 호스 힐(White Horse Hill)”이라고 대답하여 비롯되었다는 설, 또 전투 중 9사단을 방문 격려한 바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이 평북 의주군에 백마산성을 쌓고 중국 오랑캐에게 저항하였던 지명을 따라 백마산이라고 명명했다는 설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격전을 치루고 난 처절한 산의 형상이 백마가 누워있는 모양 같다하여 백마고지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 전투를 계기로 중공군의 공세를 결사적으로 분쇄한 한국군 보병 제 9사단은 그 용맹을 세계에 떨치게 되었고 부대 명칭도 백마부대라고 부르고 있다.

2.1.7 철원과 6·25 전쟁

6·25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도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 자유, 양대 진영으로 다시 대립된 세계가 내포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서 냉전인 동시에 실전이며 국부전인 동시에 전면전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가졌으며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의 하나였다. 특히 철원은 이른 바 철의 삼각지라 하여 남북한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했던 격전지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의 경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철원 지역 전투를 정리하기로 한다.

(1) 6·25 경과

1) 발발 직전의 상황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아세아 공산화를 목적으로 북한에 공산정권을 세우고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았다.

1950년 6월은 바로 그들의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 선택되었으니 이때가 바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2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30총선거를 치른 직후였다. 선거의 결과는 무소속 의원의 과반수를 점하여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몇몇 중간파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정부 측 여당의 진출이 미미했던 것이다. 이것은 1949년 6월에 제정되어 선거 직전인 1950년 4월에 시행규칙을 공포한 남한의 토지개혁법이, 유상매수·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토지개혁의 의의가 희박하여, 국민이 노골적으로 정부에 반감을 표시한 결과라고 속단하고 이때에 남침을 감행하면 틀림없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적 요인의 성숙과 아울러 국외적으로도 당시의 정황을 보면 중공이 국부를 물리치고 대륙에 공산정권을 세웠으며, 1949년 이미 주한 미국군이 철수를 완료했으며, 당시 미국이 정한 태평양 방위권에서 대만과 한국은 제외되었다는 것 등이 그들의 침략 결행에 용기를 주게 되었다. 침략 일자를 앞두고 안으로는 전투태세에 완벽을 기하면서 공산군 전래의 기만전술로써 겉으로는 급격히 평화협상을 요청해 왔으니, 바로 남침 18일 전인 6월 7일 평양의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방송이라 하여「해방 5주년 기념일에 남북통일 최고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하였고, 남침 6일전인 19일에는 다시「남한 국회가 동의만 하면 21일 북한 최고인민의회 대표를 서울로 보내든지 또는 남한 국회 대표를 평양에서 남북국회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열성을 가장한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실은 이보다 앞서 5월에 이미 북한 공산군의 한 고급 장교는 공산간첩 및 파괴 공작단에게「우리 군대는 6월 중순경에 남한을 공격할 예정인데 이 공격은 아시아 해방을 지향하는 1보를 이루는 것이다.」하고 연설한 바 있으며, 6월 10일에는 북한 공산군 총참모장 강건이 예하 각 사단장 및 여단장을 비상소집하고「각 부대는 6월 23일까지 전투 배치를 위한 이동을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18일에는 다시「공격을 개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김일성 명령의 훈령을 하달했던 것이다.

23일 완료된 적의 38선 배치 병력을 보면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사단 및 3개 경비여단 등으로서 북한 공산군의 총력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군은 보병 8개 사단 중 용진에 17연대, 개성지구 1사단, 동두천 지구 7사단, 춘천과 원주 지구 6사단, 주문진과 강릉지구 8사단 등 도합 4개 사단 및 1개 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는 서

울의 수도 사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전·대구·광주와 같은 후방에 있었다. 장비에 있어서도 국군은 공산군에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미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대한민국이 공격해 왔으므로 부득이 반격한다.」 허위 선전을 하면서 6월 25일 새벽을 기해 침략을 개시하였다.

2) 발발과 유엔군(UN군) 출동

1950년 5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 북한 공산군은 일제히 38선을 넘어 용진·개성·동두천·춘천·인악 등지의 육로와 동해안을 돌아 삼척·임원진 등지에 상륙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혼한 중에 적 전차부대의 일부는 이미 서울 시내에 침입했으며, 정부는 대전으로 후퇴했다. 28일 새벽 3시 한강 인도교가 예정시간보다 앞서 폭파되고, 한강 이북의 국군은 총퇴각을 감행, 적기가 상공을 나는 가운데 도하작전을 전개하여 전원 철수하니 28일에 수도 서울이 적에게 완전 함락되었다. 육군본부는 수원에 후퇴하고 도강한 국군 부대들은 통합 재편되어 한강 남한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새벽 공산군이 남침을 개시한 즉시로 주미한국대사 장면에게 긴급 훈령을 내려 미 국무성에 사태의 절박성을 알렸고, 미국은 이날 오후 2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를 열어 한국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 북한군의 즉각 철퇴 촉구를 결의케 했다. 이에 미국은 28일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맥아더 전투사령부를 한국에 설치하고 해군과 공군을 우선 한국전선에 파견했다. 뒤이어 29일에 영국과 홀랜드의 해군이 출동하고 30일까지 총 32개국이 한국을 원조하기로 결의했다. 유엔의 이와 같은 결의는 세계 역사상(국제정의)에 입각한 최초의 국제연합군을 탄생시킨 것으로 국제평화와 수호를 위한 획기적인 거사였다. 7월 7일 유엔 결의에 따라 미국은 마침내 일본 동경에 유엔군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에 임명, 7월 14일 유엔기가 맥아더장군에게 전달되고, 이날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을 유엔 총사령관 지휘하에 편입시키겠다는 공식서한을 발송하자 맥아더 장군은 이를 즉시 응낙 하여, 공산 침략군에 대항하는 전투태세가 완전 통일, 정비되었다.

국군은 이남 한강 방어선을 재정비 했으나 경부선 가도를 따라 전차사단을 앞세우고 돌진하는 적 주력부대에게서 수원을 빼앗기고 육군본부가 다시 남하했다. 대전을 점령한 적은 다시 진로를 3분하여 일부는 서쪽으로 호남 일대를 휩쓸어 마산으로 달고, 일부는 경부선을 따라 대구로 향했으며 일부는 동으로 포항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아군이 유엔군 총사령부하에 국군까지 포함시켜 작전 계통을 통일하고 부대를 대폭 증강하여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아 반격을 개시할 태세를 이미 완료한 때였다. 이에 8월 7일 아군은 마산지구에 미 제25사단·34사단과 기타 제5전투단·제3해병여단 등을 투입하여 부산을 목표로 육박하는 적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하여 3일 동안에 60리를 진격, 군군의 채병덕 소장이 전사한 하동지구를 탈환하였다. 이것은 6월 25일 이후 아군이 가한 최초의 본격적 반격이었다.

3) 9·28 수복에서 압록강까지

아군이 육전에서 이와 같이 전과를 올리기가까지는 공군의 지원 폭격이 크게 주효하였으니 유엔 공군은 이미 개전 20일 만에 제공권을 장악, B29·B26 등 중폭격기는 적 후방의 교통로를 파괴하는 한편 평양·진남포·함흥·청진·나남 등지의 군수품 공장을 완전 파괴했으며, 각 방면으로 공습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해군도 개전 직후부터 제해권을 장악하였으나

지상 작전이 후퇴를 거듭하므로 큰 활약을 못하고 있던 중, 낙동강 전선에서 육군의 반격이 개시되자 전격적 북상을 기도하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9월 13일에 개시된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13일부터 2일간에 걸쳐 맹렬한 함포사격을 가한 후 15일 새벽 마침내 유엔군과 해병대가 맥아더 장군 진두지휘로 인천에 상륙, 서울을 향해 진격했다.

적은 결사적으로 시가전을 기도하였으나 병력의 대부분이 섬멸되어 서울에서 퇴각하니, 9월 28일 역사적인 서울 탈환이 이루어져 중앙청 점谈到 다시 태극기가 올랐다. 이 서울 탈환작전은 남한지역 전투의 최종적 결판이 되었으나, 서울을 완전 탈환한 유엔군은 다시 수원 방면으로 남하하여 적의 배후를 찔렀으며, 중부와 동부전선에서도 무제한 복진공세를 취하니 30일에 벌써 국군 제30사단은 동해안을 전격적으로 북상하여 38선 접경 인악리에 이르렀다. 이제 38도선 이남의 공산군은 사실상 퇴로마저 끊긴 채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졌다.

11월 25일 수도 사단은 함경북도 도청 소재지 청진에 돌입했다. 이로써 국토의 전역이 수복되고 조국 통일의 목전에 두게 되었다.

4) 1·4 재북진

북한 공산군이 거의 섬멸될 상태에 이르자 중공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한국전선에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12월 4일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 백만이 북한에 투입되었으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만주를 폭격하여 중공군의 기동을 분쇄하고 한국의 완전 통일을 주장한 맥아더 장군이 4월 11일 유엔군 총사령관직을 퇴임하고 릿지웨이 장군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이 때 적은 소위 춘계대공세를 취하여 4월 23일 김화 남방의 아군 방위선을 집중적으로 돌파하여 28일에 춘천, 30일에 서울 북방 우이동에까지 육박하였으나 결국 격퇴되고 5월 16일 제2차 공세로 인제지구에 남침하였으나 동원병력 11만중 5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6일 만에 격퇴되었다. 아군은 서부전선에서 6월 3일 연천기주로 진격하고, 중부전선에서는 6월 6일에 처음으로 평강에 대치하여 철의 삼각지대를 이루는 철원과 김화를 점령했고, 동부는 5월 30일에 고성까지 올라가 있었다. 이에 공산측은 결국 전세가 불리할 뿐임을 알아차리고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사 마리크로 하여금 한국 전쟁의 정전을 제의해 오고 미국은 이에 호응함으로써 7월, 8월 개성에서 정전회담 예비회담이 개최되고 10월 25일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회담을 진행했다. 11월 28일에는 당시 전선을 임시휴전선으로 채택하게 되어 한때 전투가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치열한 선전을 수반하면서 여전히 전투는 계속되었다.

5) 최후의 혈전과 휴전 성립

1951년 7월에 휴전회담이 개시된 후부터 한국전쟁은 세계 전사 상 처음 보는 소위제한공격이라는 전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나, 당사국인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산군과 유엔군은 함께 성립을 희망하여 서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2년 8월부터 공산군은 후방의 병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8월 5일 국군 수도 사단이 지키는 김화 동북지방의 수도고지에 공격하여 왔다. 전례 없이 포격을 강화한 적은 1일 평균 2만발을 방사하여 인해전술로 육박해 와 8월 10일까지 6일간에 7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갈리었다. 이러한 싸움을 9월 28일까지 계속하여 아군은 고지서를 확보하니 29일에는 개전 이래 최대의 포격으로 4만 8천 발을 수도 사단 지구에 퍼붓고 다시 방향을 돌려 백마고지에 공격해왔다.

7월 16일부터 아군은 총공격을 개시, 휴전을 앞두고 전략상의 요지들을 확보하려던 적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20일까지는 앞서 잃었던 지역의 대부분을 탈환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3년 1개월에 걸쳐 참담을 극했던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리고, 한국 군민은 제2의 38선인 휴전선으로 하여 민족 분단의 비운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이 전쟁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으며, 양대 세력의 세계적 전쟁이었다. 유엔 측은 제1차 대전 전비에 해당하는 150억불을 지출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유엔측의 사상자 수는 33만 여에 달하고 공산측은 그 5배에 해당하는 180만에 이르렀다. 만 3년간의 혈전에서 한국의 국토는 초토로 화했으니 6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20만 명의 전쟁미망인,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생겼으며, 공업시설은 45%가 가동 불능이 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암흑기를 초래했다.

2.1.8 지역의 주요 전투

철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철의 삼각지’이다. 철원·김화·평강이 서로 맞물린 이곳은 비옥한 철원평야가 있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 차지하고자 하였고, 특히 전쟁 막바지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총공세가 벌어졌던 그야말로 격전지였다. 당시 전쟁의 양상은 남북 모두 휴전회담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자연 제한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예컨대 이즈음 유엔군의 전략은 “지지는 말고 이기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제한된 범위내의 전투가 더욱 치열해 갔다. 휴전 협상이 합의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상대의 지역을 차지하려는 전략은 이른바 고지 쟁탈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장비가 빈약하고 공습에 약했던 공산군은 공격의 초점을 산악이 많은 강원도내의 중부전선으로 돌려 2년여에 걸친 혈전으로 강원도 산하를 피로 물들게 했다. 이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인 백마고지 전투를 상세히 살펴 보고, 기타 중요한 전투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1952년 10월 6일부터 1952년 10월 15일까지)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 (50.6.25 ~53.7.27)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고지 쟁탈전을 전개했던 1952년 10월에 철원 땅에 위치한 이름 없는 한 작은 고지를 놓고 한국군 보병 제9사단과 중공 제38군 3개 사단이 전력을 기울려 쟁탈전을 벌인 끝에 국군 제9사단과 중공 제38군 3개 사단이 전력을 기울려 쟁탈전을 벌인 끝에 국군 제9사단의 승지자로 매듭지어진 전투를 말한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395m 밖에 되지 않는 고지 하나를 빼앗기 위한 혈전을 벌이는 사이 아군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작전기간 중 발사한 포탄수만 하더라도 적 측 55,000발, 아군 측 219,954발이 이 작은 고지에 집중되었다. 전투횟수만 하더라도 12차례에 걸친 공방전으로 24회나 달한 이 전투는 철원, 평강, 김화를 잇는 중부전선 일대의 병참선을 차단 확보해야 한다는 작전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양국군의 명예를 건 일전으로 변하여 더욱 처절한 싸움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결국 세계 전사 상 유례가 없을 만큼 처절한 포격전, 수류탄전, 백병전을 10여일 주야 반복한 끝에 이 고지를 아군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곳에는 백마고지를 빼앗긴 김일성이 3일 동안 애통해하며 식음을 전폐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백마고지 전투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공방전: 1952년 10월 6일 19시 15분 ~ 20시 15분

중공 제38군 제114사단 제340연대의 선제공격으로 전투개시.

적은 공격 전 백마고지 일대에 2,000여발의 포탄을 추하, 아군, 전진지가 초토화되고 매설한 지뢰까지 폭발, 생지옥으로 변함.

포병 및 공군 등 지원부대의 간담없는 제압 사격으로 아군 제9사단 제30연대 극한 상황속에서 적 격퇴.

② 제2차 공방전: 1952년 10월 6일 20시 40분 ~ 24시 00분

1차 공방전이 끝난 후 25분 만에 적은 수류탄 공격조, 다방총사격조, 장총돌격조 등 연속적인 파상공격 감행.

역습 시 제28연대 2중대 1소대 관효재 일병이 동료의 죽음을 보고 격분하여 단독으로 적 진에 뛰어들어 적 기관총 진지 목표탈취, 화랑무공훈장 수상.

③ 제3차 공방전: 1952년 10월 7일 00시 ~ 5시 10분

중공 제38군 제114사단 제340연대는 두 차례에 공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1,000여발의 집중포격과 함께 40분 만에 3차 공격 감행.

적 돌격조의 3차에 걸친 재 파벌 연속 공격으로 피아 사상자가 속출, 능선과 계곡이 온통 시체와 초연으로 뒤덮임.

혈전사투 4시간 40분 만에 적 퇴각, 아군진지와 500m 거리를 두고 상호 대치. 포병탄막사격, 기관총교차사격, 박격포사격으로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함.

④ 제4차 공방전: 1952년 10월 7일 20시 00분 ~ 8일 20시 40분

중공군 제38군은 제114사단 제340연대가 공격 실패하자 제112사단 제3334연대를 다시 투입하여 공격을 감행.

전투개시 2시간 후인 23:00시경 최초로 백마고지를 피탈당하며, 3시간 40분만인 2:40분경 치열한 공방전 끝에 다시 탈환.

⑤ 제5차 공방전: 1952년 10월 8일 05시 30분 ~ 23시 05분

주로 야간 공격만 하던 적이 주간 여명공격을 감행. 이때부터 주야 없이 뺏고 빼앗기는 고지 쟁탈전 반복.

08시 10분 백마고지를 빼앗겼지만 빼앗긴지 15시간만인 23시 05분 항공 조명아래 야포, 전차포, 중격박포 사격이 능선, 계곡 등 천지를 뒤덮는 가운데 수류탄 공방전 끝에 고지 재탈환.

⑥ 제6차 공방전: 1952년 10월 9일 00시 20분 ~ 10일 00시 30분

5차 공방전이 끝난 지 1시간 30분도 못되는 10월 9일 00시 20분 적은 백마고지를 탈취 못하면 사단장을 총살하겠다는 명령과 함께 새로운 부대인 제114사단 제342연대를 투입.

03:00시 백마고지 피탈, 다음날인 10월 10일 00시 30분까지 8차례의 격전 끝에 백마고지 재탈환.

⑦ 제7차 공방전: 1952년 10월 10일 ~ 01시 30분 ~ 06시 40분

01시 30분부터 시작된 포격에 이어 짙은 안개를 이용, 적 공격 재개.

수류탄전과 백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03시 30분 적의 집중파상이 공격으로 또 다시 백마고지를 빼앗기고, 06시 40분 격전 끝에 백마고지 재탈환.

⑧ 제8차 공방전: 1952년 10월 10일 08시 00분 ~ 13시 20분

중공군이 제114사단 제34연대는 4차례에 걸친 막대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1시간 20분만에 다시 공격.

백마고지를 적에게 내어주었지만 50명의 수류탄 특공대를 조직, 육탄공격으로 적 기관총을 파괴한 다음 고지를 재탈환.

⑨ 제9차 공방전: 1952년 10월 10일 18시 00분 ~ 11일 12시 04분

10일 18시 백마고지 다시 상실, 11일 12시 40분 수류탄이 바닥나 돌로 저항하는 적을 격멸하고 백마고지 재탈환.

⑩ 제10차 공방전: 1952년 10월 11일 15시 30분 ~ 12일 13시 20분

적과 처절한 백병전 끝에 또 다시 피탈.

12일 13시경 정상을 눈앞에 두고 적의 기관총으로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하자 제9사단 30연대 1중대 3소대장 강승우 소위가 오귀봉 하사, 안영권 하사와 함께 수류탄을 뽑아들고 육탄돌격을 감행, 기관총진지 폭파 후 장렬하게 전사. 아군이 다시 백마고지 탈환.

⑪ 제11차 공방전: 1952년 10월 12일 14시 40분 ~ 16시 50분

중공군 10차 공방이 끝난 지 1시간 20분 만에 또 다시 역습 감행.

적에 대해 정확한 포격과 사격으로 궤멸적인 타격을 가함.

⑫ 제12차 공방전: 1952년 10월 12일 19시 30분 ~ 15일 11시 00분

12일 19시 30분부터 10일 03시 35분까지 적은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포격과 총격 후 돌격을 감행 피아 필사적으로 공방, 훗날 중공군 스스로가 제9사단 장병들의 용전상을 그려 사전불퇴라고 표현했듯이 이날 밤 필설을 절하는 일전을 벌임.

중공 제38군은 이 전투에서 결정적 타격을 받고 후방에서 부대를 재건하다 53년 7월말 본국으로 철수.

2) 주요 전투들

① 저격능선전투 (1952년 10월 14일부터 1952년 11월 24일까지)

이 전투는 1952년 10월 중순에 정일권 중장이 지휘하는 제2사단이 적의 아성으로 알려진 오성산의 전선을 공격하여 42일 동안의 격전 끝에 그 관문을 장악하게 되는 전투이다.

이 전투의 배경을 살펴보면 1951년 가을철에 군의 제한 공격에 밀려 수세를 취하던 적이 1년이 지난 52년 추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적극 공격을 취하는데서 비롯된다. 즉, 51년 10월에 전개된 미 제1군단의 '코만도(Commando) 작전'과 제9군단의 '노매드(Nomad) 선진격전'의로 말미암아 열세에 허덕이던 적은 동년 11월 27일에 체결된 군사분계선 문제의 가조인 협정을 고비로 소강상태에 들게 됨을 틈타서 4월부터 9월까지 전 전선의 전초 진지에 산발적인 도전을 일삼다가 겨울이 다가오자 10월 초에 일제히 요지 쟁탈전을 전개하여 김성 동쪽의 이른바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수도사단의 전진지를 범하는가 하면 철원 계곡의 백마고지에서 제9사단의 보루를 침공하고 임진강 상류에서 제1사단을 위협하는 등 적극책을 취하였다. 이 전투가 끝난 11월 하순 현재 전 전선의 전황은 피아간에 월동 상태로 들어가, 현 접촉에서 고착되고 이전의 양상으로 환원하여 소로 정찰과 탐색 그리고 소규모의 공격을 일관하였다.

② 북진능선의 방어전 (1953년 6월 11일부터 1953년 6월 14일까지)

이 전투는 1953년 7월 27일의 휴전 성립을 목전에 놓고, 적이 최후 발악적으로 전 전선에 걸쳐 시도한 전면공세 중 김화지구에 대한 중공 제24군의 집중 공세를 저격, 삼각고지, 북진의 3개 능선에서 적을 격파하면서 중부전선의 일역에서의 주저항선을 정제한 지역 방어

전이다.

한국전쟁의 막바지를 획하는 이 기간 중의 적정을 일별 کنده, 적은 휴전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봉이라도 더 많은 고지를 약취함으로써, 군사분계선 획정에 유리한 전세를 차지하고자 대공세를 기도하고 있었으며, 전 전선에 걸쳐 한국군에 방어정면으로 그 중공이 집중될 것으로 추단되었다.

③ 금성 전투

정전 협상이 계속되던 1953년 7월 중공군이 국군 5개 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금성 지역의 돌출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세를 감행했던 전투였다. 중공군의 공격으로 금성 돌출부의 양견부가 돌파되었으며, 뒤이어 후방의 지휘소(수도 사단)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는 등 대혼란이 야기된다. 중공군의 이 같은 공세로 미8군 사령관 테일러 대장은 국군의 방어선을 금성천 남단으로 재조정하여 국군은 금성천 남쪽의 백암산과 주파령, 적근산 부근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7월 15일 국군 제2군단은 6사단과 3사단을 예비부대로 전환 배치하고 5사단은 백암산 남쪽 고지군의 방어선을 구축, 강화시켜 아군의 후방인 화천저수지까지 노리며 진격해오는 중공군을 저지한다.

폭우로 중공군이 재정비하는 사이 7월 16일부터 김종묵 소대장이 이끄는 특공대의 활약과 더불어 국군 제2군단(당시 5사단, 8사단, 11사단으로 구성)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미 제8군의 공격목표인 아이슬랜드선(간진현-금성천-462고지)으로 진출하였으나, 금성 돌출부인 금성천 북안의 원진지는 회복하지 못한 채 이 선에 머물게 되었다.

이 전투로 인해 국군은 1,701 명의 전사자와 7,5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외에 4,136명이 사로잡히거나 실종되었다. 실종자의 대부분은 포로가 되어 휴전회담에서 논의된 포로와는 별도로 취급되어 포로 교환 당시에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중공군은 27,216명이 전사하고 38,700명이 부상당했으며, 186명이 포로가 되었고 1,428점의 무기를 노획 당했다.

중공군은 금성천 북안의 주요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지만 점령지의 절반을 다시 내어준 것과 화천담 공략 실패로 인해 국군보다 2~3배가 우세한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국군에 비해 3~4배 발생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과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전 협정의 조인만 남겨둔 상태에서 반공포로 석방은 정전 협정을 연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금성 전역 약 40km 정면에서 평균 4km를 남하하여 잃은 영토만 192.6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수천 명의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를 낳게 되었다.⁴³⁾

43)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 참조.